

# 서해 영해기점 도서

## 발간사

2014년 7월 ‘격렬비열도’라는 섬이 신문지면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서 서쪽으로 열지어 있는 섬들 가운데 최서단에 위치한 3개의 섬을 가리킵니다. 당시 신문기사는 세 개의 섬 가운데 최서단에 위치한 서격렬비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이 섬을 매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통해 기선(基線)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를 영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선은 최외곽 지역에 기점을 지정한 뒤 이를 연결한 선을 말하는 것으로 서격렬비도 또한 영해기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중국인에게 매입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해양영토 관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작지점인 영해기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인 서격렬비도를 비롯하여 소령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상왕등도, 횡도, 고서, 흥도, 소국홀도, 소흑산도(가거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하여 이곳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 역사와 함께했으며,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곧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사라져가는 전통 어촌문화의 역사를 밝히고 원형을 보존하는데 작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일조한 도서지역 사람들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 관계자들, 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신 지역 관공서 및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먼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조사에 임하고 보고서 작성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7년 12월

국립해양박물관장 손재학

## | 일러두기 |

- 본 보고서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에 대한 결과물이다.
-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문헌조사와 민속학적 현지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 보고서에 수록된 지도는 연대가 오랜 순으로 실고자 하였으나 글의 문맥에 맞게 사용하였다.
- 거리 단위는 km, 면적 단위는 m<sup>2</sup>와 km<sup>2</sup>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유인도와 무인도의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유무이다.
- 기사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및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 보고서의 <사진> 항목 가운데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사진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하면서 촬영한 자료이며, 이외의 사진 자료는 출처 및 제공처를 표기하였다. <그림> 항목은 (고)지도, 어장도, 전경도 등이다.

# 서해 영해기점 도서

발간사	004
일러두기	007
표·그림·사진 목차	010
참고문헌	169

I.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방법과 개요	012
II.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기점	018
1. 1945년 해방 이전 한반도 영해	023
2. 대한민국 영해의 변천과 완성	027
III.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	038
1. 유인도	044
1) 어청도 2) 상왕등도 3) 횡도 4) 흥도 5) 소흑산도(가거도)	
2. 무인도	128
1) 소령도 2) 격렬비열도 3) 직도(소피도) 4) 고서 5) 소국홀도	
IV.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	158

표 목차

- 표 1. 주요 조사 일정
- 표 2. 주요 제보자 인적사항
- 표 3.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그림 목차

- 그림 1. 국무원포고 제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 그림 2. 어청도 지도(1:20000)
- 그림 3. 동여도 속 전횡도
- 그림 4. 어청도 어장도
- 그림 5. 상왕등도 지도(1:10000)
- 그림 6. 동여도 속 왕등도
- 그림 7. 왕등도 어장도
- 그림 8. 횡도 지도(1:5000)
- 그림 9. 안마군도 주변 어장도
- 그림 10. 홍도 지도(1:40000)
- 그림 11. 朝鮮全圖 일부분(1894, 동경지학협회)
- 그림 12. 홍도 어장도
- 그림 13. 가거도 지도(1:40000)
- 그림 14. 북쪽에서 바라본 가거도 전경도
- 그림 15. 동여도 속 흑산면 일대
- 그림 16. 가거도 어장도
- 그림 17. 동여도 속 태안 도서
- 그림 18. 격렬비열도 어장도
- 그림 19. 소국홀도와 대구굴도 지도(1:5000)

사진 목차

- 사진 1. 대한민국영해직선기선도
- 사진 2.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문서
- 사진 3. 영해기점 전경
- 사진 4. 영해 직선기점 영구시설 안내석과 영해기점 표지석(횡도)
- 사진 5. 서해 영해기점 도서

- 사진 6. 어청도와 주변 도서
- 사진 7. 상공에서 바라본 어청도
- 사진 8. 어청도 바위 위 서식 생물
- 사진 9. 어청도 전경
- 사진 10. 어청도 치동묘
- 사진 11. 어청도 마을
- 사진 12. 1988년 어청도 우편 취급소 모습
- 사진 13. 어청도 등대
- 사진 14. 어청도 선착장에서의 고래 해체(1988년)
- 사진 15. 어청도 항구에 정박 중인 해군 함정과 해군
- 사진 16. 상왕등도와 주변 도서
- 사진 17. 상공에서 바라본 상왕등도
- 사진 18. 간재 전우 초상화와 간재 전우 유희비
- 사진 19. 용문암 전경과 용문굴
- 사진 20. 상왕등도 전경
- 사진 21. 상왕등도 인근의 안강망 어선과 어구
- 사진 22. 상왕등도 미역 건조
- 사진 23. 상왕등도 항
- 사진 24. 상공에서 바라본 횡도
- 사진 25. 횡도와 주변 도서
- 사진 26. 안마도에서 바라본 오도와 횡도
- 사진 27. 안마도의 눈
- 사진 28. 횡도 전경
- 사진 29. 안마도 팽나무
- 사진 30. 안마도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소규모 어선
- 사진 31. 홍도와 주변 도서
- 사진 32. 깃대봉 쪽에서 바라본 홍도 1구 전경
- 사진 33. 해안에서 바라본 홍도 2구 전경
- 사진 34. 상공에서 바라본 홍도
- 사진 35. 깃대봉 인근 서식 식물 및 원추리
- 사진 36. 홍도 바위 위 서식 생물
- 사진 37. 천연보호 구역 표지석
- 사진 38. 홍도 서남쪽 전경
- 사진 39. 홍도 선착장에서 바라본 홍도 1구
- 사진 40. 홍도 주변 기암괴석
- 사진 41. 홍도 관광 여객선
- 사진 42. 홍도 선착장 모습

- 사진 43. 홍도 독립문 바위 아래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 (1980년대)
- 사진 44. 홍도 해녀촌과 견어물 판매장
- 사진 45. 홍도 해녀들이 채취한 홍합과 미역 건조
- 사진 46. 홍도 깃대봉 정상 표지석
- 사진 47. 홍도 일출봉에서 바라본 홍도항과 깃대봉
- 사진 48. 홍도 정속가마터
- 사진 49. 홍도 등대
- 사진 50. 홍도와 목포 인근 도서
- 사진 51. 홍도 일출봉에서 바라본 바다
- 사진 52. 복원된 홍도 죽항 당산
- 사진 53. 소흑산도(가거도)와 주변 도서
- 사진 54. 가거도 1구 대리 마을
- 사진 55. 가거도 2구 향리 마을, 3구 대풍리 마을 전경
- 사진 56. 상공에서 바라본 가거도
- 사진 57. 북쪽에서 바라본 가거도
- 사진 58. 조업 준비 중인 어선과 불락 그물 수리
- 사진 59. 가거도 후박나무 군락과 후박나무 껍질
- 사진 60. 가거도 멀치 액젓 숙성과 완성된 멀치 액젓
- 사진 61. 도초도에서 바라본 비금도
- 사진 62. 가거도 3구에서 바라본 망재
- 사진 63. 가거도 제1방공호와 제2방공호
- 사진 64. 가거도 등대
- 사진 65. 가거도 대리의 하당이 있었던 언덕
- 사진 66. 가거도 3구 제당과 당여
- 사진 67. 소령도와 주변 도서
- 사진 68. 소령도 전경
- 사진 69. 격렬비열도와 주변 도서
- 사진 70. 상공에서 바라본 격렬비열도
- 사진 71. 서격렬비도 갯이갈매기
- 사진 72. 서쪽에서 바라본 서격렬비도
- 사진 73. 북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
- 사진 74. 북격렬비도와 등대
- 사진 75. 북격렬비도 태양열 전지판과 기상관측장비
- 사진 76. 북서쪽에서 바라본 격렬비열도
- 사진 77. 바실 홀 항해기 속 격렬비열도
- 사진 78. 해좌전도

- 사진 79. 북격렬비도 동백나무 군락
- 사진 80. 안흥 외항에 정박중인 안강망 어선과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 사진 81. 북격렬비도에 접안한 어선
- 사진 82. 직도와 주변 도서
- 사진 83. 상공에서 바라본 소피도와 직도
- 사진 84. 소피도 남쪽 모습
- 사진 85. 고서 전경과 기점
- 사진 86. 상공에서 바라본 소국홀도와 대구굴도
- 사진 87. 소국홀도 전경
- 사진 88. 소국홀도 바위 위 서식 생물
- 사진 89. 가거도 대리마을 상수도 정수장
- 사진 90. 상왕등도 마을 위쪽에 위치한 한국전력 발전소
- 사진 91. 가거도 대리마을에 위치한 '대한민국최서남단' 표지석
- 사진 92. 가거도 대리마을에 위치한 조형물

# I

##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방법과 개요

## I.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방법과 개요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해양과 바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라져가는 해양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양영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해기점 도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서해 영해와 영해기점 도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른 서해 영해기점 도서로는 격렬비열도를 비롯하여 소령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상왕등도, 횡도, 고서, 흥도, 소국홀도, 소흑산도(가거도) 등 10여 개소가 있다.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현지조사와 고지도를 포함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인 이상의 연구자들이 영해기점 도서 및 주변지역을 찾아가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고 현 상황을 기록해 두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
조사부단장	김주식 운영본부장
책임조사원	백승옥 학예연구실장
조사원	서영남 김소형 전경호 이예니 김승신 제아름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는 태안군 근흥면을 방문하여 어촌계 및 마을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2월 조사기간 동안에는 정월 대보름이 포함되어 있어 신진도와 안흥에서 열린 당제와 풍어제에 대한 조사

도 함께 진행하였다. 세 번째 현지조사는 4월에 이루어졌으며 상왕등도와 어청도, 가의도를 방문하였다. 네 번째 현지조사부터는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서해 영해기점을 직접 답사하는 한편, 마을 조사를 병행하였다. 5월에는 소령도와 서격렬비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횡도, 상왕등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얻어 박물관 자체적으로 격렬비열도를 조사하였다. 6월에는 흑산도와 소흑산도(가거도), 흥도 지역 조사 및 소국홀도와 고서, 직도(소피도)를 포함한 영해기점 답사 및 마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9월에는 흥도, 횡도, 안마도 지역을 방문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조사 일정

회차	조사 일시	조사지	주요 조사내용
1	2016. 12. 19.~ 20.	태안군	격렬비열도 조사
2	2017. 2. 9.~ 11.	대전, 태안군	격렬비열도 조사
3	2017. 4. 24. ~ 28.	상왕등도, 어청도, 가의도	영해기점 관련 제보자 면담 및 사진촬영
4	2017. 5. 15. ~ 19.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횡도, 상왕등도	
5	2017. 5. 30. ~ 6. 1.	군산시, 북격렬비도	
6	2017. 6. 12. ~ 20.	흑산도, 가거도, 소국홀도, 흥도, 고서, 직도	추가 조사
7	2017. 9. 18. ~ 22.	흥도, 안마도, 태안군	

현지조사에서는 영해기점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지역의 역사, 과거의 경험, 어업 형태, 의·식·주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연구 대상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영해기점에 대한 인식 등을 구조화된 질문지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영해의 시작지점에 위치하는 연구 대상지의 특성상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하여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여객선이 매일 운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지역의 문화원 및 관공서를 경유하여 영해 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적 풍부하게 알고 있는 제보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3일간 마을에 체류하면서 지역 대표자(이장, 어촌계장 등)들과의 면담을 통해 각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채록하였다.

표 2 주요 제보자 인적사항

조사지	거주지역	나이	제보자	
격렬비열도	태안군 근흥면	68	오병길	안흥 어촌계장
	태안군 근흥면	68	김성진	신진도 1리 이장
	태안군 근흥면	66	김승관	신진도 1리 당제(2017) 집사
	태안군 근흥면	64	이정표	신진도 1리 당제(2017) 당주
	태안군 근흥면	50대	이종호	한울해양개발주식회사 기술부장
	태안군 근흥면	78	주만성	가의도 어촌계장
	태안군 소원면	70대	김계자	모항 해녀협회 회장
상왕등도	부안군 상왕등도	71	노병업	상왕등도 거주
	부안군 상왕등도	60	유원근	상왕등도 발전소 근무
	부안군 상왕등도	62	서홍식	상왕등도 이장
어청도	군산시 어청도	78	정병남	마을 슈퍼마켓 운영 / 부부 인터뷰
	군산시 어청도	57	이용원	마을 슈퍼마켓 운영
	군산시 어청도	69	이일권	어청도 어촌계장
가거도, 소국홀도	신안군 가거도	65	고승호	가거도 3구 마을 이장
	신안군 가거도	80	고흥삼	가거도 1구 거주
	신안군 가거도	60	정석규	가거도 1구 민박집 운영(前 어촌계장)
홍도, 고서	신안군 홍도	74	오순자	홍도 거주(前 해녀)
	신안군 홍도	80	이동석	홍도 거주
횡도	영광군 안마도	55	이선규	안마도 어촌계장
	영광군 안마도	73	김석현	안마도 노인회장, 1989년까지 횡도 거주
	영광군 안마도	71	서용복	前 안마도 발전소장
	영광군 안마도	70대	강경자	가게 및 민박집 운영
	영광군 횡도	55세	박기옥	횡도 이장, 안마도와 횡도에서 거주

문헌조사는 현지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고려 말부터 시작한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인해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미비하다. 기록되어 있는 자료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러 등장하는데 대부분 간략한 위치와 인구 수 등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부족한 문헌자료는 일제에 의해서 기록된 자료 및 근현대 신문 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부족한 문헌 기록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장에서는 서해 영해기점 조사 방법과 개요에 대해 서술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영해와 영해기점에 대한 정의와 함께 대한민국 영해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해의 범위가 국내법으로 인정된 것은 1978년 이후부터이고, 이전 시기까지는 외국 선박들의 불법 침입이 만연하였다. 특히 서해는 일제에 의해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이용 되기도 했다.

제3장의 주요내용은 서해 영해기점 도서 10개소의 지리적·자연적 특징과 함께 기록과 기억 속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 유인도와 무인도로 각각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각 도서의 자연환경은 관련 자료와 문헌기록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무인도의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부족한 역사 기록과 사실들은 서해 영해기점과 그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 과거와 현재의 영해기점 도서 문화를 파악하여 보완했다. 각 도서의 역사적 사건들과 마을 변천 과정, 과거와 현재의 어업, 생활모습 등을 채록하고 이를 정리·분석하였다.

제4장은 이 보고서의 맺음말로 우리나라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 II

##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기점

- 
- 1. 1945년 해방 이전 한반도 영해 23
  - 2. 대한민국 영해의 변천과 완성 27

## II.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기점

1 1982년 4월 30일 UN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조약 명칭이다. 「UN해양법협약」의 주요내용은 ①영해의 폭을 최대 12해리로 확대, ②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 신설, ③심해저 부존광물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 ④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 ⑤연안국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시 허가 등을 규정, ⑥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설치 등 해양관련분쟁 해결의 제도화 등이다(해양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6629&categoryId=42463>).

영토란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본질적인 땅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영해 및 땅과 영해의 상공인 영공까지 포함한다.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반면 영해의 범위는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측정하는 지점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UN해양법협약」<sup>1)</sup>에서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즉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낮아졌을 때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점까지를 영해의 범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상기선(normal baseline)’이라고 하며 여기에서부터 12해리가 영해의 범위가 된다. 그러나 해안선이 굴곡져 있거나 연안과 떨어져 많은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안 저조선을 따라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UN해양법협약」에서는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에 의한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UN해양법협약 제7조 직선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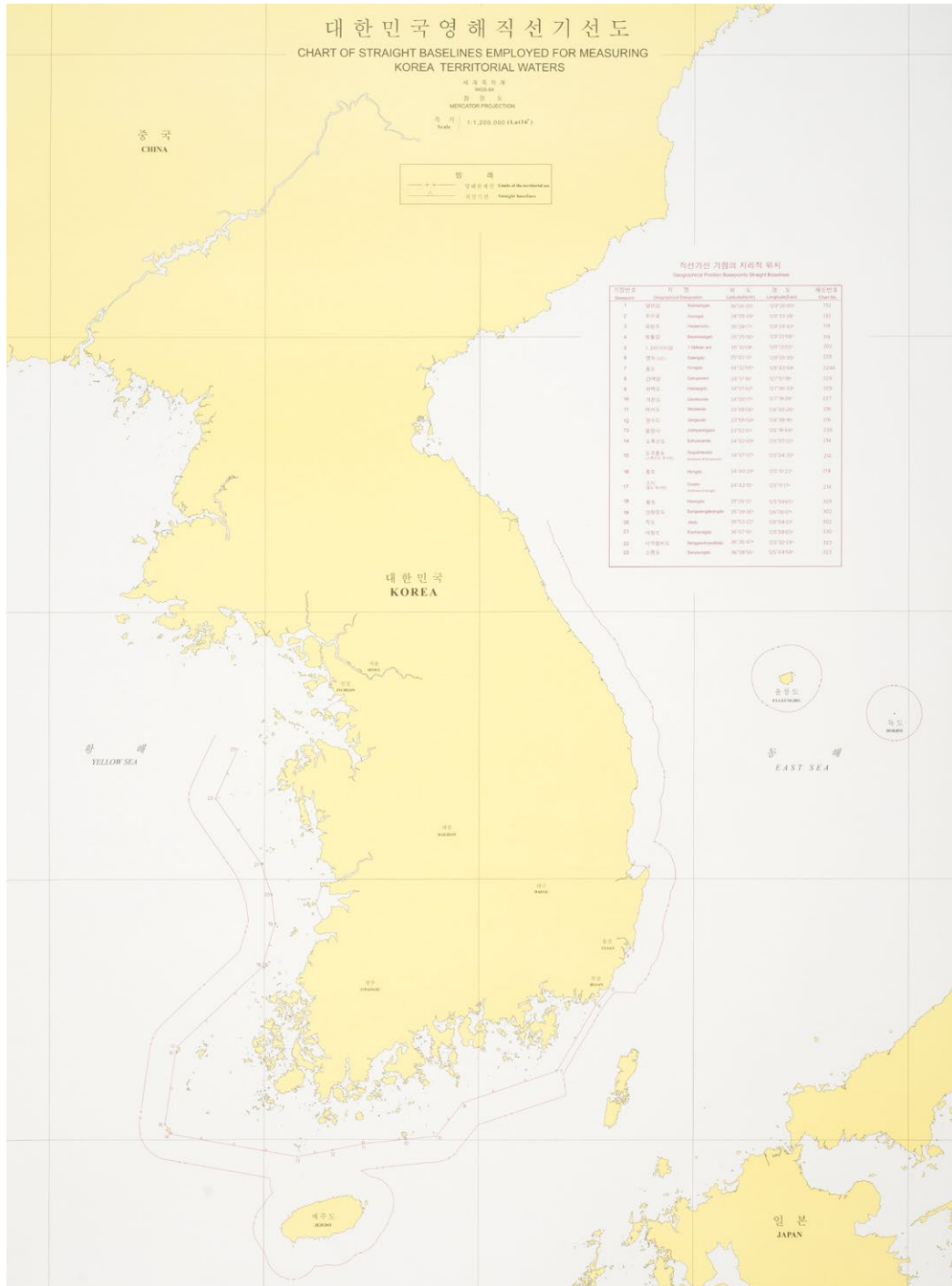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4.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5. 제1항의 직선기선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UN해양법협약」 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한 지점인 영해기점을 정한 뒤 이를 연결한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간조노출지<sup>2)</sup>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등대나 유사한 시설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직선기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에서는 해안 저조선을 연결한 통상기점을 활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해안선이 복잡한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영해기점을 정한 뒤 이를 연결한 직선기선을 활용하여 여기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를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2 간조노출지란 간조 때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만조 때 물에 잠기는 지형물을 말한다.



## 1. 1945년 해방 이전 한반도 영해

고려 말부터 시작된 공도정책<sup>3)</sup>으로 인해 한반도 서·남해안의 여러 도서는 무인도로 남겨져 있었다. 또한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섬으로 도망친 뒤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워 생활하기도 했다.<sup>4)</sup> 그러나 17~18세기 사회변화와 도서지방의 안정을 계기로 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다.<sup>5)</sup> 실제로 섬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잡아 본거지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조선 초기의 정책도 18세기부터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조선 숙종 33년(1707)에는 가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준 뒤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다.

**가거도(현재의 가거도)가 적로(賊路)의 첫길이 된다고 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두었는데, 근래에 와서 유민(流民)들이 다시 모여들므로 조정에서 장차 다시 몰아내려고 하였다. 윤세기가 몰아내지 말고 그대로 훈국(訓局)에 소속시켜 군향(軍餉)에 보탬 것을 청하니 따랐다.<sup>6)</sup>**

즉 18세기에 이르러서 조선의 행정력이 한반도와 모든 도서 및 바다에 미치게 되면서 어느 도서에서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균역법」 시행(영조 27년, 1751) 이후에는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거두게 되면서 섬과 바다에 대한 행정력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 3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나주목에 살펴보면 영산폐현(榮山廢縣)이 나오는데 “이곳은 나주의 남쪽 10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흑산도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 남포(南浦)에 거주하여 영산현이라 불렀다. 이후 고려 공민왕 12년에 군으로 승격했다가 후에 주에 예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고려 말 공도정책으로 인해 흑산도 사람들은 육지로 집단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6일 기사 : ...“바닷가 연변(沿邊)의 백성이 여러 섬에 도망해 들어가서 혹은 고기를 낚고 소금을 굽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도 있고, 혹은 농사(農事)로 생활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내왕하면서 장사하는 자도 있는데...”
- 5 신안군, 「신안군지」, 신안군, 2000, 139쪽.
- 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8월 19일 기사.

- 7 1882년 6월 9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간의 차별과 군료분쟁으로 구식군대가 일으킨 난을 말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각하였던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
- 8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총 8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치외 법권 인정(제2관), 상선의 정박 허용 및 어선들의 평안도, 황해도, 산둥, 봉천 등 연안에서의 어업 허용(제3관), 바닷길 왕래(제7관) 등이다.
- 9 김문기, 「氣候, 바다, 漁業紛爭-1882~1910年間 朝淸漁業紛爭의 展開-」, 『中國史研究』 63, 中國史學會, 2009, 78~79쪽.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조선은 외국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통상 압박과 침입을 받게 된다. 특히 일본과의 「강화도조약」(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시작으로 조선은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한반도로 진출하여 영토주권을 유린하였다.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은 강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특히 제5관의 항구 개항과 제7관의 해안측량 허용으로 인해 조선의 영토주권은 침해받게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sup>7)</sup> 발발 후, 조선은 청나라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년)을 체결하여 한반도 연안에서의 청나라 어선들의 어업을 인정하였다.<sup>8)</sup>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어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주된 이유는 첫째, 당시 청나라 어선들의 조선에서의 불법 어업을 금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법화하여 어세를 징수하고자 함이었고, 둘째, 청나라 어민들이 주로 어획하는 청어가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해안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sup>9)</sup> 이에 따라 이전 시기까지의 해금(海禁)정책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닷길을 통한 왕래가 합법화 되었다.

일본도 임오군란의 처리를 위해 조선과 「제물포조약」(1882년)을 체결하고 군대를 주둔시켜 청의 조선 개입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서·남해안 어장에는 도미, 삼치, 전복, 멸치 등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어장에서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으로 불리는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연안에서의 합법적인 권리를 획득하였다.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청나라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선은 산둥성(山東省)과 평톈성(奉天省, 현재의 랴오닝성(遼寧省) 지역) 등의 청나라 연해 지방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일본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로 진출할 수 있게 되

었고, 조선은 일본의 히젠(肥前, 현 나가사키현(長崎県)), 치쿠젠(筑前, 현 후쿠오카현(福岡県)), 이시미(石見, 현 시마네현(島根県) 서부), 나가도(長門, 현 야마구치현(山口県)), 이즈모(出雲, 현 시마네현(島根県)), 쓰시마(對馬島) 연해까지 진출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바다에서 서로 어업이 가능한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어선의 조선 연안에서 어업활동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sup>10)</sup>, 조선 어선의 일본 연안에서 어업활동은 전무한 반면에 일본 어선의 조선 연안에서 조업만이 일방적<sup>11)</sup>으로 이루어졌다. 즉 1883년 이후부터는 한반도 대부분의 영토와 영해는 청나라와 일본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조선의 영토주권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한반도와 해양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다툼은 1894년 청일전쟁을 야기하였다. 청일전쟁은 한반도 서해 아산만 부근의 풍도에서 양국의 해군이 충돌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아산 인근에서의 육지전과 압록강 인근의 황해해전, 웨이하이(威海)해전에서 청군을 함락시키면서 승리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획득한 일본은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1899년 러시아가 마산포를 점령한다<sup>12)</sup>는 소문을 듣고 일본은 러시아 세력에 맞서 한반도 내에서 일본 어민들을 세력화하고자 했다.<sup>13)</sup> 이를 위해 1899년 일본 농상무성(農商務省) 수산국장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부산, 마산, 원산, 목포 등지의 어업 상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전초지기로 삼기 위해 일본에서 한반도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 확보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1901년 일본열도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가장 긴박한 항로인 인천항로, 서해안과 남해안 항로, 부산항 등에 총 30기의 등대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1903년 인천 팔미도 등대를 시작으로 여수 거문도(1905), 제주도 우도(1906), 울산 울기(1906), 진도 죽도(1907), 해남 시하도(1907), 신안 가거도(1907), 완도 당사도(1909), 인천 목덕도(1909), 진도

- 10 조세현,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일조각, 2016, 459쪽.
- 11 김수희, 「근대의 멸치, 제국의 멸치」, 아카넷, 2015, 106쪽.
- 12 실제로 러시아는 1900년에 마산포를 점령하였다.
- 13 김수희, 앞의 책, 2015, 112~113, 117쪽.

- 14 주강현, 「등대 문화사」, 항로표지 기술협회 국립등대박물관, 2015, 90~92쪽. 등대가 설치된 시기가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시작된 때부터이고 설치된 곳 또한 일본열도-인천의 주요 항로에 위치한 도서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등대가 제국주의 발현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 15 김수희,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 20,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4, 55쪽.
- 16 김수희, 앞의 책, 2015, 120쪽.
- 17 김문기, 「海權과 漁權: 韓淸通漁協定 논의와 어업분쟁」, 『대구사학』 126, 대구사학회, 2017, 264쪽.
-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일합병-<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하조도(1909), 충남 격렬비열도(1909), 부산 가덕도(1909), 울진 죽변(1910), 여수 소리도(1910), 거제 방화도(1911), 충남 어청도(1912) 등에 등대가 설치되었다.<sup>14)</sup>

1903년 야마구치(山口)에서는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組合)’ 창립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충청남도 어청도에 출어자 근거지를 설치하는 건이 논의되었는데 어청도에 일본인 어업 근거지를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sup>15)</sup> 어업근거지 건설은 러일전쟁(1904~1905) 중에 원활한 식량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어청도를 비롯하여 거제도 등 여러 서남해안 지역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각 전략적 요충지에는 망루와 전신소 등이 설치되었다.<sup>16)</sup> 또한 일본은 자국의 군대에 어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등 일본 어선들의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통어권을 획득하기도 하였다.<sup>17)</sup>

1910년 이후에는 한반도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이 일제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36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하고 금융·광업·임업·어업·운수·통신 등 모든 산업 분야를 독점하여 수탈하였다.<sup>18)</sup> 또한 1930년대부터는 한반도를 대륙 침략 및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수탈하였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 한반도 영토와 영해는 일제의 수탈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 2. 대한민국 영해의 변천과 완성

1945년 해방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해양 침입과 불법 어업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1952. 1. 18, 국무원 포고 제14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규정한 선을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른다.

1.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양에 인접한 해봉(海棚)의 상하(上下)에 기지(既知)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탐도(探度)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봉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며 또 행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좌(左)와 여히 한정된 연장해양에 궁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주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의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업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3. 대한민국정부는 이로써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

19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하며 또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좌(左)에 명시된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諸線)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이다.

7.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高頂)으로부터 북위 42도 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열도) 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 ㅈ. 마안도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韓滿) 국경의 서단과 교차되는 직선
4. 인접해양에 대한 본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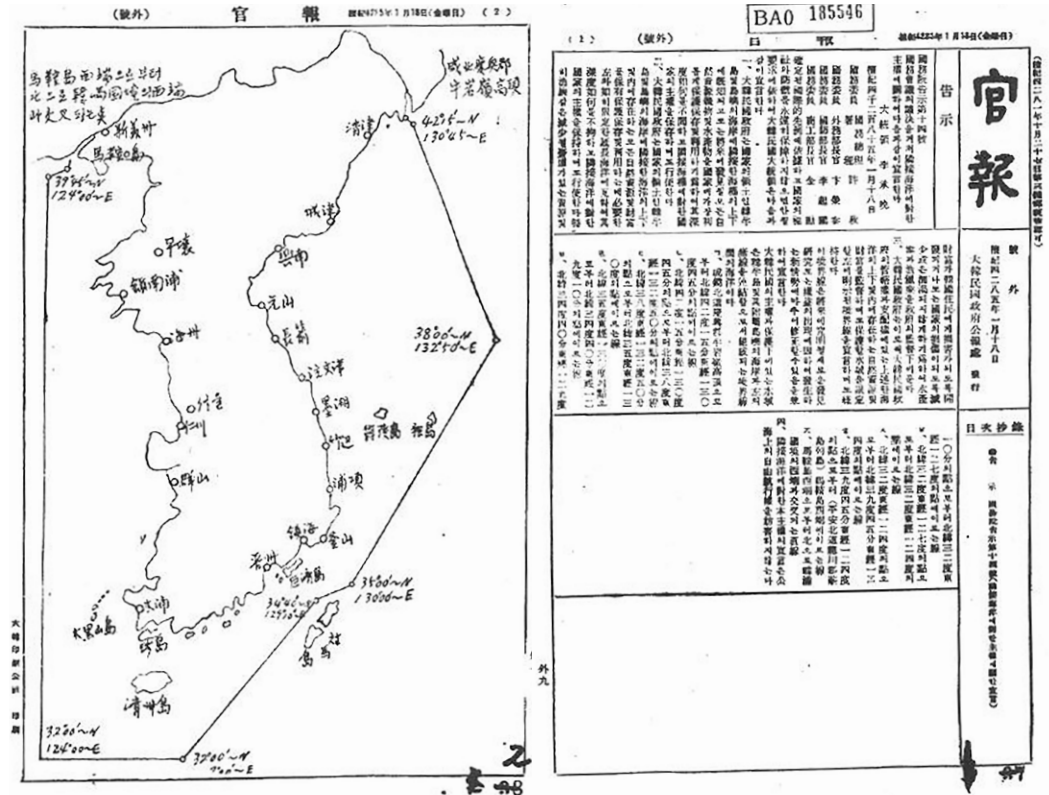


그림 1 국무원포고 제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출처 : 국가기록원)

대한민국은 평화선을 한반도의 영해로 규정하고 이를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선 침범은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침범 일선(日船) 계속 나포’, ‘성어기 노린 일 어선단’, ‘또 평화선 침범’, ‘일 어선 4척 나포’, ‘도둑질 하는 일 어선’ 등 당시의 신문기사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빈번한 침범과 불법 어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어선들도 평화선을 침범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언론은 여론을 조성하여 일본과 중국에게 평화선을 존중하라고 기사화하기도 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외국 어선들의 평화선 침범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 20 1차 회담부터 3차 회담까지 어업 관련 주요 쟁점은 평화선을 둘러싼 양국의 국제법적 논쟁이 대부분이었다. 평화선 선포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공해자원이 연안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공해자원 또한 관련국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반면, 일본의 주장은 '공해에서 자유어업 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조윤수,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2013, 140쪽).
- 21 연안국이 자국 연해의 수산자원을 자국민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어업수역을 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어업전관수역-<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22 조윤수, 앞의 논문, 2013, 144, 146쪽.
- 23 동아일보(1962.3.9.)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회담 이전부터 “직선기선에 의한 40해리 전관수역”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 24 조윤수,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일본비평』 1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108쪽.

한편 1951년부터 대일 외교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 일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한일어업협상은 중단되었다. 이후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고, 1962년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한일청구권 기본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단되었던 어업협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62년 한일청구권 기본합의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던 ‘평화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다. 반면 일본은 당시 국제법상 다수 의견이었던 ‘12해리’ 범위만을 영해로 인정하기를 주장하였다.<sup>20)</sup> 그러다가 1962년 12월 5일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평화선 수역에서 축소된 어업수역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이 제안한 12해리의 어업수역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1963년 7월 5일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전관수역(專管水域)<sup>21)</sup> 40해리 안을 일본측에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양국의 과도한 조업으로부터 연안국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장래 대한민국 어선이 일본 연안에 진출할 경우 양국에 생길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40해리 전관수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12해리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며 회담을 전면 거부했다.<sup>22)</sup>

1964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의 한일 농상회담에서는 12해리 전관수역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sup>23)</sup> 이후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문제, 어획량 규제 문제, 어업기술 협력 문제 등이 타결되어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sup>24)</sup>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규정된 12해리 전관수역은 어업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해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965년 12월 18일에는 한일어업협정 제1조의 배타적관할권 수역 설정이 대통령 고시 제1호(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로 공포되었다.

**대통령고시 제1호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 1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어업에 관하여 일본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배타적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연안의 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2.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선에 해당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 (가) 장기갑(長鬮岬)<sup>25)</sup>과 달만갑의 각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灣口)의 폐쇄선
  - (나) 화암추와 범월갑의 각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 (다) 1.5미터암, 생도, 홍도, 간여암, 상백도, 거문도의 각 남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 (라)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직도, 상왕등도와 횡도(안마군도)의 각 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3. 제주도 양측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선에 의하여 둘러 싸이는 수역
  - (가) 북위 33도 48분 15초와 동경 127도 21분과의 교점, 북위 33도 47분 30초와 동경 127도 13분과의 교점 및 우도의 진동 12해리의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 (나) 북위 33도 56분 25초와 동경 125도 55분 30초와의 교점과 북위 33도 24분 20초와 동경 125도 56분 20초와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4.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정 제1조 3의 규정에 의한다.<sup>26)</sup>

- 25 현재의 호미곶을 말한다.
- 26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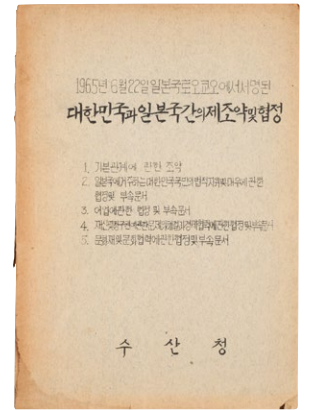


사진 2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문서(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7 동아일보 1965년 4월 10일 신문 기사 중 발췌 : 잃어버린 평화선 남해의 보고를 간다 (6) 자원감별 "...소흑산도(가거도), 홍도, 어청도, 격렬비도, 소청도를 잇는 직선 기선 밖의 전관수역에는 별다른 어장이 없고 그 이서(以西) 원양에서도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간다는 것이 어부들의 탄식이다. 어족자원의 변동이라기보다는 남획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서해는 조기를 노리는 어선들의 씨름터. 특히 연중 어로로 바다를 휩쓰는 데구리(기선 저인망)는 가히 이곳이 결전장이라는 것. 그래서 일본어선과 중국어선은 흔히 이 해역에서 말뚝을 일으키고 있다..."
- 28 1973년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해 12해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29 영해법 (법률 제3037호. 1977.12.31. 제정. 1978.4.30. 시행).

전관수역 외측에는 한·일간의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연간 어획량과 출어 척수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어업 능력 차이로 인해 한국 어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1965년 4월 10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전관수역에는 별다른 어장이 없고 공동규제수역에서도 일본 어선과 중국 어선들이 기선 저인망을 이용해 어족자원을 남획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었다.<sup>27)</sup>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국내법으로 영해의 범위를 정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영해의 범위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제적 관행상 영해 12해리 범위가 지지되고 있는 추세였다.<sup>28)</sup>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UN해양법회의의 추세와 주변 국가들의 관례에 따라 영해를 선포하고자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하였다. 「영해법」에서는 ①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되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②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영해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선) ①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sup>29)</sup>

그러나 1978년 4월 시행일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해안의 저조선을 기준으로 한 12해리, 즉 통상기선만이 적용되었다. 직선 기선을 활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정한 「영해법 시행령」은 1978년 9

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결과 동해안에서는 해안의 저조선을 연결한 통상기선을 활용하여 영해의 범위가 정해졌으며, 서·남해안에서는 육지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에 설정된 영해기점을 연결한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곳이 영해의 범위로 규정되었다.

**영해법 시행령**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에 제기하는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sup>30)</sup>

「영해법 시행령」에는 영일만, 울산만, 남해안, 서해안으로 나누어 총 23곳이 직선기점으로 규정되어 있다.<sup>31)</sup> 23곳의 직선기점은 현재 까지도 대부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1978년에 시행된 「영해법」과 「영해법 시행령」은 국내법 최초로 대한민국의 영해를 규정한 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영해법」은 접속수역의 범위를 24해리로 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1996년 8월 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23개소의 영해기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해기점에는 표지석과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조형물 등이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수립 이전까지 한반도 해양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 영토주권이 유린된 시기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영해법」과 「영해법 시행령」을 통해 국내법에서는 최초로 영

- 30 영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62호. 1978.9.20. 제정, 시행).
- 31 1978년 영해법 시행령에서는 영일만에는 달만갑과 호미곶, 울산만에는 화암추와 범월갑, 남해안에는 1.5M암, 생도(남단), 홍도, 간여암, 상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도, 칠명서, 소흑산도, 서해안에는 소국홀도(소흑산도 북서방), 홍도, 고서(홍도 북서방),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렬비도, 소령도가 기점으로 인정되었다. 현재의 시행령에는 소흑산도가 서해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영해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해안은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규정하였으며, 남해안과 서해안은 23개의 영해기점을 연결한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지역을 영해로 규정하였다. 현재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활용한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채택하고 있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해기점의 역사와 이곳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를 파악하여 이곳이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진 3 영해기점 전경. 왼쪽 끝지점이 상왕등도 영해기점으로 이곳에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범위가 우리나라 영해이다.



사진 4 영해 직선기점 영구시설 안내석 및 영해기점 표지석(횡도)

표 3 별표1.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제2조 관련) <개정 2002.12.18>

수역	기점	지명	경위도
영일만	1	달만갑	북위 36도 06분 20초 / 동경 129도 26분 00초
	2	호미곶	북위 36도 05분 29초 / 동경 129도 33분 28초
울산만	3	화암추	북위 35도 28분 17초 / 동경 129도 24분 40초
	4	범월갑	북위 35도 25분 56초 / 동경 129도 22분 08초
남해안	5	1.5미터암	북위 35도 10분 09초 / 동경 129도 13분 03초
	6	생도	북위 35도 02분 13초 / 동경 129도 05분 35초
	7	홍도	북위 34도 32분 05초 / 동경 128도 43분 59초
	8	간여암	북위 34도 17분 16초 / 동경 127도 51분 18초
	9	하백도	북위 34도 01분 42초 / 동경 127도 36분 33초
	10	거문도	북위 34도 00분 17초 / 동경 127도 19분 28초
	11	여서도	북위 33도 58분 06초 / 동경 126도 55분 26초
	12	장수도	북위 33도 55분 04초 / 동경 126도 38분 16초
	13	절명서	북위 33도 52분 01초 / 동경 126도 18분 44초
서해안	14	소흑산도	북위 34도 02분 49초 / 동경 125도 07분 22초
	15	소국흘도 (소흑산도북서방)	북위 34도 07분 07초 / 동경 125도 04분 35초
	16	홍도	북위 34도 40분 29초 / 동경 125도 10분 22초
	17	고서 (홍도북서방)	북위 34도 43분 15초 / 동경 125도 11분 17초
	18	횡도	북위 35도 20분 12초 / 동경 125도 59분 05초
	19	상왕등도	북위 35도 39분 36초 / 동경 126도 06분 01초
	20	직도	북위 35도 53분 22초 / 동경 126도 04분 01초
	21	어청도	북위 36도 07분 16초 / 동경 125도 58분 03초
	22	서격렬비도	북위 36도 36분 47초 / 동경 125도 32분 29초
	23	소령도	북위 36도 58분 56초 / 동경 125도 44분 58초

(좌표체계 : 세계측지계)

# III

##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

1. 유인도 44

1)어청도 2)상왕등도 3)횡도 4)홍도 5)소흑산도(가거도)

2. 무인도 128

1)소령도 2)격렬비열도 3)직도(소피도) 4)고서 5)소국홀도

### III.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

1 서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황해'를 참조하였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가장 높게 들어온 곳(고조선, high water line)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저조선, low water line)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해양용어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6729&cid=42463&categoryid=42463>).

3 해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안가의 절벽을 말한다.

4 파랑(잔물결과 큰 물결)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평탄한 암반면을 말한다. 파식대는 해식애와 달리 외해(外海)에 면한 선단보다는 내만을 향한 지점에서 잘 나타난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서해<sup>1)</sup>는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서쪽으로는 산둥반도(山東半島), 북쪽으로는 랴오둥반도(遼東半島),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연해(沿海) 가운데 하나이다. 크기는 남북 약 1,000km, 동서 약 700km로 전 해역에 걸쳐 100m 이하의 수심을 가지는 거대한 대륙붕을 형성하고 있다. 대체로 수심은 20~80m 정도이며 평균 심도는 44m, 최심도는 103m이다. 최후의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았기 때문에 서해는 전체적으로 육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평균 수온은 25~27°C이며, 바람은 남동풍 또는 남서풍이 부는데 풍속은 약한 편이다. 겨울철 평균 수온은 2~8°C이고, 바람은 북서풍 또는 북풍이 불어 풍속이 매우 강한 편이다.

한반도 서해안은 압록강 입구에서 전라남도의 해남곶(海南岬)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 650km로 해안선의 길이는 육지부 4,719km, 도서 지방 3,700km에 이른다. 낮은 수심과 큰 조차(潮差)의 영향으로 간석지의 발달이 현저하여 만조시에는 침수되고 간조시에는 해변상에 나타나는 넓은 조간대(潮干帶)<sup>2)</sup>가 형성된다. 만입(灣入)을 중심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해저물질의 퇴적으로 지면이 높아져 육지면이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반면, 만조시에는 침수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 해식애(sea cliff)<sup>3)</sup>와 파식대(波蝕臺)<sup>4)</sup>가 노출되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전라남도 신안 홍도(紅島)가 대표적이다.

과거부터 서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고려사』에는 왕

자가 태어나면 여러 보물과 염분(鹽盆)<sup>5)</sup>, 어량(魚梁)<sup>6)</sup>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즉 고려시대에 이르러 어량의 경제적 이익이 컸고, 어량 어업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어량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천과 해면에 설치되어 있었다.<sup>7)</sup> 조선 후기 자료인 『여지도서』 영광현에는 “매년 봄 온 나라의 상선이 사방에서 영광의 파시전(波市田)으로 모여들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판매하는데 서울의 저잣거리 마냥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국 연해에 서식하던 청어가 서해로 이동하면서 서해는 대표적인 청어 어장이 되었다. 이처럼 서해에서는 조기와 청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 및 새우와 게류를 많이 어획할 수 있었다. 현재 서해에는 조기·갈치·민어·도미·고등어·새우 등과 같은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및 안강망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어종들이 서해에서 산란을 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서해는 해양 생물의 번식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넓은 대륙붕의 영향으로 서해는 패류들의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참조개·백합·홍합·전복·키조개·피조개·바지락·가리비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풍요로운 서해바다는 과거부터 우리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이 아니었다. 중국(당시 청나라)과 일본이 해양을 통해 대규모로 침입하였던 것이다. 청나라와 일본 어선들은 어족 자원이 풍부한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청나라 어선은 서해에서 청어를 잡았으며, 일본 어선들은 서해에서 도미를 잡았다. 이후 이들은 청어와 도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주로 잡은 조기, 멸치, 갈치 등도 어획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 활동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 「영해법」과 「영해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현재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활용한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선기선을 연결하는 영해기점 도

5 고려·조선시대 소금을 찌는 가마솔을 가리킨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6 함정 어구류에 속하는 어구의 일종으로 조선 성종 이전시기까지는 어량이라고 일컬어졌으나 이후부터는 어전(漁箭, 魚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당시 어민들이 어량을 '어살'이라고 호칭하고 있었으며 어살을 한문식으로 표현하여 어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7 연구 대상지는 아니지만,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는 어량의 일종인 독살이 있다. 독살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쪽을 향해 말굽(U) 모양으로 쌓은 돌담을 가리킨다. 밀물과 함께 연안으로 밀려온 물고기들은 썰물이 되어 빠질 때 돌담 가운데에 갇히게 된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 8 『신증동국여지승람』 가운데 격렬비열도(激烈比列島)가 속한 태안군의 내용을 보면 “동쪽으로는 서산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12리, 남쪽으로는 서산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65리, 서쪽으로는 소근포(所斤浦)에 이르기까지 33리, 북쪽으로는 서산군 경계에 이르기까지 17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태안의 부속도서는 산천 영역에 포함하여 각 도서의 이름을 나열한 뒤 “여러 섬들은 모두 서해 가운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 9 『여지도서』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서해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인 홍도와 가거도의 예를 들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의도(紅衣島)·가가도(可佳島) : 모두 주의 서쪽에 있다. 물길로 1,300여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여지도서』에는 “홍의도(紅衣島) : 둘레는 10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 가가도(可佳島) : 둘레는 15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이상의 두 섬은 모두 관아의 서쪽에 있는데, 뱃길로는 1,300리 남짓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를 총 23개소 지정해 놓고 있다.

서해에 위치한 영해기점 도서로는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상왕등도, 횡도, 고서, 홍도, 소국홀도, 소흑산도(가거도) 등 총 10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무인도로는 소령도, 서격렬비도, 직도(소피도), 고서, 소국홀도가 있다. 영해기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인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작은 바위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곳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선시대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각 지역의 위치와 경계가 기록되어 있지만 바다 위의 섬을 포함하여 한 지역의 경계를 구획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지(관아)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여 경계로 삼고 있으며 부속도서에 대해서는 명칭만을 나열하고 있다.<sup>8)</sup>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규모가 큰 유인도를 중심으로만 위치와 규모, 인구 수 등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sup>9)</sup> 여기에서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와 영해기점과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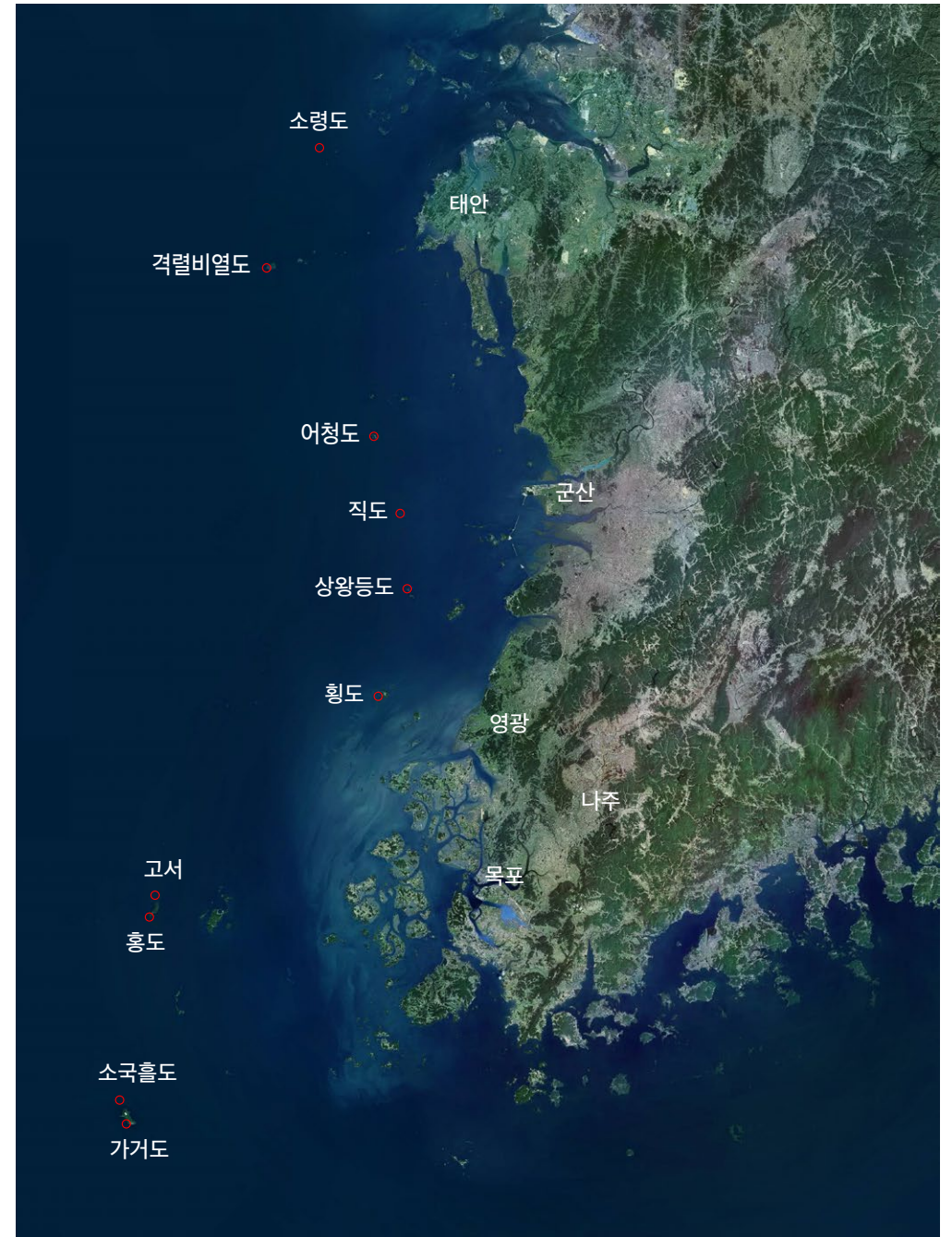


사진 5 서해 영해기점 도서 (출처: 다음)

## 1. 유인도

서해 영해기점 도서 가운데 유인도서로는 북쪽에서부터 어청도, 상왕등도, 횡도, 흥도, 소흑산도(가거도)가 있다.

### 1) 어청도

어청도는 군산항에서 뱃길로 72km 떨어진 지역으로 여객선을 타고 약 2시간 3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중국 산둥반도와와는 300km 떨어져 있어 전라북도에서 서쪽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섬 전체 면적은 1.8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10.8km이다.



사진 6 어청도와 주변 도서 (출처 : 네이버)



사진 7 상공에서 바라본 어청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그림 2 어청도 지도(1:20000) (출처 : 네이버)

-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어청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11 김정숙, 「연안 크루즈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선유도, 연도, 어청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0(2), 한국도서학회, 2008, 27쪽.
- 12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의 외연도로 추정된다.
- 13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주)민문고, 1989, 101-102쪽.



사진 8 어청도 바위 위 서식 생물

어청도라는 명칭의 유래는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거울과 같이 맑아서 어청도라 불렀다는 것과 중국 한나라 재상이었던 전횡(田橫)이 망명하던 중 푸른 산을 발견하고 푸를 청(靑)을 써서 어청도(於靑島)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다. 실제로 어청도는 대부분 100m 내외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지는 적지만 산림이 울창한 것이 특징이다. 해안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암석은 섬의 동쪽이 선캄브리아기의 편암, 서쪽이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으로 되어있다. 1월 평균기온은 -0.1℃, 8월 평균기온은 25.0℃, 연강수량은 1,028mm이다.<sup>10)</sup>

섬은 ㄷ자 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계절풍에 의한 침식으로 북서쪽에는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취락은 여객선이 드나드는 선착장 주변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 196세대 3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근해에서 멸치, 우럭, 노래미, 해삼, 전복 등을 주로 잡는다.<sup>11)</sup>

(1) 기록 속 어청도

조선시대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홍주목에는 원산도(元山島), 동을비도(冬乙非島), 잉분도(荇盆島), 사읍시도(沙邑時島), 흥아음도(興兒音島), 고태도(古台島), 장고도(杖鼓島), 사아음도(沙兒音島), 외야대도(外也代島),<sup>12)</sup> 어을초대도(於乙草代島), 횡건도(橫巾島)의 섬들이 있으며 모두 홍주의 남해 가운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섬 가운데 어느 것이 어청도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문헌기록에 어청도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인데, 조선 숙종 3년(1677) 1월에 외안(外安), 어청(於靑), 녹도(鹿島) 등 삼도(三島)의 봉수를 혁파하자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sup>13)</sup>

**"외안도(外安島)와 어청도(於靑島)는 바다 가운데 있어 멀리 망보기에 편리하므로 일전에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이 진(鎭)을 설치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진포(鎭浦)를 설치한**

**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곤란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복계하였습니다. 그 후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의 보고서 중에 '이미 20여 호(戶)를 모집하여 두 섬에 나누어 들였으며, 사천(私賤)은 남쪽 진포(鎭浦)의 토졸을 전례대로 그들의 상전(上典)으로 하여금 신공(身貢)만 거두고, 데리고 가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양인으로서 역(役)이 없는 자는 정역시키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도 부세를 거두지 말아서 보존시킬 터전이 되게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봉수란 늘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가 없으니 폐단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안·어청·녹도 등 세 섬에 봉화를 올리고 망을 보게 한다는 일은 즉시 혁파하고, 원산의 봉수만을 그전대로 계속하게 하소서. 또한 다른 곳의 봉군을 덜어내어 번을 세게 한다는 일도 마찬가지로 혁파하고, 수영에서 계획하여 거행케 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sup>14)</sup>**

기록에 따르면 어청도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봉수대가 설치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13세기 말 무렵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서해안의 방어체제를 마련할 때 이곳에 봉수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봉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청도에 살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sup>15)</sup>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봉수를 운영하는 데 많은 폐단이 있으니 어청도의 봉수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중국 한나라 재상의 망명 설화와 조선시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이른 시기부터 어청도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도서순례'<sup>16)</sup>의 고군산열도 부분에는 어청도의 다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 14 『국역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1월 16일 기사 발췌.
- 15 김효경, 「西海 신령이 된 田橫」, 『역사민속학』 3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101-102쪽.
- 16 1928년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도서순례'는 서해, 남해, 동해의 주요 도서에 7명의 기자들을 파견하여 각 섬들의 고적과 전설들을 소개하고, 섬 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다. 류창호는 이 연재기사에 대해서 조선시대 '해방정책(海防政策)'과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오랫동안 말해왔던 바다,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한 채 식민의 바다가 된 현실 속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재구성한 이 기사는 단순한 기행물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담보하는 변경(邊境, frontiers)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류창호, 「1920년대 여느 식민지 지식인의 서해도서 '巡禮」,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581~627쪽 참조.

17 『조선왕조실록』 속종실록 제46권, 속종 34년 7월 24일 기사.

당시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장자봉에서 길을 떠서 수로 200리를 가면 어청도란 섬이 있습니다. 도민의 말을 들으면 이 섬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울큰도(엷어 매인다는 의미)’라고도 하며 또 하나는 ‘울킨도(영 엷어 매인 의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물이 풍부하고 물색이 초월하여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올 생각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명칭이 있답니다. 마음이 약한 나로는 울켜지면 어쩔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아니합니다. 어청도의 옛 이름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오호도(嗚呼島)입니다. 과연 그 이름과 같은 슬픈 역사를 가진 섬입니다. — 동아일보 신문기사(1928. 7. 1.)

어청도의 다른 이름인 ‘오호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다시 조선 숙종대에 등장한다. 숙종 34년(1708) 영천의 유학 권순원이 오호도에 제단과 비석을 세울 것을 상소하였고, 숙종 36년(1710) 영천 유생이 오호도에 단을 세울 것 등을 청하였다.

영천의 유학 권순원(權舜元)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노동(蘆洞)에 단(壇)을 쌓아 망제(望祭)하는 곳을 삼으소서. 오호도(嗚呼島)는 5백의 의사(義士)가 사절(死節)한 지방이니, 특별히 예관(禮官)이나 혹은 변수(邊帥)를 본도(本島)에 보내어 제단(祭壇)을 세워서 신령(神靈)을 제사지내고, 비석(碑石)을 세워 미적(美績)을 표창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sup>17)</sup>

영천의 유생이 상소하여, 노동(蘆洞)의 국릉(國陵)이 있는 땅에 단(壇)을 쌓아 망제(望祭)를 지내고 인하여 수직(守直)을 설치하며, 오호도(嗚呼島)의 5백 인의 선비가 절의(節義)를 지켜 죽은 곳에도 또한 단(壇)을 세우고 비(碑)를 건립할 것을 청하였는데, 예조(禮

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노동(蘆洞)의 국릉(國陵)은 국초(國初)부터 구득(購得)하였으나, 마침내 징험(徵驗)할만한 자취를 얻지 못하였고, 오호도(嗚呼島)는 우리나라 지경 안에 있다 하나, 또한 명백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청한 것은 모두 근거할 바가 없으니, 순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8)</sup>

두 기록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오호도(嗚呼島)에 500명의 선비(의사)가 절의를 지켜 죽었다’는 것이다. 500명의 선비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기』에는 전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횡은 한 고조 유방과 동시대에 활약한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이다.

『사기』에 따르면 전횡은 제나라를 평정한 뒤 재상을 거쳐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후 유방이 한나라 왕이 되자 전횡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자기의 무리 500여 명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섬에서 살았다. 유방은 이 소식을 듣고 전횡 형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그대로 바다 가운데 두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전횡의 죄를 용서

18 『조선왕조실록』 속종실록 제49권, 속종 36년 11월 10일 기사.



사진 9 어청도 전경

- 19 사마천, 김원중 옮김, 『사기 열전』, (취민음사, 2011, 835~843쪽.
- 20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모두 산동 성과 가까이 있다. 그리고 외연도에는 전횡장군의 사당이 있다.
- 21 김미경, 「어청도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한국도서연구』 20(2), 한국도서(심)학회, 2008, 4쪽.
- 22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치동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하고 불러오고자 했다. 그러나 전횡은 “...신은 두려워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평민이 되어 바다의 섬이나 지키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방은 허락하지 않고 “낙양으로 오면 크게는 왕으로 삼고, 작게는 후로 삼겠다. 그러나 오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 죽이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전횡은 자신의 빈객 두 사람과 함께 낙양으로 향하던 중 스스로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무리 500명도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sup>19)</sup>

『사기』에 기록된 바다의 섬이 바로 속종실록에 등장하는 오호도로 추정된다. 『사기』에는 전횡이 중국의 동해바다(한반도의 서해바다)로 나갔다고 하였을 뿐, 한반도의 서해 도서까지 도달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청도를 비롯하여 외연도, 녹도 등 섬에는 전횡에 대한 설화가 존재하며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전횡을 신격화<sup>20)</sup>하고 있다.

어청도에도 전횡을 모시는 사당인 ‘치동묘(淄東廟)’가 있다. ‘치동묘’의 치(淄)는 ‘산동성 내무현에서 발원하여 동북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가는 강’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동묘란 ‘산동성 내무현에서 발원하여 동북으로 흘러 황하로 흘러가는 강의 동쪽에 있는 사당’이란 뜻이 된다.<sup>21)</sup> 치동묘는 팔각 기와지붕으로 단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공간은 남쪽을 제외한 세 벽에 1m 높이를 폭 30cm의 선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벽 정면에는 전횡 신위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당산신위(堂山神位)와 도당신위(禱堂神位)를 안치하였고, 오른쪽 선반에는 소저아지씨신위(小姐阿只氏神位)가 안치되어 있다. 이 소저아지씨는 전횡의 딸로 불리기도 한다.<sup>22)</sup>

마을 사람들은 어청도와 전횡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전횡이라는 역사적 인물은 마을 사람들의 구전을 거치면서 전설로 각색되었다.



사진 10 어청도 치동묘

중국에서 형제 두 분이 오다가 한 분은 여기로(어청도) 도착하고 한 분은 외연도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은 유배되어 왔다고 추측을 한다. 외연도에서는 그것을(전횡장군 사당)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어. 여기서 외연도가 많이 보여.

— 정병남(78세)

중국 형제가 어청도와 외연도로 각각 이주했다는 설화는 두 섬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였으며, 겨울과 여름에 북풍과 남풍이 불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sup>23)</sup>

- 23 김효경, 앞의 논문, 2011, 193쪽, 재인용. 이필영은 외연도에서 전횡장군 제사를 지내려면 어청도에서 마파람(남풍)이 부는데, 그것을 두고 주민들은 “어청도에 기거하는 전횡장군의 동생 두 분이 남쪽으로부터 제사를 함께 받기 위해서 왔다가, 제의가 끝나면 다시 북풍을 타고 어청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 한다고 보고하였다. 어청도의 마을 사람이 이야기한 ‘중국에서 온 형제 두 분’, 이필영이 보고한 ‘전횡장군의 동생 두 분’ 등 마을 사람들 구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전횡이 유방에게 가던 중 자결할 때 같이 있었던 두 명의 부하가 전횡과 그 형제의 외연도 이주로 각색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필영의 보고에서는 전횡장군이 외연도에 정착하였고 이 두 명의 부하는 어청도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진다.

24 동여도는 철종·고종 연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의 전국 채색지도이다.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는 분첩절첩식(分疊折帖式) 형태로 되어 있다. 총 23첩으로 맨 앞첩은 목록집이고, 제1첩부터 제22첩까지는 각 지역의 지리가 그려져 있어 「대동여지도」와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도는 산천표시와 함께 주현별(州縣別) 경계선을 그어 주현간의 도로를 표시하였다. 그 바탕 위에 영진(營鎭), 주현(州縣), 진보(鎭堡), 역도(驛道), 목소(牧所), 방면(坊面), 창고(倉庫), 봉수(烽燧), 능침(陵寢), 성(城), 도로(道路), 파수(把守) 등을 표시하였다. 지도상의 거리는 제1첩 1면에 방안을 그려 놓고 '방십리매편(方十里每片)'이라고 하여 매방(每方)의 실제거리가 10리임을 표시하였다. 동여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동여지도의 필사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밀·정확하게 그려진 훌륭한 지도첩이다. 도화서에서 그린 지도제작 솜씨와도 버금가고 있어 뛰어난 그림과 글씨, 채색 등이 18세기 후반기 조선지도 제작기술의 높은 수준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 작품 중의 하나로 꼽힌다(문화재청 문화재검색). 동여도는 보물 제135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동여도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동여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DB화하여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25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제53권, 영조 17년 5월 21일 기사 발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설화 속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철종·고종대에 제작된 전국지도인 동여도<sup>24)</sup>를 살펴보면 안면도 북서쪽으로 '田橫'이라는 섬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섬이 바로 어청도 혹은 외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동여도 속 전횡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숙종대부터 이루어진 오희도에 제단과 비석을 세우자는 요구는 전횡 설화가 대명의로에 적합한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영조대에 이르러서도 제단과 비석을 설치하자는 요구는 계속되었다.

...참찬관(參贊官) 오수채(吳遂采)가 전횡(田橫)의 오희도(鳴乎島) 일을 논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 이제묘(夷齊廟)와 제갈묘(諸葛廟)는 모두 산(山) 이름에 따라서 친히 묘호(廟號)를 써 준 것은 충성과 의리의 뜻을 오래도록 느끼게 하려는 까닭에서이다. 지금 듣건대, 오희도는 바로 우리 나라 홍주(洪州) 지방이라고 하니, 그것을 도신으로 하여금 옛날의 자취를 자세히 살피고 문도록 하라." 하였다...<sup>25)</sup>

오수채가 말하기를, "전횡과 500의사가 죽은 곳은 오희도입니다. 홍주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곳에 사람이 있는가?" 상한이 말하기를 "소신이 홍주에 갔을 때에 듣기로는 그곳에는 성터가 있으나 사람은 없었습니다."<sup>26)</sup>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유신의 아픔을 들으니 아, 섬은 곧 우리나라 홍주(洪州) 땅이라고 한다. 도신으로 하여금 옛 자취가 있다면 물어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sup>27)</sup>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어청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도 강조되었다. 숙종 3년(1677) 원세봉(元世鳳)은 오희도에 백성을 모아 진을 설치(募民設鎭)하여 경작과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원세봉은 어청도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채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성을 모아 그곳을 개척하자고 주장했다.<sup>28)</sup> 그 결과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어청도는 남자 72명, 여자 68명<sup>29)</sup>이 사는 섬이 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 열강들은 조선 해안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해 왔다. 헌종대에 이르러서는 이양선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기록<sup>30)</sup>이 있듯이 19세기 이후 한반도 전역에서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청나라와 일본 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청나라 어선 수백 혹은 수천 척이 황해도, 평안도는 물론이고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으로 밀려와 불법 어업을 자행하였다.<sup>31)</sup> 일본 어선들은 1885년과 1890년에 어청도에 처음 기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어청도 인근에서 잠수어업을 주로 하였는데, 어청도의 청어 어장에서 도미가 혼획되는 것을 목격하고 도미 주낙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이들도 있었다.<sup>32)</sup> 1893년에는 일본인들이 어청도로 이주하여 도미 어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어청도는 도미연승, 삼치유자망<sup>33)</sup> 어업의 근거지가 되었다.<sup>34)</sup>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

26 『승정원일기』 931책, 영조 17년 5월 21일 기사(김효경, 앞의 논문, 2011, 190쪽, 재인용).

27 『국역 비변사등록』 108책, 영조 17년 5월 23일 기사.

28 김효경, 앞의 논문, 2011, 189쪽, 재인용.

29 김우철 옮김, 『여지도서 10 충청도 III』, 디자인하름, 2009, 319쪽.

30 『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 제15권, 헌종 14년 12월 29일 기사: "이해 여름-가을 이래로 이양선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다섯 도의 대양(大洋) 가운데 출몰하는데, 혹 널리 퍼져서 추적할 수 없었다. 혹 물에 내려 물을 길기도 하고 고래를 잡아 양식으로 삼기도 하는데, 거의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31 김문기, 「氣候, 바다, 漁業紛爭-1882~1910年間 朝鮮漁業紛爭의 展開」, 『中國史研究』 63, 中國史學會, 2009, 71쪽.

32 장수호,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 : 개항에서 1910년까지 일본의 어업 침탈에 관한 연구」, 수산경제연구원BOOKS, 2011, 146쪽.

33 유자망이란 흘림겉그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물을 수면에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 흘러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 잡는 어법이다(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

34 김민영, 「1910년대 전북지역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와 구조」, 『한일민족문제연구』 8,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22쪽.

- 35 김수희,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 20,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4, 19-20쪽.
- 3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23권에는 군용토지 수용에 관한 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이번 日本 해군의 임시 근거지로써 巨濟島를 또 電信을 취급할 곳으로 거제도의 松眞, 全羅島 八口浦의 玉島, 忠淸道の 於靑島 및 黃海道의 葛川곳을 일본 정부가 보유하기로 결정함. 위의 구역에 한해 민유지를 구입하는 방법과 건축공사 등 때문에 발생할 전담의 손해를 보상 문제 등에 관해 해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주선하도록 각 해당 지역의 관할 영사에게訓令해 두었다. 이상 유념하도록 말해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3권, 『軍用土地 收用에 관한 件』, 국사편찬위원회, 1997).
- 37 이기복, 「1910~1930년대 어청도의 수산업과 다케베시즈오(武部靜雄)」,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70쪽, 재인용.
- 38 김수희, 앞의 논문, 2004, 21쪽.

을 강화하였다. 1899년에는 군산항을 개항시키고 어청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근해의 어장을 약탈하였다. 당시 군산-어청도 지역의 주 어종은 도미, 삼치, 갈치, 조기, 병치 등이었으며 5월 상순에서 6월 중순에 많이 잡혔다. 이때에는 일본 어선만 300척을 상회하였고 청국 어선들도 다수가 이곳으로 출어하였다.<sup>35)</sup> 1900년대에 이르러 어청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일본 해군의 임시 근거지로도 사용되었다.<sup>36)</sup> 또한 일본은 어청도에 이주어촌을 건설하고자 어청도를 조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위치가 원해에 있고 수심 역시 깊어서 성서엄한(盛暑嚴寒)의 절후에도 어류의 회유가 끊이지 않아 연중 조업이 가능하며, 파로스항(巴露斯港; 파로스항)이라는 서해안 중 완전한 자격을 갖춘 좋은 어장이 있어 일한의 어선과 범선의 기항이 많아 연중 번성하는 곳이다. 근해에서는 연중 어업이 가능하지만 최성어기는 10월~12월 초순의 도미·잡어 연승어업과 1월 하순부터 4월의 도미·가오리 연승어업(가오리는 이 어장에서는 최고로 많이 산출되는 것)철이다. 많을 때는 일본 어선만도 50~60척에 달한다.<sup>37)</sup>

(2) 기억 속 어청도

어청도 근해는 한반도 가장 서쪽에 있는 어장으로 수심이 깊고 물이 맑으며 흑서, 흑한을 막론하고 어류의 회유가 끊이지 않아 일년 내내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sup>38)</sup>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어청도는 주변 국가들의 주요 어획지로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식민지 어업수탈의 대상이었다. 1903년에는 인천에 거주하던 가미 에이타로(加味榮太郎)가 어청도에 이주 어가(漁家)를 건설하여 20호를 이주시켰다. 이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기관이 필요하여 관할청인 인천 이사청에 우편국의 설치를 출원하였다. 이 우편사무는 호남지역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설치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어청도에서는 작은 규모로 자족적인 방파

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925년에는 어청도 내에 공립보통학교가 신설되기도 하였다.<sup>39)</sup> 1928년에는 어청도에 100여호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본 가옥도 10호나 있었다. 또한 당시 주재소, 우편소, 소학교, 보통학교 등 관공서를 비롯하여 유곽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군산 근해 중에서 가장 발전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호수가 100여 호 그 중에 일본 사람도 10집이나 있습니다. 어장이 좋으나 모두 그들이 대부(貸付)를 마타가지고 있으며 그 바람에 주재소도 있고 우편소, 소학교, 보통학교까지 다 구비하여 군산 근해 중에서는 제일 열렸다고 하기는 하나 섬사람의 순진하고 태고스러운 인심이 없고 다소 약박한 기미가 보입니다. 말도 다 끝내기 전에 다 알아들은 듯이 덤비는 반거청이도 보이고 되지 못한 말을 중얼거리고는 의궤 자못 양양하여 시골 경부 놀듯하는 것을 보니 만사는 다 미루어 알겠으며 게다가 유곽까지 있어서 못된 것도 구비한 모양입니다...” — 동아일보(1938. 7. 1.)

39 동아일보 1925년 4월 27일 신문 기사: 全北의 公普校 四個所新設.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북도 내에 전주 옥구군 어청도 공립보통학교, 정읍군 산외 공립보통학교, 진안군 안천 공립보통학교, 순창군 유등 공립보통학교 등 4곳이 1925년에 신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 11 어청도 마을

40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권, 毎日 申報 1910년 12월 25일 기사.

해방 이후에도 일본식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재에도 마을에는 3~4채 정도의 일본식 가옥이 있으나 개조를 해서 외관으로는 일본식 가옥 형태가 파악되지는 않는다.



사진 12 1988년 어청도 우편 취급소 모습 (제공 : 정병남)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조물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 집도 일본 사람이 지은 집이다. 뼈대는 좀 남아 있어요. 천장이라든가 일본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흙 벽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만든 집이었지. 집을 고치는데 그게 안 부서져. 나무로 엮어가지고 그물 같이 철망을 붙여놔서 잘 안 부서져. 우리 집은 기둥이나 천장은 일본 때 만든 거 그대로 쓰고 있지. 한 3~4채가 지금도 있긴 한데 그 형태를 볼 수는 없죠.  
— 정병남(78세)

1900년대 어청도 연안 및 근해에서는 도미, 멸치, 갈치, 조기, 고등어, 농어, 전갱이, 상어, 대구, 가오리, 전복, 해삼, 미역, 해태 등이 서식하였고 근해에서 포경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sup>40)</sup> 이곳에서의

포경업은 1934년 어청도 어항 개수공사 이후 대청도를 근거지로 출어하였던 일본 포경회사가 어청도로 근거지를 변경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어청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제는 어청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하고 있었다.

**섬은 서해의 고도 중 하나이지만 일본 및 남연안 여러 항구로부터 인천 및 그 북쪽과 북청(北淸)에 이르는 항로의 요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범선의 기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어업은 사철 내내 영위할 수 있으며, 일본인도 40여 호 남녀 1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정박지는 섬의 중앙부 남쪽에 있으며 북쪽으로 만입된 곳이다. 수심이 깊어 큰 배도 정박할 수 있으나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무렵에는 남풍이 강하여 바람이 불면 출입이 모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박해 있는 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지 않다. 또한 섬 주위는 험준한 절벽 혹은 암벽을 이루고 있어서 경계를 요한다. 단 해안을 조금 벗어나면 지장이 없다.**<sup>41)</sup>

어청도의 개발과 발전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의 주요 증거이지만, 1912년 어청도 등대 건립, 1933년 라디오 설치, 1935년 상수도시설 설치 운동 실시, 1936년 어청도 어항 완성 및 군산-어청도간 무선 전신 개통 등이 이뤄졌다. 특히 어청도 등대<sup>42)</sup> 건립은 어청도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연중어업이 가능했으며 중국 산둥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1930년대 당시 어청도 근해에는 고등어가 풍년이어서 매일 3만 마리 이상을 어획하여 연산액 10만원을 돌파하자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일본 사가현(佐賀縣)에서 59척의 어선이 모여들어 해상 풍경이 혼잡을 이루었고<sup>43)</sup>, 겨울철에는 홍어잡이가 활황을 띠어 연산액 10여 만 원에 달했으며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

41 이근우, 신명호, 심민정 번역, 『한국 수산지 1-1』, 새미, 2010, 21~22쪽.

42 어청도 등대는 입구의 삼각형 돌출지붕과 이를 장식한 꽃봉오리가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좁아드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바다와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에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되었다. 어청도 등대의 지리적 광달거리(등광을 알아 볼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7마일(mile)이며, 음달거리(기상악화로 시계가 불량일 때 등명기 대신 소리로 등대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소리가 최대로 들리는 거리)는 2마일이다. 취명(소리가 1회 발생하는 시간)은 5초이고 정명(소리 1회 발생 후 중단되는 시간)은 40초이다. 등대에는 총 세 명의 등대원이 근무하며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43 동아일보 1934년 7월 9일 신문기사: 군산 근해 어청도에서 근일 고등어 대 풍획  
동아일보 1935년 5월 29일 신문기사: 군산 근해 신 어장



사진 13 어청도 등대 (출처 : 문화재청)

내지에서도 출어를 왔다.<sup>44)</sup> 1934년부터는 어청도 어항공사가 시작되었다. 어항공사는 어청도를 어업 전진기지로 이용하려던 목적도 있었으나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의 사전준비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어청도를 균량미 적재 장소로 이용했다는 마을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8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릴 때 쯤(1930년대 중후반) 여기에(어청도) 쌀을 천장까지 쟁여 놓았대요. 그때는 우리가 없이 살았잖아.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대나무로 꼬질대를 만들어서 몰래 쌀을 훔치기도 하고 그랬대요.  
— 정병남(78세)

일제에 의해 발견된 어청도 인근 포경장은 해방 이후 한국 포경업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 1959년 국내포경 어선 20여 척 중 16척이 조업을 실시하여 총 124두를 노획하였고<sup>45)</sup> 1967년 3월에는 서해안에서만 고래 94두를 잡기도<sup>46)</sup> 하였다. 어청도 인근에서는 주로 밍크 고래가 어획됐는데 이에 따라 포경선들이 1년이면 6개월 정도는 어청도에 정박하여 고래잡이를 하였다. 인근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어부 및 고래를 해체하는 인부들 대부분은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를 고래 바다라고 했지. 고래잡이 배들이 설 쇠고(설 명절 지나고), 보름 밥 먹고(정월 대보름 이후) 바로 여기로 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늦은 배들은 추석 지내고 가. 고래를 여기서 다 잡은 거여. 어청도에서. — 이일권(69세)

어청도 부근 바다에서 잡은 고래는 어청도에서 해체했다. 과거에는 인력으로 고래를 줄로 감은 뒤 육지로 끌어 올렸다. 그러다가 바

44 동아일보 1935년 11월 28일 신문 기사 : 어청도 일대 동어업(冬漁業) 활황

45 동아일보 1959년 10월 14일 신문 기사 : 124두를 어획

46 매일경제 1967년 4월 8일 신문기사 : 해방 후 처음 고래 풍어

47 파시란 어선과 어선 주위로 몰려든 상고선 간의 수산물 매매가 이루어진 공간을 말한다. 파시라는 단어는 '세종실록지리지' 영광군에 나오고 있어서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서해의 전통적이고 특수한 수산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전통적인 파시의 모습은 왜색 짙은 일본 문화가 일본 어민들에 의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파시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어선들의 임시 정박지(포구)에는 어업관계 출장소, 음식점, 요리집, 여관, 유곽, 선구점, 잡화점, 목욕탕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어민들을 상대로 한 술과 색도 등장하였다(김승·김연수, 『朝鮮時代 傳來의 波市와 漁業根據地 波市の 比較研究-타리파시(台耳波市)의 實態調査를 통해본다』, 『수산연구』 22,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5, 67쪽, 81쪽).

48 경향신문 1962년 1월 29일 신문 기사: 중공어선 중무장 '내무부는 "후전 후 모든 중공어선은 37내지 40마일 포와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각 해상국의 내 전 선박은 중공선박에 경계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29일 상오 내무부는 60년 1월 8일 우리 해양경비대 701점이 어청도 서방 60마일 해상에서 중공어선단으로부터 포격을 받았던 사실과 62년 1월 23일 제주도 서북방 165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중이던 일본어선 한 척이 중공선박으로부터 사격받은 실례를 들었다.'

동아일보 1962년 3월 29일 신문기사: 어청도 근해에 중공어선 10여 척

49 경향신문 1963년 3월 25일 신문 기사: 일어선 대거 침범. 해군서 경계 중 백여 척이 평화선 넘어 어로 동아일보 1964년 3월 21일 신문 기사: 일어선 50척 침범. 어청도 서남쪽 우리 어선 출어 못해 '21일 상오 10시 20분쯤 부산어업무선국에 의하면 이날 상오 9시 현재 전북어청도 서쪽 및 남서쪽 40마일에서 50마일 사이의 평화선 수역 내에 일본 저인망 어선 30여 척과 트롤 어선 20여 척이 침범, 불법 어로 중이라고 한국원양어업조합소속 '제5 지남호'에서 무전으로 보고해 왔다. 일본 어선단이 이같이 대거 침입하여 어로 중이라 우리나라 어선들은 어장에 진출도 못하고 있다 한다.'

지선을 가지고 와서 바지선 위에서 고래를 해체했다. 해체한 고래 고기는 운반선에 실은 뒤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이러한 고래잡이와 고래 해체 및 운반은 1980년대에 들어와 포경업이 금지되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사진 14 어청도 선착장에서의 고래 해체(1988년) (제공: 정병남)

어청도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우럭, 노래미, 광어, 조기, 홍어 등이 많이 잡혔다고 한다. 당시에는 이곳에서 파시<sup>47)</sup>가 열리기도 할 정도로 어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그때 어청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호에 1,000명 이상이였다. 그러나 어업호황은 중국과 일본 어선을 우리 영해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어선들은 중무장을 한 채 어청도 등 우리 영해 내에서 조업을 실시하였고<sup>48)</sup>, 일본 어선들은 50여 척 혹은 100여 척씩 대규모로 침범하여 우리 어선들이 출어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sup>49)</sup>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967년에 어청도 인근의 불법 조업을 경계하고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자 군부대를 창설하였다.

하지만 풍어의 영광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어구와 어법 등 어업기술 발전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어부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점을 체득하였고 그 정보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개인

만의 비밀이면서 재산이었다. 그러나 경험으로 체득한 어부들의 지식은 어군탐지기, 레이더 등의 발전으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옛날에는 다 고기 잡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레이더로 다 찍어서 찾아부러. 저 배가 오늘 고기 얼마를 잡아 왔다고 하면 레이더로 표시해서 싹 가서 잡아와부러. 예전에는 형제간에도 고기 많이 잡히는 데는 안알려줬제. 왜냐면 그게 밥그릇이니까. — 이일권(69세)



사진 15 어청도 항구에 정박 중인 해군 함정(위)과 해군(아래)



51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청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여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4명에 불과하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군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sup>51)</sup>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군산과 같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들은 조업이 완료된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군산 거주지로 이동하여 '육지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청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군산 시내에 집단으로 모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 도서와 육지에서의 생활은 다른 도서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2) 상왕등도

상왕등도<sup>52)</sup>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 속한 섬으로 격포에서 서쪽으로 32km, 위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외해 도서이다. 상왕등도까지는 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위도를 경유하여 약 2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다. 여객선은 일주일에 2회 운항하고 있다. 섬 면적은 0.57km<sup>2</sup>이고, 해안선 길이는 4km에 이른다. 상왕등도는 2km 가량의 바닷길을 끼고 하왕등도와 마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왕등도를 웃왕등 혹은 상도, 하왕등도를 아랫왕등 혹은 하도라고 부르고 있다. 상왕등도와 하왕등도를 합쳐 왕등도라 통칭하기도 한다.

52 상왕등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부안군, 『부안군지』 2권, 부안문화원, 2015와 이재연, 『한국의 섬-전라북도』, 지리와 역사, 2017, 176~182쪽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53 환경부, 『(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 : 왕등』, 환경부, 2011, 2쪽.



사진 16 상왕등도와 주변 도서 (출처 : 네이버)

상왕등도는 중생대 백악기 당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sup>53)</sup>되었으며, 높이는 해발 240m이고 섬 정상부까지 모두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어 선착장을 제외하면 평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취약은 선착장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



그림 5 상왕등도와 지도 (1:10000) (출처 : 네이버)



사진 17 상공에서 바라본 상왕등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사하고 있다. 상왕등도는 서해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그래서 해식애와 파식대, 해식동<sup>54)</sup> 등의 해안 침식 지형을 흔히 볼 수 있다.

상왕등도에 서식하고 있는 주요 식물종으로는 갯까치수염, 갯메꽃, 돌뽕나무, 동백나무, 모람, 보리밥나무, 사철나무, 천문동, 큰천남성 등이 있으며<sup>55)</sup> 해양생물로는 우럭, 광어, 꽃게, 멸치 등 서해에서 서식하는 주요 물고기와 홍합, 거북손 등 해양무척추동물 및 김, 미역, 우뚝가사리 등 해조류가 있다.

(1) 기록 속 상왕등도

『세종실록』에는 부안현의 위도(狷島)·구도(鳩島)·화이도(火伊島) 지역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어서 벌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56)</sup>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부안현의 해도(海島)로 위도만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57)</sup>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부안현의 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도만 기록되어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와 달리 구도(鳩島), 위도(狷島), 계화도(界火島)가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도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서해 가운데에 있으며 주위는 2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도는 현재의 부안군 위도를 가리킨다. 계화도는 현의 서쪽 30리에 있었으며 조수가 밀려나면 육지와 연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는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평야로 바뀌었다. 왕등도가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중종 18년(1523)에 이르러서이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윤희인(尹希仁)이 장계(狀啓)하기를, "6월 27일 서천포 만호(舒川浦萬戶) 권한(權嘆) 등이 왜선(倭船)과 직도(稷島)에서 만나 추격하면서 싸웠는데, 왜선이 부안(扶安)의 왕등도(王登島)를 향하여 가므로 권한 등이 추격하여 잡았습니다." 하니, 이를 병조에 계하(啓下)하였다.<sup>58)</sup>

- 54 해식애의 하부쪽에 해수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등굴을 말한다.
- 55 환경부, 앞의 책, 2011, 3쪽.
- 56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8월 27일 기사.
- 57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부안현.
- 58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1일 기사 발췌.

- 59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6일 기사 발췌.
- 60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7일 기사.
- 61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4일 기사.
- 62 변주승 옮김, 『여지도서 45 전라도 II』, 디자인흐름, 2009, 285쪽.

**나사향이 말하기를, "왜선의 빠르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왕등도(王登島)를 향하여 갈 적에 바다가 매우 광활하였는데, 마침 그날 순풍(順風)이 있었으므로 접전하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단코 따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sup>59)</sup>**

다른 서해안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왕등도는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위의 기록처럼 여러 차례 왜구들이 왕등도 주변을 침략해 왔다고 추정된다. 세종 4년(1422)에는 왕등도가 속해 있는 위도까지 왜적들이 들어와서 어부의 배를 빼앗아 갔으며<sup>60)</sup>, 세종 8년에는 위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던 어부들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다.<sup>61)</sup> 이후 기록인 『여지도서』와 동여도에는 왕등도가 “관아에서 서쪽으로 6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62)</sup>



그림 6 동여도 속 왕등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왕등(王登)이라는 명칭은 옛날에 왕이 이곳에 올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왕은 백제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백제왕 ‘부여풍’으로 추정되는데, 백제가 부안의 주류성에서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하자 부여풍은 군사를 이끌고 왕등도를 거쳐 고구려로 피신했다.<sup>63)</sup> 왕이 올랐다는 지명의 뜻은 조선 말 유학자 간재 전우(田愚)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전우는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疏)를 올렸다. 그러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우는 1908년 왕등도로 이주하여 약 1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였다.<sup>64)</sup> 이때 전우는 임금 왕(王)이 들어간 왕등도(王登島)의 명칭이 높다고 하여 성할 왕(旺)자와 고개 등(嶺)으로 바뀌서 왕등도(旺嶺島)로 불렸다고 한다. 마을 뒤편에도 전우와 관련한 용문암<sup>65)</sup>이라는 바위가 있다. 용문암에는 한문이 새겨져 있는데 전우와 전우를 스승으로 모셨던 당시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많이 닳아 글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 63 이재연, 앞의 책, 2017, 179쪽.
- 64 전우(1841년~1922년)는 봉건제도의 이완과 외세의 침입에 의해 조성된 복잡한 사회적 모순의 속에서 유학자 나름의 일관된 사상과 행동을 견지한 전형적인 성리학자이다. 당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과 관련하여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식민지적 편입의 위기가 전면에 나선 시기이다. 또한 봉건제적 모순의 격화와 관련하여 개혁을 통해 민족사의 변형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던 시기였다. 이에 전우는 주자학적 가치관의 입장에서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해수의(浮海守義)’라는 독특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왕등도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아래의 표는 전우가 은둔생활을 하였던 시기와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成大慶, 『保守儒生の‘自講論’과 外勢對應樣式-長齋 田愚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28쪽, 42쪽).

시기	장소	
1908. 9. ~ 1909. 4.	왕등도	
1909. 4. ~ 1910. 8.	군산도 구미촌	
1910. 8. ~ 1912. 3.	왕등도	
1912. 3. ~ 1912. 9.	군산도 구미촌	
1912. 9. ~ 1922. 7.	계화도	장자동
		양리

간재 전우의 은둔생활과 시기

- 65 이곳에서 용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 18 간재 전우 초상화(제공 : 이준규)와 간재 전우 유허비



사진 19 용문암(위)과 용문굴(아래)

## (2) 기억 속 상왕등도

2017년 10월 현재 상왕등도에는 31세대, 4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어업 성수기에만 섬에 거주하고 이외의 기간에는 육지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왕등도에도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한 사람이 하왕등도로 거주지를 옮긴 후, 지인들이 동일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세대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한 주거지에 6~7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곳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인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하왕등도 주변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어업권 유지를 위해 한 달에 며칠씩만 섬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왕등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는 약 350명의 사람들이 주로 어업에



사진 20 상왕등도 전경

66 부안군, 앞의 책, 2015, 928쪽.

종사하면서 왕등도에 거주하였다. 인구가 많았을 때는 어린이들도 80여 명이 있어서 1994년까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도 했다.

상왕등도는 부둣가 근처를 제외하고는 평지가 거의 없어 논농사를 짓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 마을 사람들은 보리, 감자, 고구마 재배 등 대부분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채취해서 판매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주 생계수단은 어업 활동이었으며, 서해의 다른 섬이나 어촌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조기잡이를 주로 하였다. 합성섬유를 이용한 그물이 나오기 이전에는 면화로 조기 낚시줄을 만들었는데, 면화를 세 겹으로 꼬아 두텁게 한 뒤 돼지나 소의 피를 발라 질기고 뽀뽀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솥에 넣어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여 조기잡이 어구로 사용하였다. 조기잡이 배에는 많게는 5~7명이 타기도 했으나 소규모 배에는 2~3명이 탔다. 많은 선원들이 조기잡이를 하러 갈 때에는 물고기를 잡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주방장, 기관장 등도 탑승하였다.

왕등도는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칠산 어장권에 속해 있으며 하왕등도 동쪽의 안둠병, 하왕등도와 상왕등도 사이의 도섬, 상왕등도 북쪽의 뒷둠병이라는 조기 어장이 위치해 있었다.<sup>66)</sup>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 경상도를 비롯한 전국의 배들이 조기 어장이 위치해 있는 왕등도 주변으로 모여들어 “물 반 고기 반”인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했다. 이렇게 잡은 조기는 마을로 가지고 와서 부둣가 인근에 위치한 시멘트로 만든 사각 형태의 구덩이에 넣어 염장을 한 뒤, 육지로 가지고 가서 판매 하였다.

조기를 염장하면 죽은 송장마냥 뽀뽀해져. 그래야 조기가 상품 가치가 있거든. 구덩이에서 염장해서 팔러 가고 그랬지.

— 서홍식(62세)

다른 영해기점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상왕등도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뱃길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풍선(風船)을 이용했던 때에

67 1970년대에는 김 한 톨(100장)을 마련하면 쌀 한 되(1.6kg) 정도와 교환할 수 있었다(상왕등도 사례).



사진 21 상왕등도 인근의 안강망 어선(위)과 어구(아래)

는 비교적 약한 바람에도 출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에는 “쌀이며 소금이며 먹을 것을 한꺼번에 싣고” 섬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식구미’라고 하였는데 식구미는 화페로 구입하기도 하였지만 섬에서 생산한 수산물, 농작물 혹은 약초와의 물물교환<sup>67)</sup>을 통해서도 마련하였다. 외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의 특성상 바람을 막아줄 어떠한 시설도 없어서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하였다. 가옥이 개량되기 이전에 마을 사람들은 돌을 짚에 매단 뒤 초가지붕 위에 열십(十)자로 묶어 두어 바람으로 인한 파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바람이 일시적으로 바뀌어 배가 닻줄에 걸려 부

서지기도 하였고, 배 두 척이 부딪혀 마을 사람들이 선원들을 구출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에도 5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배들이 바람을 피해 육지로 피항을 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를 지내기도 했다. 마을 제사는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부터는 제를 지내지 않아서 당이 허물어졌다. 제수용품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직접 육지에 가서 구입하였는데, 동력선이 없을 때에는 노를 저어 육지를 다녀오기도 했다. 뱃고사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달 그믐날 지내는 제사였다. 현재까지도 배에 오색기를 걸고 떡과 술을 차린 뒤 고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고, 몇몇 어민들만이 고기잡이를 떠날 때마다 술 한 병을 바다에 뿌리면서 배의 무사귀환과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그림 7 왕등도 어장도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개방海 어장정보)  
 ①②③④⑤ 어장은 정치망 어업 어장, ⑥⑦⑧⑨⑩⑪ 어장은 전복 양식어장,  
 ⑬⑭⑮ 어장은 해조류와 패류 마을어장, ⑫⑬⑭ 어장은 피조개 양식어장, ⑯ 어장은 해삼 양식어장, ⑰ 어장은 홍합 마을어장이다.

왕등도 주변에서 어획되는 어종은 다른 서해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럭, 광어, 농어, 민어, 꽃게, 멸치 등이다. 안강망 어선을 이용하여 멸치와 꽃게를 잡으며 통발로는 노래미, 아나고, 우럭 등을 어획한다. 그리고 주낙으로 농어, 광어, 도미, 우럭, 민어 등을 잡는다. 또한 섬 주변에서 해삼, 전복 등을 채취한다. 채취업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종자를 뿌린 뒤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체에게 5년 동안 임대한다. 그러면 임대 받은 사업체는 제주도에서 해녀들을 고용한 뒤 특정시기에 일주일씩 마을에 상주하면서 채취한다. 상왕등도도 다른 영해기점 도서와 마찬가지로 따로 양식장<sup>68)</sup>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기도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일정한 날을 택하여 작업을 하였다. 미역채취 작업을 ‘개 튼다’라고 하며 대략 소만(5월 21일경)에서부터 망종(6월 6일경) 사이에 썰물 때 미역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미역은 현재의 부둣가 인근에서 말렸다.<sup>69)</sup> 최근에는 공동으로 미역 채취를 하지 않고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지금은 먹을라고 미역 채취하지. 그거 팔라고 채취 하는 사람 없어. (미역이) 무겁기만 하고, 말리면 몇푼 되도 안한께 옛날같이 안해. 옛날에는 목구멍 풀칠할라고 죽어라 해다가 육지에 갖다 줬지. 미역 한주먹에 쌀 한되씩씩 받고 그랬제. — 서홍식(62세)

어족자원이 풍부했을 때에는 많은 배들이 상왕등도 주변에서까지 어업활동을 하였다. 특히 공해상 인근의 침선들이 일종의 어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개체 수가 많았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공해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하여 쌍끌이 조업을 하였고, 우리 어선들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상왕등도 인근에 어업 지도선이나 해경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sup>70)</sup>을 알고 이곳으로

68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서해나 남해 근해에서 볼 수 있는 부위식이나 연승식의 양식장 형태가 아니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들은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심이 깊고 풍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위식이나 연승식의 양식어업이 불가능하다. 상왕등도 인근의 양식장도 특정한 장비나 장치가 설치된 양식장이 아니라 구획된 일정한 공간을 양식장이라 일컫고 있다.

69 부안군, 앞의 책, 2015, 919쪽.

70 상왕등도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획활동을 하게 되면 해경이나 어업 지도선이 군산항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법 조업활동 지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중국 어선들은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사진 22 상왕등도 미역 건조.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미역을 채취하기 때문에 건조의 양도 소규모이다.

어업활동을 자주 오기도 한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선원들은 출동한 해경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2014년에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던 해경을 폭행하여 10여 명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상왕등도항은 국가 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었다.



사진 23 상왕등도 항. 여객선이 정박하고 있는 모습

### 3) 횡도

횡도<sup>71)</sup>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에 위치한 유인도서로서 북동쪽으로 안마도, 남동쪽으로 오도가 위치해 있으며, 석만도 등과 함께 안마군도에 속한 섬이다. 영광군 법성포에서부터 약 36km 떨어져 있으며 유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횡도까지 가는 여객선은 없다. 대신 영광 계마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송이도, 석만도를 경유하여 안마도에 도착한 뒤, 배를 대여하여 횡도에 갈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횡도에는 1세대, 1명이 거주하고 있다.

71 횡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연안포털 무인도서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그림 8 횡도 지도(1:5000) (출처 : 네이버)



사진 24 상공에서 바라본 횡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 72 뽕잎피나무는 둘레가 12m, 높이가 40m 정도로 매우 오래된 나무이다(박기욱, 55세).
- 73 영광군, 『영광군지』 1권, 영광문화원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13, 144쪽.
- 74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기사.
- 75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영광군.
- 76 중종 18년에는 왜선들이 자주 나타나 조선 수군과 마찰을 빚게 되자 왜선을 놓치지 말고 포획하라 고 전라우도의 수사(水使), 병사(兵使), 감사(監司)에게 명령하였다(『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1일 기사).

횡도는 중생대 백악기의 유문암질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구릉성 산지 형태를 띠고 있다. 면적은 0.34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2.5km, 산 높이는 97m이다. 육지에는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텃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12m 이상의 곰솔군락이 우점하고 있다. 주요 식물로는 뽕잎피나무<sup>72)</sup>와 왕고로쇠나무, 동백나무 군락이 있다.<sup>73)</sup> 해양무척추동물로는 두드럭총알고둥, 참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조류로는 꼬시래기, 미역 등이 있다. 해안은 파랑의 영향을 받아 해식애와 기암괴석이 발달해 있다.

(1) 기록 속 횡도

횡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지만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마도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다. 안마도가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태종 17년 기록인데, “말 30여 필이 각기 새끼 말을 거느리고 섬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으며 말을 사육하기 편한지를 살펴보라”는 내용이다.<sup>74)</sup>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안마도에서 “암·수 말 33필을 방목한다”<sup>75)</sup>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는 안마도가 “영광 서쪽에 있으며 둘레가 25리”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안마도에 대한 인식은 명확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섬의 명칭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안마도를 안마도(安馬島)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여지도서』에는 안마도(鞍馬島)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명칭인 안마도(鞍馬島)는 섬이 말안장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시대에는 왜구들이 서해안을 빈번하게 침략하여 노략질을 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들은 서해의 여러 섬들을 돌면서 변란에 대비하기도 하였다.<sup>76)</sup> 실제로 중종 18년에는 왜구들이 현재의 영광 도서들을 지나 군산 인근 도서까지 침략하자 병마절도사 등

이 지금의 안마도, 위도 등을 돌면서 감시하기도 하였다. 명종 14년(1559)에 이르러서는 열흘 사이에 왜선이 세 차례나 침략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일한 시기에 왜선 17척이 안마도에 와서 정박하기도 하였다.<sup>77)</sup> 이처럼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 횡도 인근의 도서들은 잦은 왜구의 침략을 받았으며, 이때마다 조선왕조에서는 이들을 포획하는 계책을 마련하였다.

77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6월 8일 기사.



사진 25 횡도와 주변 도서 (출처: 네이버)

임진왜란 발발 이후 서해의 많은 섬들도 왜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사람들이 횡도에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 진주 소씨가 횡도에 처음 입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왜란 당시 안마도에서 진주 강씨가 왜구를 피해 바로 옆 섬인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78 이에 반해 안마도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을 1759년과 1780년쯤으로 보는 연구도 있는데, 이 연구는 현재 안마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 등을 통해 거주시기를 분석하고 있다(문병채, 『안마도의 문화관광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활성화 연구』, 『韓國島嶼研究』 14(2), 한국도서(섬)학회, 2002).

79 안마도 사람들은 횡도와 오도를 비키섬과 명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마도로 온 사람들에게 “비키섬”, “명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0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영광군.

있다.<sup>78)</sup> 즉 왜란 당시 횡도는 왜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은 안전한 지역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왜적들이 횡도를 비켜갔다고 하여 사람들은 ‘비키섬’이라고 불렀으며<sup>79)</sup> 이를 한자로 차용하여 횡도(橫島)라고 명명하였다.

이 지역은 본섬인 안마도와 영해기점인 횡도, 주변 도서인 오도, 죽도, 석만도를 포함하여 안마군도라 불리고 있다. 안마군도는 오래 전부터 조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영광군의 토산물로는 조기가 있는데, 영광군의 서쪽 파시평(波市坪)에서 난다<sup>80)</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봄, 여름 사이에 여러 곳의 어선들이 파시평에 모여 조기를 그물로 잡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2) 기억 속 횡도

조기를 비롯하여 여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많은 어선들이 안마군도에 출어하였다. 1964년 4월에는 안강망 어선 1,500척, 저인망 어선 200척, 유자망 어선 300척 등이 조기잡이를 위해 안

마도 근해로 모여들기도 했다.<sup>81)</sup> 그러나 1960년대 안마도에는 “배 3척 정도만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안마도와 횡도 사람들 가운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sup>82)</sup> 안마도에서는 밭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으나 횡도에서는 옥수수, 콩, 깨, 양파, 유채 등 밭농사를 비롯하여 산두라고 하는 발벼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였다. 현재에도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더 많다.<sup>83)</sup> 이는 안마도와 횡도 등 주변 도서는 영광의 법성포와 달리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마을 사람들이 어선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81 경향신문 1964년 4월 27일 신문 기사.

82 안마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마도와 횡도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배들이 많았다. 그래서 정박해 있는 “배 위를 걸어서” 방파제로 연결되어 있는 죽도까지 건너갈 수도 있었다고 한다.

83 영광군 낙월면 안마 출장소의 자료(2017년 현재)에 따르면 총 110가구 가운데 농가는 25가구이고 어가는 18가구 기타가 67가구이다. 안마도의 인구는 현재 총 191명이고, 이 가운데 47명이 어촌계원이다.

배보다는 농사를 많이 지었지. 지금 어선 조그만 거 하나 사려고 해도 억이예요, 억. 여기 서민들이 쉽게 살 수가 없지. 그 물도 비싸고. 요즘에는 보조금 지원도 나이제한이 있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선을 사는 것이 더 힘들어. — 이선규(55세)



사진 26 안마도에서 바라본 오도(왼쪽)와 횡도(오른쪽)



사진 27 안마도의 논. 언덕의 초지부분은 과거 밭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사진 28 황도 전경

또한 어선을 마련하여 어업활동을 하더라도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판로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과거부터 마을 사람들은 노동력에 비해 적은 수입을 얻는 어업 대신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1970년대 안마도에는 약 2,000여 명, 황도에는 40여 명 이상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섬의 구릉지까지도 모두 밭으로 개간하여 이용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취학 아동들도 많아서 안마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교가 있었으며, 황도와 오도에도 초등학교 분교가 위치해 있었다. 특히 황도 분교는 마을 사람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소유지를 기부하여 마련되었다고 한다.

황도에는 1989년까지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한 가구가 안마도로 이주하게 되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한 명만 거주하고 있다. 사람들이 황도를 떠난 이유는 선착장이 없어서 여객선이나 어선이 정박하기 어렵고,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황도에는 여객선이 정박하지 않는데, 과거에도 응급환자가 있으면 “깃발을 흔들어서” 여객선이 황도에 정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

고 마을에 하나뿐인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었으나, 이마저도 부족해서 배를 이용하여 안마도에서 물을 실어다 이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제보자는 자신의 5대 조부 때부터(200년 전) 황도에 정착하여 살았으며 아버지 세대에는 한 집에 24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다고 한다. 유일한 황도 거주자는 현재 황도 이장을 역임하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와 가족 구성원들은 대부분 안마도나 법성포,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황도에 선박이 접안되지 않아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설하기 마땅치 않기 때문이며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황도에는 제보자가 사육하고 있는 소 12두와 염소 50여 두가 방목되어 있다.<sup>84)</sup>

1985년 안마도가 3종 어항으로 지정된 후 방파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안마도와 황도 사람들은 부세 잡이 그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성포 등 육지에서 면을 구입하여 직접 그물을 만들거나,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그물 대용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실을 떠서 그물을 만들어 뒤포리(밴댕이)를 잡은 후 이를 미끼로 이용하여 부세를 어획하였다. 어획한 물고기는 상고선에 곧바로 매매하기도 하였으나, 상인들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말리거나, 선어 형태로 다음 날 여객선을 통해 육지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

과거에는 풍선을 이용하여 어업활동을 하거나 육지로 이동<sup>85)</sup>하였기 때문에 해상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 때에는 어선이 전복되어 조업하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안마도와 황도에서는 당제를 모시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큰 섬인 안마도에서는 정월 보름에 당할머니와 당할아버지에게 제를 지냈다. 현재에는 섬 가운데에 위치한 팽나무에서 마을 잔치 형태로 정월 보름에 제를 올리고 있다. 황도 또한 정월 보름에 당제를 지냈으며, 용왕제는 고기잡이를 시작하기 직전인 음력 3월, 당산제는 음력 7월에 지냈다.

84 황도의 토지 약 80%가 제보자 집안의 소유라고 한다.

85 풍선을 이용하여 황도에서 육지인 법성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가 소요되었다. “아침밥 먹고, 점심·저녁 싸서 갔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식량 싸서 가고 그랬지”(박기욱, 55세).

86 닻자망은 뽕침대를 붙여 사용하는 어구라고도 하며 어구량 1천 5백m(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에서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 선복량(총 톤수)에 따른 어구량 적용) 이내의 어구를 실어야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11호 가목 4).



사진 29 안마도 뽕나무

안마도에는 총 24척의 어선이 있으나 23척이 5톤 미만으로 소규모의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안마도와 횡도 인근에서만 주꾸미, 돌게, 꽃게, 민어 등을 잡는다. 주꾸미는 주낙으로 잡고, 게는 통발과 유자망을 통해 어획한다. 안마군도도 과거에 비해 어족자원이 줄어들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30~40여 분 조업으로 100~200kg의 꽃게를 어획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9월 꽃게잡이 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조업을 해도 100kg도 어획하지 못하고” 있다. 어획량 감소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닻자망 어선들이 규정된 그물의 양<sup>86)</sup>을 초과하는 그물을 설치하여 이 그물로 치어까지 모두 어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닻자망이 많지. 칠산 앞바다에 깔려있는 건 영광 닻자망이야. 봄철이면 목포나 신안에서 올라오는 배가 있기도 한데 몇 척 안 돼. 싹쓸이로 다 잡아버려서 고기가 없어. — 박기옥(55세)



사진 30 안마도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소규모 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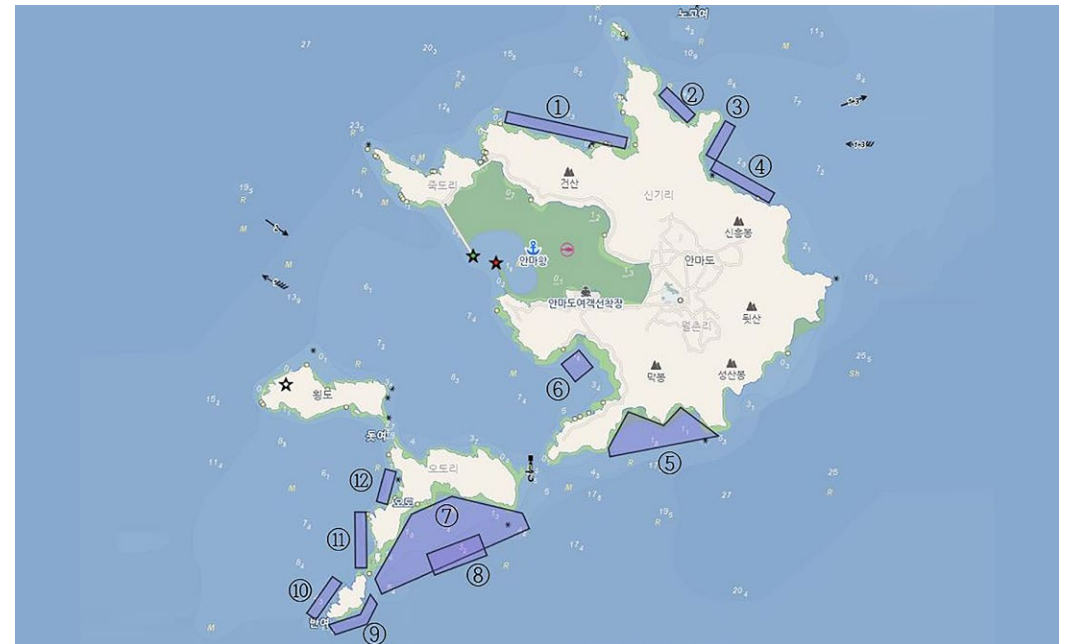


그림 9 안마군도 주변 어장도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 어장정보) ①~⑤⑦⑨⑩ 어장은 전복, 해삼 성게 등 패류 마을어장, ⑥⑪ 어장은 전복 양식어장, ⑫ 어장은 다시마 양식어장이다.

87 전북 채취권 임대차계약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이며 3년 단위로 계약한다.

여기에 더해 마을 사람들은 어획량 급감이 수온상승으로 인해 서식 어종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은 계마항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으로 인근의 수온이 상승했다고 여기고 있다.

섬 주변으로는 마을 어촌계 소유의 양식장이 있다. 어촌계원이 아닌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맨손어업으로 소라, 바지락, 톳, 미역 등을 채취한다. 전북 양식장은 마을 사람들이 새끼전복을 섬 주변에 뿌린 뒤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를 채취할 수 있는 사업체에게 채취권을 양도한다.<sup>87)</sup> 그러나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올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현재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마군도 주변에 “빨이 많아서 시야가 나오지 않고, 물살이 거세서” 전복을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마도와 횡도는 외해에 위치해 있는 탓에 풍량이 심해서 5월부터 12월 초순까지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서와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은 계마항과 법성포 인근에 육지 집을 마련하여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지에서 보낸다. 한편 어업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지네를 잡아서 판매하기도 한다. 안마도와 횡도에는 지네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두 섬에서 서식하는 지네의 종류는 다르다고 한다. 안마도의 지네는 검은 지네이지만, 횡도의 지네는 빨간 지네로 불지네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어업이 시작되기 전 약 한 달 동안 바위 밑을 뒤지면서 지네를 잡아 판매하는데 한 마리당 3,000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다.

#### 4) 횡도

횡도<sup>88)</sup>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해 있는 섬으로 목포에서 115km, 흑산도에서 22km 떨어진 유인도이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비금도초도, 흑산도를 경유한 뒤 횡도에 도착할 수 있으며, 대략 2시간 30여 분 소요된다. 섬의 면적은 6.87km<sup>2</sup>, 해안선 길이 20.8km이다. 횡도는 붉은 동백꽃이 섬을 뒤덮고 있어서 노을에 비친 섬이 붉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하여 홍의도(紅衣島)라고 불리다가, 사암과 규암으로 이루어진 섬의 바위가 홍갈색을 띠고 있어서 횡도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88 횡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한국의 섬-전남 신안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31846&categoryId=51391>)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엔씨와 (사)한국해양구조단에서 연구한 “무인도서 실태조사 연구”의 최종 보고회 자료(2006)를 발췌 요약하였다.



사진 31 횡도와 주변 도서 (출처: 네이버)

횡도의 행정마을로는 1구와 2구가 있으나, 자연마을로는 대촌과 대밭 밑, 석기미 등 3개의 마을이 있다. 대촌은 1480년경 횡도에 최초로 입도한 김해 김씨가 정착한 마을이며, 대밭 밑은 1500년에 김덕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대나무 밭 아래에

89 신안군, 『新安郡誌』, 신안군, 2000, 965쪽.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기미는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홍도에 가장 먼저 입도한 사람이 살던 곳의 끝 부분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sup>89)</sup> 2017년 10월 현재 홍도에는 268세대, 589명이 거주하고 있다.



사진 32 깃대봉 쪽에서 바라본 홍도 1구 전경



사진 33 해안에서 바라본 홍도 2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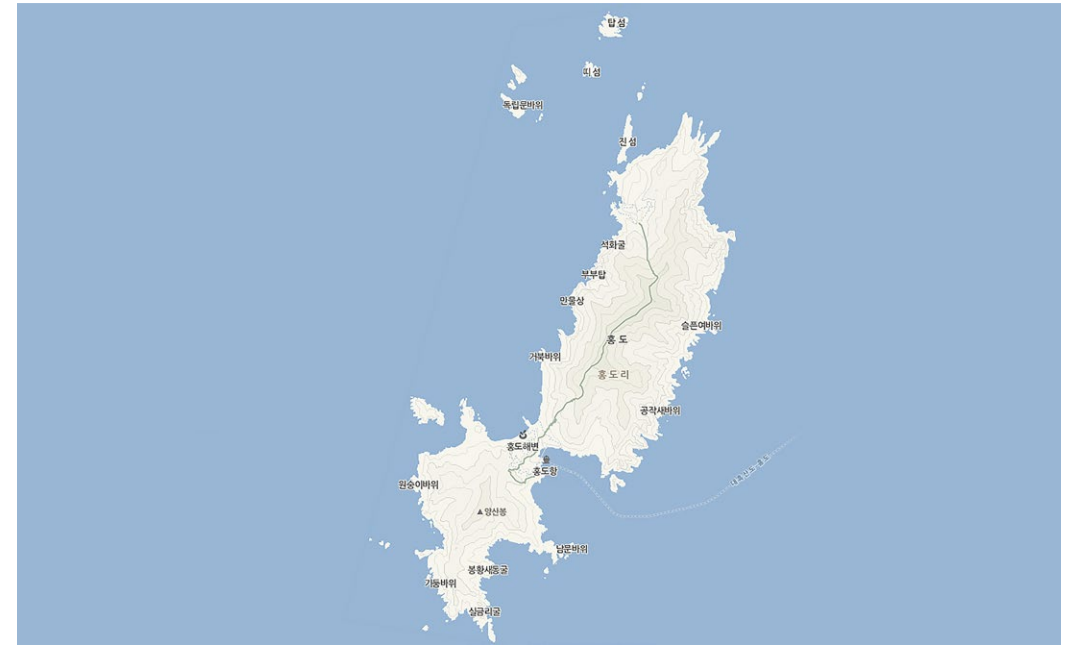


그림 10 홍도 지도 (1:40000) (출처 : 네이버)



사진 34 상공에서 바라본 홍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90 남색남방공작나비는 제주도와 홍도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흑비둘기, 염주비둘기, 흑로, 가마우지, 쇠가마우지, 팽이갈매기, 원앙 등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해조류 24종, 무척추동물류 117종, 어류 23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화재청 문화재검색).

홍도와 주변 해양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1965년 홍도 본섬과 고서를 비롯한 20여 개의 부속 도서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었다. 지정사유는 사암과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바위 조각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을 유지하고 있고, 희귀종의 조류와 곤충류, 해양 생물류 등이 서식<sup>90)</sup>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식생식물로는 들피와 밀사초, 선인장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참나무과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풍란을 비롯하여 다양한 난과 홍도원추리, 홍도까치수염, 백량금, 섬모시풀, 흰동백, 식나무, 누운향나무, 덩굴사철 등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다. 연근해에는 조무래기따개비, 거북손, 진주배말, 검은큰따개비 등 해양무척추동물과 자리돔, 어렁놀래기, 볼락, 쥐치, 철갑둥어, 청줄돔 등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주요 해조류로는 검둥감태, 작은구슬산호말, 개도박, 참곱슬이 등이 있다.



사진 35 깃대봉 인근 서식 식물(왼쪽) 및 원추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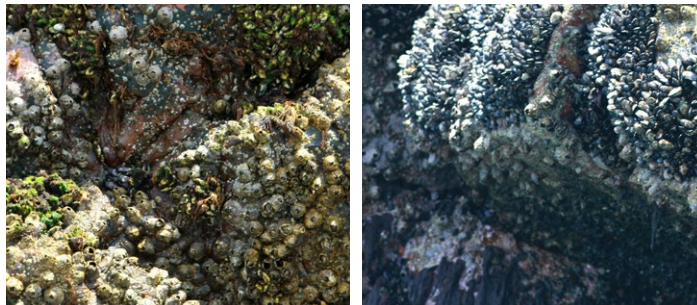


사진 36 홍도 바위 위 서식 생물



사진 37 천연 보호 구역 표지석



사진 38 홍도 서남쪽 전경

- 91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847년 9월 4일 기사.
- 92 서궁,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고려도경』,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5, 258쪽.
- 93 서궁,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옮김, 앞의 책, 2005, 258-259쪽.

(1) 기록 속 홍도

홍도와 인근 도서가 역사 기록에 등장한 것은 중국,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847년 9월 4일) 고이도(高移島)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무주의 서남지역에 속한다. 섬의 서북쪽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흑산(黑山)이 있다. 산의 모양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듣기로는 백제의 셋째 왕자가 도망해 들어와 피난한 땅인데, 지금은 300~400가구가 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sup>91)</sup>**

**이날 오시 후에(1123년 6월 3일 오전 11시 이후) 동북쪽으로 한 산이 보였다. 무척 큰 것이 성같이 잇닿아 늘어서 있는데, 햇별이 쬐는 곳은 옥과 같이 희다. 미시 후(오후 1시 이후)에 바람이 일어 배의 항행이 매우 빨라졌다.<sup>92)</sup>**

첫 번째 기록은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이다. 여기에서는 홍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고 대신 흑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흑산은 현재의 흑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흑산도 일대는 홍도 등 여러 섬들이 군도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기록은 서궁(徐兢, 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인데 줄여서 『고려도경』이라고도 한다. 『고려도경』에 기록된 ‘동북쪽의 한 산’이 홍도를 가리키는데 서궁 일행은 홍도에 정박하지 않아서 당시 이곳에 사람이 사는지의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서궁은 홍도에서 남동쪽으로 바라본 흑산에 대해서 “사신의 배가 묵는 곳이 있으며 마을이 있고, 나라 안의 대죄인으로 죽음을 면한 자들이 유배를 오는 곳”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중국 사신 배가 흑산 부근에 이르면 봉화를 밝혀 그 봉화가 왕성(개경)에까지 이른다고 기록<sup>93)</sup>하였다. 이 두 기록이 현재 흑산면에 속한 섬에 대한 가장 오

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홍도 명칭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쳤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전라도 나주목에는 흑산도만 기록되어 있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홍도가 추가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도를 홍의도(紅衣島)로 기록하고 있는데, “나주 서쪽에 위치하고 물길로 1,300여리 떨어진 곳”<sup>94)</sup>이라 적고 있다. 이증환의 『택리지』에도 “나주에서 하루를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를 가면 홍의도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sup>95)</sup> 『여지도서』에는 “홍의도의 둘레는 10리이고,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총 18호인데 이 중 남자가 27명 여자가 29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94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IV』 제35권, (주)민문고, 1989, 516쪽.
- 95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91~92쪽.
- 9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8월 19일 기사 : ...홍어도는 모두 나주의 소관인데, 홍어도는 더욱 아득히 멀리 있어 남경(南京)과의 거리가 자못 가깝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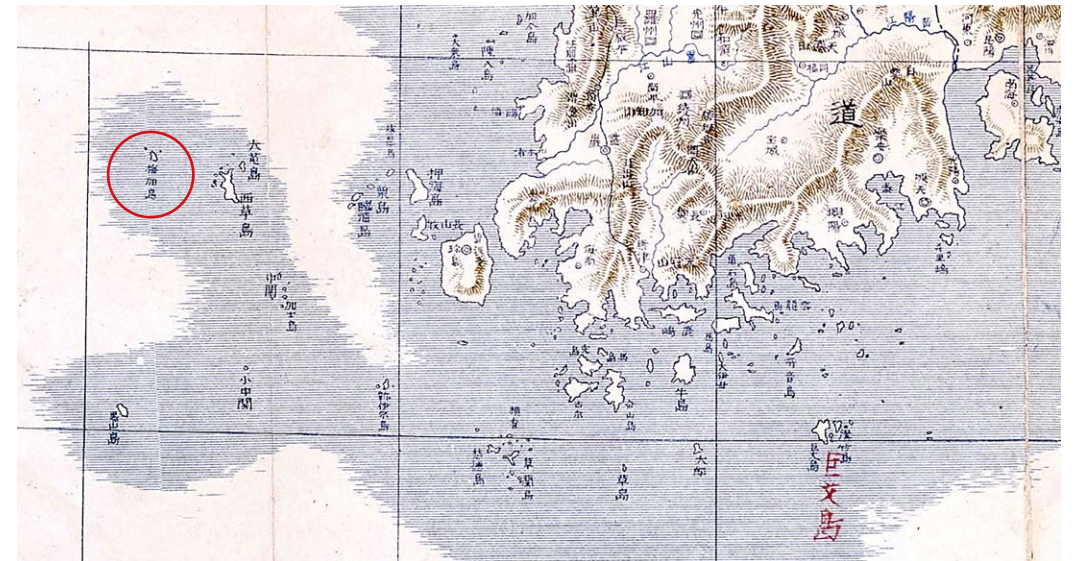


그림 11 朝鮮全圖 일부(1894, 동경지학협회)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홍도를 매가도(梅加島)로 표기하였다.

숙종 33년(1707)에는 홍의도를 홍어도(紅魚島)로도 불렀다.<sup>96)</sup> 하지만 홍어도라는 명칭을 단기간에만 쓰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시대 대부분 홍도는 홍의도로 명명되었다.<sup>97)</sup> 이후 일본에 의해 고려지기 시작한 한반도 지도에는 홍의도가 매가도(梅加島)로 표시

97 『국역 비변사등록』 41책, 속종 13년 6월 1일 기사 : 전주에 표류한 중국인의 사실을 문초한 별단을 올리는 비변사의 계 ; 『국역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 10월 7일 기사 : 인견에 김치인이 입시하여 대홍산성 군항을 교동에 대하여는 문제, 대홍산도 등의 폐단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국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2월 10일 기사 : 우의정 윤시동이 입시하여 남공철을 부제조에 임명하는 문제와 소안도 등의 표인을 환송한다는 자문을 지어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국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3월 4일 기사 : 무장현에 표류한 외국배가 귀환중 풍랑으로 정박하고 있다는 전라감사 서정수의 장계에 대해 순풍 때에 보내지 못한 진장을 처벌하라는 전교 ; 『국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3월 9일 기사 : 다시 표류해온 외국배의 문정을 보고한 전라우수사 김처한의 장계에 대해 표류인이 다시 정박한 것일 뿐이니 순풍 때에 보내라는 전교 ; 『국역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4년 12월 23일 기사 : 나주목 하의도에 표류한 중국인이 육로로 본국에 귀환할 때 조정에서 편의를 도모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되어 있다. 매가도라는 명칭은 일본인들이 홍의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매화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으로 매화도(梅花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도 홍도는 매가도 또는 매화도와 병행해서 불렸다.

**23일 오후 4시에 출발한 일본 함정의 12시 함위는 홍도(매화도)의 서북서 52해상으로 풍파는 약간 높으나... — 동아일보 기사 (1940. 6. 25.)**

**흑산체도(體島)를 일순(一巡)하고 기자는 다시 머얼리 바라보이는 홍도를 찾아갔다. 홍도는 매가도라고도 하는 섬으로 다도해 중에서 그 풍광이 아름다움으로 제일일 뿐 아니라 이 섬 밖으로는 다시 한 점의 섬을 찾을 길이 없는 그야말로 대해 중의 고도(孤島)로 목포에서 약 80마일 거리에 있다. — 경향신문 기사(1947. 6. 12.)**

(2) 기억 속 홍도

전라도 서남해안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 대륙으로 건너갈 때 배들은 홍도에 정박해서 바람을 기다린 뒤 출항하였다. 즉 홍도는 서남해안의 주요 기항지로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홍도를 대풍도(待風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홍도가 우리나라 마지막 기항지여. 그래서 홍도에는 대피리(待避里)가 있제. 가거도는 대풍리(大風里)고, 홍도는 대풍리(待風里)여. 피할 피(避)를 써서 대피리라고 했는데 큰 바람을 기다린다는 대풍리로 변형됐어. — 이동석(80세)**

과거 홍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에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광객들이 홍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산업은 어업에서 서비스업 및 관광업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홍도 1구 마을 풍경은 여느 섬마을이나 어촌마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을 앞쪽으로는 여객선 선착장이 있으며, 숙박업소와 식당 등이 성벽과 같이 자리하여 대부분의 마을 경관을 꾸미고 있고, 사람들의 거주지는 이 건물들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홍도의 경관 변화는 1980년대 주택 개량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초가집과 같은 기존 가옥을 관광객의 숙박 장소로 이용하였으나 1980년대 주택 개량 사업이 시작되면서 여관이나 펜션과 같은 건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주택 개량 사업은 마을 사람들의 생업 활동에도 변화를 끼쳤다. 1980년대 이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보리를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홍도가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면서 보리농사는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다.

1960년대 당시 홍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주일에 1회 입항하였다. 그래서 당시 홍도 여행은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여정이었으며 여행객이 해수욕장에서 야영을 하면서 등산을 하고, 배(뗏목)를 빌려서 홍도 주변의 기암괴석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이것이 점차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홍도를 방문하게 되자 홍도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현재에는 매일 목포와 홍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운항 중이다. 홍도에 온 관광객 대부분은 여객선 선착장에서 유람선 탑승권을 구매하여 홍도 주변의 기암괴석을 구경하는 한편, 선착장 인근의 해녀촌에서 해산물을 먹기도 한다.

현재 홍도는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다른 어촌마을과 마찬가지로 어업이 가장 중요하였다. 홍도 주변에서는 주로 홍어와 조기를 주낙과 유자망을 통해서 잡았다. 홍어는 오징어나 가자미, 새우 등을 미끼로 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잡았고, 조기는 유자망을 통해서 어획했는데 썰물 때 유자망을 설치하면 밀물 때, 밀물 때 유자망을 설치하면 썰물 때 유자망을 걷었다. 1960~1970년대까지 조기가 많이 잡힐 때 목포 인근에서 조기잡이 배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홍도였다고 한다. 홍도는 조기뿐만



사진 39 홍도 선착장에서 바라본 홍도 1구



사진 40 홍도 주변 기암괴석



사진 41 홍도 관광 여객선. 홍도와 주변 도서들의 기암괴석을 보기 위해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다.



사진 42 홍도 선착장 모습  
위쪽의 흰 천막은 홍도 여객터미널 남쪽에 자리잡은 해녀촌이고 그 뒤쪽으로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여객터미널 왼쪽편에는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아니라 김, 미역, 다시마, 툇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 소라 등 어패류도 풍부한 곳이다. 최근에는 바다 환경 악화와 방파제 공사 등으로 인해 해조류와 어패류의 양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전복은 현재까지도 홍도의 유명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홍도 전복은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했을 때 맛이 더 좋다고 한다. 또한 홍도 전복은 다른 지역의 전복보다 더 크지만 껍질이 얇아서 전복 껍질을 이용한 공예품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5~6개 든 대복(큰 전복)은 여기 현지에서 16만원 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전복이 홍도 전복이여. 완도는 양식전복이라서 여기꺼랑은 다르지. — 이동석(8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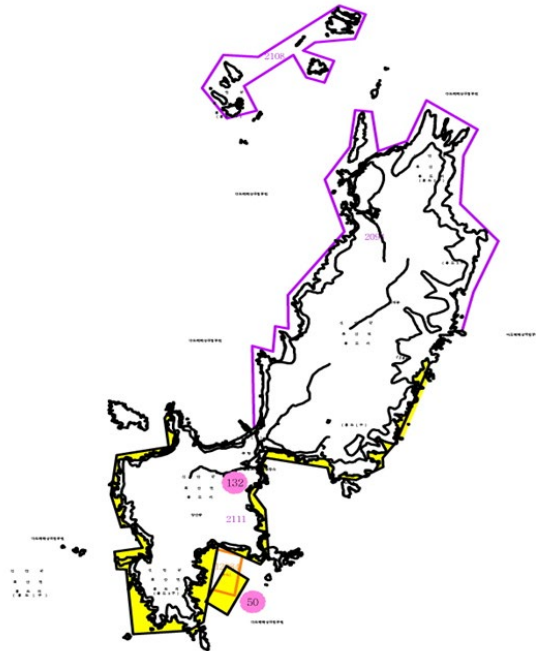


그림 12 홍도 어장도(제공 : 신안군청)  
홍도와 주변 도서 주위의 어장은 모두 마을어장으로 미역, 가리비, 툇, 천초, 전복, 해삼, 성게, 소라 등을 맨손과 나잠 어업을 통해 어획하고 있다

전복을 비롯한 어패류 및 해조류는 해녀들의 나잠 어업을 통해 채취되는 해산물로, 현재에도 홍도에는 14명의 해녀들이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선착장 앞 부둣가에 포장마차 형태의 노점을 설치하여 채취한 전복, 소라, 해삼 등을 판매하는 식당(일명 해녀촌)을 운영하고 있다. 홍도 바다에서 해조류와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녀들은 모두 홍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 해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했을 때에는 해녀 수가 부족해서 제주도 해녀들을 고용하여 나잠 어업을 하였다.



사진 43 홍도 독립문 바위 아래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1980년대) (제공 : 신안군청)

선착장 주변으로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이 있다. 노점상에서는 홍도 인근 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 미역, 툇나물 등을 건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자는 홍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며 이들 가운데에는 고령으로 인해 나잠 어업을 하지 못하는 해녀들도 있다.

미역 채취는 다른 어촌마을과 유사하게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채취하였다. 배 한척에 마을 사람 여러 명이 함께 승선하여 미역 채취를 하였고 채취한 미역은 공동으로 분배하였다. 다만 배를 가지고 간 선장에게는 배를 운용하는 데 든 비용을 더하여 분배하였다. 현재에는 개별적으로 미역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44 홍도 해녀촌(위)과 건어를 판매장(아래)



사진 45 홍도 해녀들이 채취한 홍합(위)과 미역 건조(아래)  
채취한 미역은 과거 풍습 그대로 선착장 인근의 너른 양지에서 말리고 있다.

홍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수탈을 경험하기도 했다. 조선시대부터 서해안 일대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은 홍도도 침략했다. 왜구들이 홍도에 침입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여성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 관망대에 올라가 왜구 배를 상대로 투석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진출하였는데 홍도 역시 이주의 대상이었다. 일본인들의 홍도 이주로 인해 홍도의 자연마을 지명은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대밭 밑이라는 마을은 죽전(竹田) 마을이 되었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죽항리(竹項里)로 변경하여 부르고 있다. 홍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깃대봉 뜻도 변하였다. 홍도 깃대봉은 터 기(基)와 터 대(岱)를 사용하여 깃대봉으로 불렸으며 여기에서부터 홍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홍도 진출로 인해 깃대봉에는 일장기가 걸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 기(旗)를 사용한 깃대봉으로 뜻이 바뀌었다.



사진 46 홍도 깃대봉 정상 표지석



사진 47 홍도 일출봉에서 바라본 홍도항과 깃대봉



사진 48 홍도 정숙가마터. 가마터 뒤로 보이는 나무들은 모두 참나무계열 나무이다.

일본인들은 홍도에서 숯을 구워 판매하는 사업도 하였다. 이들은 장성과 남원 등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숯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홍도에서 언제부터 숯을 구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마을 사람들은 삼국시대 때 당나라와의 교역에서 홍도의 숯이 선박의 주요 생필품 혹은 교역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나라와 교역할 당시에는 홍도에서 숯을 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겨울이면 숯을 써야 하잖아. 한 달도 가고 그래야 되게. 그니까 이 사람들이 홍도에 들러서 숯을 갖고 간 것이제. — 이동석(80세)

홍도의 숯 굽는 작업은 1934년 이후부터 중단되었다. 현재 숯가마 터로 추정되는 곳은 총 23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깃대봉 정상

인근에 '정숙가마 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숯가마는 돌을 쌓아 만들어져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중으로 돌담이 설치되어 있다. 숯은 가마터 인근에서 식생 하는 참나무로 만들었다. 일본인들에 의한 홍도의 수탈·개발은 1931년 등대 설치<sup>98</sup>)로도 이어졌다. 부산과 인천을 오고가는 초대형 선박은 연안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외해항로인 독거군도-맹골군도-소중관군도-흑산 제도를 경유하여 홍도 서해로 통항하기 때문에 홍도 북부에 등대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명목은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으로 자국의 함대가 중국으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었다.

또한 일본인들에 의한 홍도 개발은 홍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흑산면에서 유일하게 홍도에만 동력선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목포로 이동하였다. 현재와 같이 홍도-목포를 연결하는 바닷길은 목포가 개발된 이후 주로 이용하는 항로였다. 이전시기까지는 홍도-영암을

98 홍도 등대의 광달거리는 23마일이며 음달거리는 3마일이다. 취명시간은 5초이며, 정명시간은 45초이다. 현재 세 명의 등대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 49 홍도 등대 (제공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99 율형숙, 김건수, 박종오, 김경희, 조희숙, 『홍어』, 민속원, 2009. 홍어의 주 산지라고 여겨지는 흑산도 인근에서는 삭힌 홍어보다는 싱싱한 홍어를 회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 냉동시설의 부재로 인해 바다를 건너 육지까지 이동할 때 홍어가 삭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산포에 다르면 아주 많이 삭힌 홍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산포는 삭힌 홍어의 본고장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삭힌 홍어가 전라도를 상징하는 토속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연결하는 바닷길이 주로 이용되었다. 홍도-영암 바닷길은 『택리지』에 기록된 바닷길로, 영암 구림마을 상대포에서 출항하여 다도해를 통해 흑산도를 거쳐 홍도에서 마지막 고축(告祝)을 한 뒤 중국으로 이동하는 항로였다. 일제에 의해 홍도와 목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홍도에서 육지를 가기 위해서는 위의 항로를 이용하여 영산강을 따라 구림마을-나주로 이동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홍도에서 출항하여 비금도-자은도-임자도-지도를 거쳐 무안반도로 이동하였다. 두 바닷길 모두 당시 대도시였던 나주에 접근하는 항로였다. 홍도 인근에서 어획한 각종 어물, 특히 홍어는 바닷길과 영산강 뱃길을 통해 육지로 전달되었다. 이때 홍어를 싣고 출항한 풍선배가 목포 인근에 도착할 때에는 홍어가 약간 삭혀지게 되고 영산포를 거쳐 나주에 도착할 때에는 전라도 토속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는 톡 쏘는 삭힌 홍어, 특유의 냄새가 나는 홍어로 변화하였다.<sup>99)</sup>



사진 50 홍도와 목포 인근 도서



사진 51 홍도 일출봉에서 바라본 바다. 멀리 보이는 곳이 흑산도이다.

홍도는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업에서도 중요 항로 표시 기능을 담당하였다. GPS와 같은 항법장치가 없을 때 어선들은 홍도를 기점으로 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즉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는 홍도를 기점으로 하여 어장터로 이동하였고, 돌아갈 때에는 홍도를 거쳐서 육안으로 흑산도를 파악한 뒤 이동하였다.

어로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바다에서의 어업은 어획량의 불확실성과 안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섬마을과 어촌마을에서는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의를 올렸다. 홍도에서도 1970년대까지 풍어제와 갯제를 지냈으나 1976년 태풍으로 당집이 무너지게 되면서 제는 더 이상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당제를 지낼 때에는 선달 28일 혹은 29일에 날씨 상황을 판단하여 당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당을 정리하고 제를 올릴 준비를 한 뒤 정

월 초사흘 자시(子時)에 산신과 당할아버지에게 제를 올린 후 하산하였다. 제사상에는 홍어와 조기 등이 제물로 올려졌다. 이후 풍어를 기원하는 갯제를 모시는데 홍어굴이라는 곳에 홍어 한 마리를 넣어 제수용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홍도의 수호신인 거북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용왕허수아비를 띄워 재액을 물리치는 의례를 행하였다. 마을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전년도 정월에 선정되며 7월부터는 몸가짐을 정갈하게 한 뒤 다음 정월 초사흘에 당제와 갯제를 주관하였다.



사진 52 복원된 홍도 죽항 당산  
2003년 당터를 복원하고 2007년 신당과 제당을 복원하였다.

### 5. 소흑산도(가거도)

소흑산도(가거도)<sup>100)</sup>는 우리나라 갯바위 5대 지역 중 하나이자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하는 유인도서이다.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45km 떨어진 거리에 있어서 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비금도초, 흑산도, 상태도, 하태도 등을 경유한 뒤, 약 4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다. 면적은 9.18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22km에 이른다. 주변으로는 흑섬, 남당말, 큰간여, 가망섬, 답덕여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다.

100 가거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신안군, 『가거도 자연문화유산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신안군, 2013.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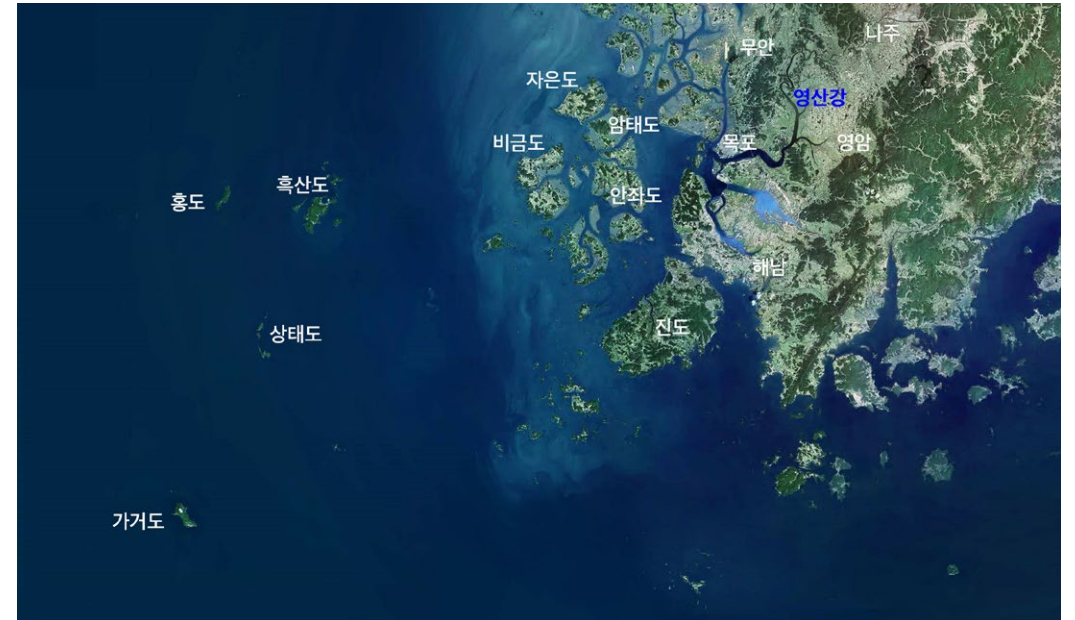


사진 53 소흑산도(가거도)와 주변 도서 (출처: 네이버)

가거도는 신안군에서 가장 높은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 뻗어있으며 섬 전체가 급절벽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해식에, 파식대, 해식동, 시스택 등이 발달해 있다. 수심 또한 90~100m로 매우 깊고 바닷물의 투명도가 높아서 외해성 도서의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 쓰시마 난류와 서해 냉수층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농어목과 횡대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조류에게 있어서 집단 번식지 혹은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가거도 또한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 매를 비롯하여 흑비둘기, 두견, 백로, 칼새, 검은이마직박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도마뱀,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및 각종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다.

가거도는 대리마을, 향리마을, 대풍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대리마을은 제주고씨와 평택임씨가 입도한 이후 형성된 마을로 여객선이 정박하는 등 가거도의 행정 및 경제권 중심지이다. 향리마을은 평택임씨가 입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나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배가 닿는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대풍리 마을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착한 마을이라고 전해지고 있



사진 54 가거도 1구 대리 마을. 마을 앞 방파제가 여객선 선착장이다.



사진 55 가거도 2구 향리 마을(위), 3구 대풍리 마을(아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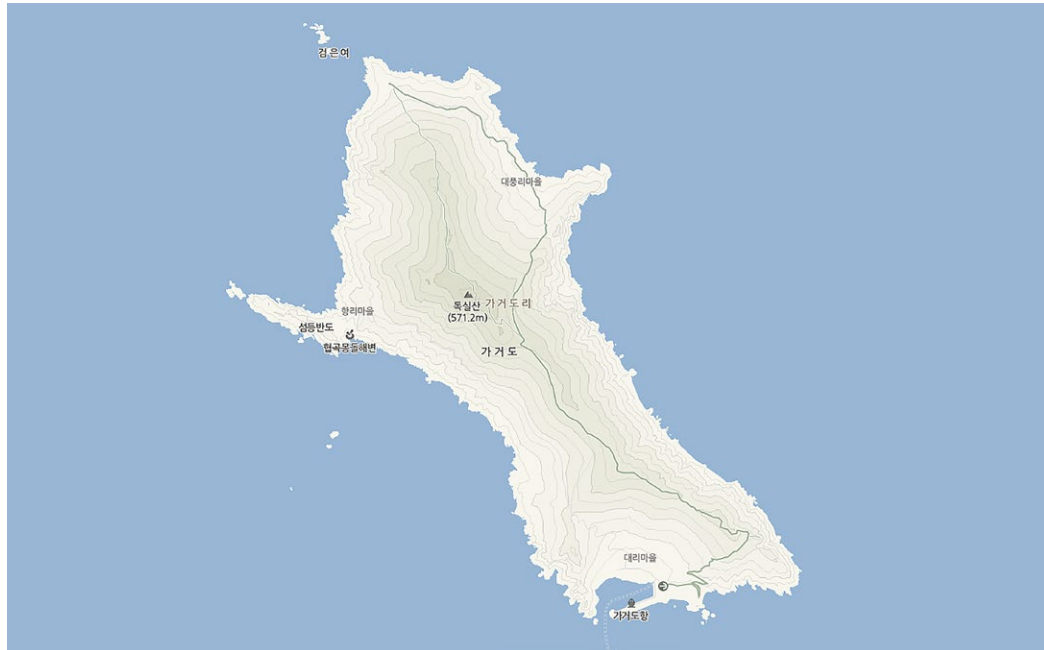


그림 13 가거도 지도(1:40000) (출처 : 네이버)



사진 56 상공에서 바라본 가거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는데 1680년 제주고씨가 입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은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중앙과 뒷산에는 후박나무 숲이 분포하고 있다.<sup>101)</sup> 2017년 10월 현재 가거도에는 371세대, 510명이 거주하고 있다.

(1) 기록 속 가거도

가거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도서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별표 1]에는 소흑산도로 명명되어 있는 섬이다. 가거도가 소흑산도로 불리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부터이다. 이는 일제가 흑산도와 가거도를 군사기지 내지는 어업수탈 기지로 활용하고자 대흑산도와 소흑산도로 구분한 것이다.<sup>102)</sup>

가거도가 문헌기록에 등장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고려도경』으로 서공은 1123년 6월 2일 아침 중국과 이민족이 경계를 삼고 있는 산을 지난다.

2일 아침 안개가 자욱하고 서남풍이 일어나더니 미시 후에 맑게 갔다. 정동 쪽으로 병풍 같은 산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에 곧 협계산(夾界山)으로 중국과 이민족이 이것을 경계로 삼는다. 처음 바라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유시 후에 바깥 다가가니 앞에 봉우리가 둘 있는데 그것을 쌍계산(雙髻山)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 작은 암초가 수십 개 있는데 달리는 말처럼 생겼다. 눈 같은 물결을 세계 뿜는데, 산에 부딪히면 더욱 높게 튀어 쏟아진다. 자정에 바람이 세고 비가 와서 돛을 내리고 땀을 걷어 그 기세를 늦추었다.<sup>103)</sup>

서공은 가거도를 협계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봉우리가 두 개 있어서 쌍계산이라고도 부른다고 기록하였다. 실제로 가거도에는 독실산과 해룡산의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

이후 가거도가 문헌 기록에 등장한 것은 홍도와 비슷한 시기부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의도와 가가도(可佳島)가 모두

101 신안군, 앞의 책, 2013, 192쪽 ~194쪽 ; 신안군, 앞의 책, 2000, 965~966쪽.

102 김승, 「可居島의 水産業」,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76쪽 ; 김준, 『섬문화 답사기』 신안편, 서책, 2012, 132쪽.

103 서공,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옮김, 앞의 책, 2005, 256~257쪽.

- 104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신증 동국여지승람 IV』 제35권, (주)민문고, 1989, 516쪽.
- 105 변주승 옮김, 『여지도서 46, 전라도 III』, 디자인하루, 2009, 217쪽.
- 106 『조선왕조실록』 속종실록 45권, 속종 33년 8월 19일 기사 발췌.

“나주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물길로 1,300여리 떨어진 지역”<sup>104</sup>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가도의 둘레는 15리이고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33호로 남자 35명, 여자 33명”이라고 기록<sup>105</sup>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섬은 홍도와 같이 등장한다.



그림 14 북쪽에서 바라본 가거도 전경도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안항로지』 2015, 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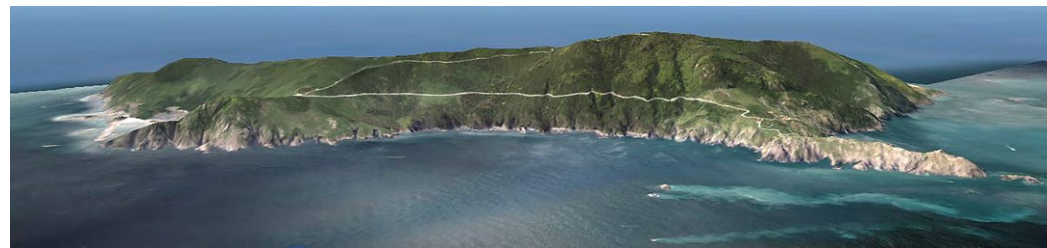


사진 57 북쪽에서 바라본 가거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가가도는 호남의 바다 가운데 있다. 처음에 이 섬이 적로(賊路)의 첫길이 된다고 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두었는데...이 섬과 홍어도는 모두 나주의 소관인데, 홍어도는 더욱 아득히 멀리 있어 남경과의 거리가 자못 가깝다고 한다...<sup>106</sup>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가거도라는 명칭 대신에 가가도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동여도에는 대흑산도와 홍의도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섬 하나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주(可柱)라고 적혀 있으며 둘레가 1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서금이 본 협계산(쌍계산)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가도로

불렸으며, 아름다운 가(佳)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다른 글자(柱)를 사용하여 명명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불렸던 가가도란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것이며 이것이 가거도(可居島)로 불리게 된 것은 1896년 이후부터이다.<sup>107</sup>

- 107 신안군, 『가거도 자연문화유산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신안군, 2013,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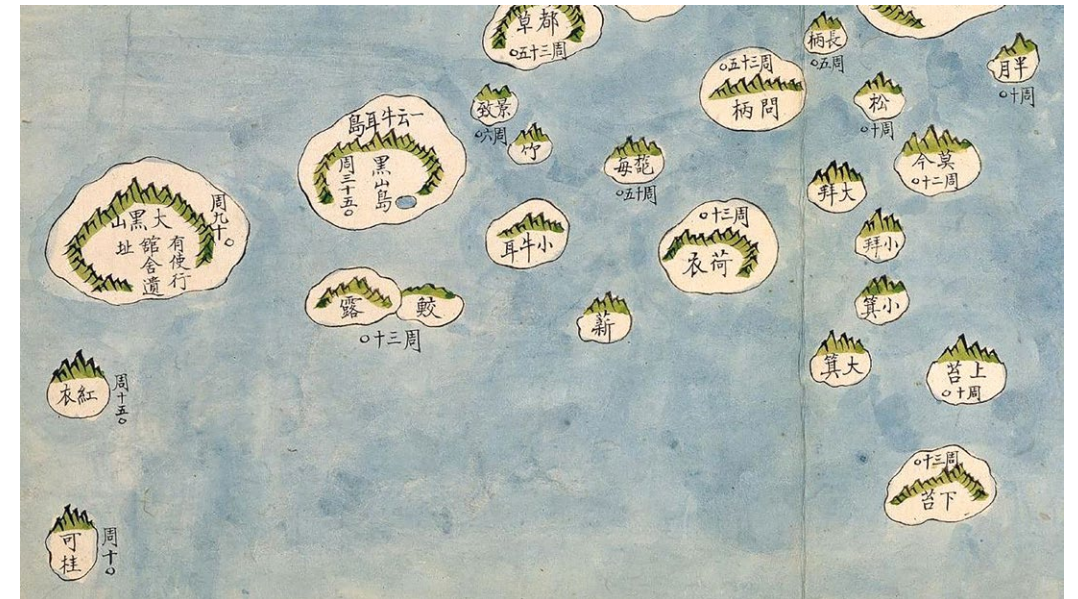


그림 15 동여도 속 흑산면 일대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2) 기억 속 가거도

가거도 지역 일대는 무역의 중간 기항지<sup>108</sup>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류와 서해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풍부한 어장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서해에서 가장 중요한 어종인 조기를 비롯하여 농어, 민어, 돔, 우럭, 멸치와 김, 미역, 톳, 천초 등 해조류, 전복, 소라, 홍합, 성게 등 패류가 다양하게 서식한다. 과거 어로는 나잠에 의한 해조류와 패류의 채취, 연승어업, 일본조(一本釣, 외줄낚시), 끝낚시, 자망, 유망, 분기초망 등을 통해 물고기를 어획하였다.<sup>109</sup>

일제 강점기 때에는 해조류가 일본에 수출되면서 이에 대한 채취가 마을의 주 산업 활동이었다. 해조류 채취를 위해서 여성들뿐만 아

108 통일신라시기 이전부터 이 지역은 왜와 당나라를 연결하는 주요 기항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의 당나라 사신단(견당사)은 백제에 이르러 두 척의 배를 하나로 연결하는 선방(船舫) 장치의 한 뒤 100톤가량의 적재량을 수용한 뒤 서해를 건너갔다. 이를 ‘백제박(百濟舶)’이라고 하는데 653년 나니와에서 출발한 왜의 제2차 견당사가 사용한 선박을 백제박을 부르고 있다는 점(박순발, 『백제의 해상 교통과 기항지-대(對) 중국항로(中國航路)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2016, 18-19쪽)에서 왜의 사신단이 남해안을 거쳐 백제에 도착한 후 서해를 건너 당나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 109 김승, 「可居島의 마을管理와 共同漁場 利用形態의 變遷科程에 관한 調査研究」,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145쪽.
- 110 이 구분은 동쪽 및 서쪽에 위치한 어장이라는 의미에서 동구와 서구로 구분하고 있다.
- 111 김승, 「可居島의 水産業」,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81쪽.

나라 남성들도 나잡 어업을 하였다. 이들은 마을 공동어장에서 미역, 김, 툇, 천초를 비롯하여 전복, 소라, 해삼 등 어패류를 공동으로 채취하여 판매하였다. 대리에는 두 개의 독립된 어장이 동구와 서구로 구분되어 있으며<sup>110)</sup> 매년 마을의 동구와 서구가 교대하여 어장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대구굴도, 소국홀도, 무인도 등에서의 어장 이용은 관행에 따라 대리 어장으로 인정되었고, 동구와 서구가 매년 교대해 가면서 이용관리 하였다.<sup>111)</sup> 1970년대 중반까지는 마을 공동어장에서 미역, 김,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미역 채취는 공동채취 및 공동분배의 규칙이 지켜지는 가거도의



그림 16 가거도 어장도 (제공 : 신안군청)  
가거도 및 주변 도서 주위로는 모두 마을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미역, 천초, 전복, 성게, 소라, 가리비, 툇 등을 맨손이나 나잡 어업을 통해 어획하고 있다.

근본 소득원이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이 미역을 공동으로 채취를 하더라도 미역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분배를 할 때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맘보<sup>112)</sup>”를 붙였다”. 맘보란 미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마을 내부 규칙으로 미역을 분배하기에 앞서 미역 채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뺏뺏한 플라스틱 위에 적은 뒤 주머니에 넣는다. 이름을 쓴 뺏뺏한 플라스틱을 맘보라고 하는데 맘보는 공동채취를 한 사람들 모두 한 개씩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다만 배를 가지고 공동채취를 하러 간 사람의 경우에는 두 개의 맘보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이후 ‘조랑이’라는 바가지에 공동으로 채취한 미역을 가득 채운 후 반장이나 이장이 주머니를 흔들어서 맘보를 뽑아 이름을 호명하면 조랑이에 든 미역은 호명된 사람의 것이 된다. 이를 ‘맘보 부른다’고 한다.

이후 공동어장의 소득이 감소하자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주 소득원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인적인 어업 혹은 낚시어업 등으로 변화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현재 주로 어획하는 물고기로는 볼락과 멸치가 있다. 볼락은 봄부터 여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어획하며 건조한 뒤 판매하거나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멸치는 음력 6월부터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7월에 잡은 것을 젓갈로 담근 후 판매한다.

옛날부터 추자도, 가거도 멸치젓이 유명했제. 근디 지금은 양이 많이 없기도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지. — 고승호(65세)

가거도 멸치는 기름 함량이 높아서 시중의 마른 멸치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젓갈을 담근다. 젓갈을 담그는 법은 어획한 멸치를 소금과 함께 버무려 커다란 고무통에 넣어둔 후 3년 정도 숙성을 시킨다. 그러면 액정이 나오는데, 큰 고무통에서 나온 액정의 양은 9kg 플라스틱 통 4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멸치를 매년 잡지 않고 액정이 어느 정도 소진되었을

112 가거도 현지조사 당시 ‘맘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준 제보자는 연구자가 ‘맘보’인지 ‘맘보’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맘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맘보’란 수(數)를 세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주로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사진 58 조업 준비 중인 어선(위)과 불락 그물 수리(아래)



사진 59 가거도 후박나무 군락(위)과 후박나무 껍질(아래)

때 어획하고 있다. 이는 멸치를 소금에 버무린 후 3년의 숙성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악되며 멸치의 어획도 대략 숙성 시기에 맞춰서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추석 이후에도 멸치를 잡았지만, 이때 어획한 멸치는 삶지 않고 바로 갯바위에 말린 후 농촌 등지로 가져가서 곡식과 바꾸기도 하였다.



사진 60 가거도 멸치 액젓 숙성(왼쪽)과 완성된 멸치 액젓(오른쪽)

113 비금도와 도초도는 각각의 섬이었으나 1996년 서남문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두 섬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비금도초로 불리고 있다.

114 한 연구에 따르면 신안군 내 타 도서와 혼인한 사람 15명 가운데 처가가 도초도인 경우가 6명이었다. 그리고 외가가 신안군 내 타 도서인 남성 9명 중 7명이 도초도였다(최재율, 『可居島의 家族과 結婚制度』, 『韓國島嶼研究』, 한국도서학회, 1996).

잡은 물고기는 대부분 염장하여 저장하였다. 그러나 가거도에서는 소금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목포나 신안 등지에서 직접 구입해 오거나 다량으로 소금이 필요한 때에 중매인이 직접 소금을 싣고 섬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중매인에게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염장을 한 물고기는 뱃길을 따라 비금도와 도초도<sup>113)</sup>를 거쳐 육지로 가지고 가서 물물교환을 통해 곡식으로 바꾸어 오거나 목포 위탁상으로 가져다가 판매하기도 하였다. 과거 풍선을 통해 목포 등 육지로 이동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항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래서 가거도에서 목포로 이동할 때에도 날씨가 꺾게 되면 비금도와 도초도에 정박하기도 하였고 목포에서 가거도로 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금도와 도초도에 정박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비금도와 도초도의 여성들이 가거도 남성을 만나 가거도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14)</sup>

풍선을 타고 가거도-목포를 잇는 바닷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파람<sup>115)</sup>이 불 때에만 가거도에서 목포로 갈 수 있었다. 반면 목포에서 가거도로 올 때에는 셋바람<sup>116)</sup>이나 늑새바람<sup>117)</sup>이 불어야만 당도할 수 있었다.<sup>118)</sup> 하지만 바람만 있다고 해서 목포에서 출항한 풍선이 가거도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시계가 불량할 경우 섬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과거에는 확대가족 구성원들이 배 한척에서 공동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sup>119)</sup>가 많았기 때문에 해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남성 구성원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9월과 10월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9월과 10월은 북서계절풍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바람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해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마을의 기제사도 이 시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115 마파람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가거도에서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풍선의 돛을 올려 목포로 갈 수 있다.

116 셋바람은 동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117 늑새바람은 북동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과거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셋바람과 늑새바람을 이용해서 목포에서 가거도로 이동하였다.

118 풍선을 이용하여 목포-가거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은 대략 1일~3일 정도 소요되었다.

119 가거도 3구 마을 이장에 따르면 어릴 적 본인의 가족은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었다. 한 집에 6촌까지 함께 살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3구에는 9개의 성씨가 있었는데 마을의 배는 총 9척 정도가 있었으며 배는 주로 일가친척 내지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사진 61 도초도에서 바라본 비금도. 두 섬은 연도교인 서남문대교(왼쪽)로 연결되어 있다.

120 홑는 느릅나무, 진누룩나무, 생대나무, 고전절나무를 사용하여 작은 도끼로 8등분으로 쪼갠 뒤 새끼줄로 묶어 말리는데 길이 4~5m, 폭 20cm 정도 되며, 일곱 매듭을 묶어서 만든다.

목포에서 가거도까지 바람을 잘 만나면 하루 만에 당도하지만 역풍을 만나거나 기상이 불량하면 3일을 바다에 떠있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조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가거도에서 목포로 떠나기 전 가족 구성원들과 도착일정을 정한 뒤 출항하였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은 도착 예정일 이전부터 목포에서 가거도로 오는 바닷길이 보이는 언덕에서 낮에는 징이나 팽과리를 치고, 밤에는 횃불을 만들어 언덕에 올라가 귀항하는 배가 섬을 잘 찾도록 도와주었다. 밤에 사용한 횃불은 멸치잡이 어업에서 사용하였던 횃불<sup>120)</sup>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이 탄 배를 기다리며 징을 치고 횃불을 들었던 언덕을 바라볼 망(望)과 고개 재(帖)를 써서 망재라고 불렀으며 현재에는 전망대를 설치해 놓았다.

풍선은 돛이 두 개여. 그래서 순풍일 때는 돛으로 바람을 타고



사진 62 가거도 3구에서 바라본 망재

가지. 역풍이 불면 지금처럼 돛을 조정해서 역풍을 안고 나가는 기술이 없으니까 전부 노 저어서 다녔지. 여기서 해산물 전부 싣고 목포로 가면서 지금 나가면 어느 시점에 돌아온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가. — 고승호(65세)

가거도는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해에서 육지로 배가 들어 가거나 육지에서 외해로 향하는 배를 조망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항로 속에서도 가거도는 중국과 한반도의 경계 역할을 하였으며<sup>121)</sup> 한반도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일제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면서 각 지역에 방공호(防空壕)를 설치하여 공습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바닷길의 중요 길목에도 방공호를 설치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가거도에도 두 개의 방공호

121 서궁,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앞의 책, 서해문집, 2005, 256쪽.



사진 63 가거도 제1방공호(위)와 제2방공호(아래)

122 현지조사 당시 가거도 등대를 100년 등대라 부르는 이유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등대가 설치된 것이 100년 정도 되었다는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등대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100년 등대'라고 부르고 있다. 가거도 등대의 광달거리는 23마일이며 음달거리는 2마일이다. 취명시간은 5초이고, 정명시간은 55초이다. 현재 세 명의 등대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123 이 일향초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선박이 대련에서 식량을 싣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쳐서 파손되었으며 일본으로 향하는 배가 침몰한 지역이라고 하여 일향(日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거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바닷길의 주요 기항지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군함이나 수송선이 가거도 인근 해역을 거친 뒤 남해안을 따라 일본 본토로 이동하였다고 보고 있다.

124 가거도 주민들은 일제가 붙인 일향초와 소흑산도의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연합뉴스 2007년 2월 5일 신문기사). 그래서 일향초는 가거초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거도에서 48km 떨어진 이 암초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섬(육지)이 바로 가거도이기 때문에 이 암초의 이름을 가거초라고 명명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125 일제 강점기 때에도 해양 기상 관측소가 가거도에 설치되었다(동아일보 1939년 9월 6일 신문기사). 즉 가거도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상, 해양환경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적학적 중요성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된 도서 가운데 하나이다.

126 가거도 방파제는 가거도를 종합어업기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과 맞물려 설치되었다. 1979년 7월부터 1984년까지 가거도 방파제 건설 공사를 계획하였다(매일경제 1979년 6월 14일). 그러나 예산문제와 자연문반과 기상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기초공사만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2008년에 완공되었다.

가 있으며 모두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한다. 가거도 방공호는 독실산(639m) 정상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와 한반도, 중국을 연결하는 바닷길에서도 가거도는 항로의 주요 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른 시기인 1907년 등대를 설치했으며 1935년 유인등대로 전환하였다. 가거도 등대는 현관이 돌출되어 있고 등명기를 보호하는 등롱(燈籠)은 빛을 모든 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부에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는 무적(霧笛)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2008년 등록문화재 제380호로 지정되었다. 등대의 역사성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매우 오래된 등대라는 의미로 가거도 등대를 '100년 등대'라 부르기도 한다.<sup>122)</sup>

1927년에는 일본군함 휴가(日向)함이 가거도 서쪽 48km 해상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일본군은 8월 14일 트롤어선을 동원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파손된 일본군함의 이름을 따서 배가 부딪힌 암초를 일향초라고 명명하였다.<sup>123)</sup> 일향초라는 명칭은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다가 2007년에 이르러서 '가거초'로 변경되었다.<sup>124)</sup> 가거초는 해양자원 확보와 기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해양과학기지가 2009년 10월에 준공되었다.<sup>125)</sup>

현재 가거도 대리마을 앞 방파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방파제가 있었으나<sup>126)</sup> 2000년 태풍 볼라벤의 복상으로 방파제가 파괴되면서 다시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다. 가거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2011년에는 태풍 무이파로 인해 방파제에 위치해 있던 테트라포트(64톤)가 대리마을 앞까지 날아오기도 했다.<sup>127)</sup> 그리고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외해에서 어업을 하는 우리 어선들을 비롯하여 중국 어선들 수백 척이 가거도로 피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거



사진 64 가거도 등대 (제공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도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 및 주점 등이 준비해 있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나갈 때에는 일가족 모두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을 사람들은 토속적인 신을 믿었다. 먼저 대리마을에는 지금은 흩어 없어졌지만 상당과 하당이 있었다. 상당은 마을 수호신을 섬기는 곳으로 마을을 바라 봤을 때 왼쪽에 위치해 있었다. 하당은 무주고원의 신들을 모시며 약 50위의 신에게 제를 올렸다. 제를 올릴 때에는 마을에서 당주를 선정한 뒤 설날 그믐날 상당에 올라가 제각을 청소한 뒤 제를 지내고, 이후 하당에서 제를 지냈다.

2구의 항리 마을에서는 비자나무(나한송)에 제를 올렸다. 여기에 제를 올리게 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 종이가 붙어서 날려 보

127 방파제에서 날아온 테트라포트 위치에는 현재 태풍 피해 비석이 놓여 있다. 비석에는 "2011년 8월 8일 태풍 무이파(27m/s) 영향으로 방파제 위치 내 있던 테트라포트(64톤)가 이곳까지 날아와서 현재 위치에 있음"이라고 쓰여 있다.



128 김남순, 「가거도의 종교와 교육」,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성)학회, 1997, 168쪽.

129 이 철신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마을의 한 사람이 꿈속에서 깃발에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을 가 보니 바위 사이에서 쇠불이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은 쇠불이를 건져다 산 중턱의 큰 후박나무에 걸어놨는데 계속해서 지금의 제당 쪽으로 쇠불이가 내려와 있었다. 몇 회를 반복한 끝에 마을 사람들은 쇠불이가 영험한 물건이며 이것이 있어야 할 장소가 현재의 제당이라고 여기고 이곳에 돌로 제당을 설치한 후 쇠불이를 나무에 걸어두고 제를 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에 따르면 이 쇠불이는 구리였으며 녹이 슬어 파란색을 띄고 있었다고 한다. 그 모양은 손바닥 보다 작은 크기에 자동차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토속신앙을 미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 쇠불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쇠불이의 목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서 마을의 여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마을의 한 노인이 쇠불이의 몸통을 잘 간직했으나 그 부인이 미신이라고 하면서 집 아래로 던져버린 후 쇠불이가 없어졌다고 한다.

130 한 마을 사람이 쇠불이를 건졌던 바위를 당여라고 부르고 있다. 철신에 대한 전설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바위 입구가 움푹 패여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절반 정도 잠기는 곳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을 홀로 막은 뒤 바닷물이 통할 수 있게 해놓고 소라와 전복 등을 저장했다. 이 공간에서 쇠불이가 발견되고 쇠불이를 신으로 섬긴 제의를 지내자 그 바위를 당여라고 불렀으며 이곳에서 채취할 수 있는 미역과 김을 당주의 상으로 지불하였다.

냈지만 계속 한 나무에만 붙어 있어서 그 나무를 수호신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28)</sup> 3구의 대풍리 마을에는 철신<sup>129)</sup>이 있다. 마을 입구 왼편에 철신을 모시는 제당이 있었으며 선달그믐부터 정월 초사흘날 아침까지 총 3일 동안 밥을 지어서 제를 올렸다. 제당이 마을 초입에 위치해 있어서 제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제당 앞뒤로 금줄을 쳐 놓고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했었다. 그래서 3구에서 다른 마을을 가고자 할 때에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기도 했다. 제의를 담당할 당주에게는 한 해 동안 당여에서 나는 김과 미역을 채취할 권리를 샀<sup>130)</sup>으로 주었다. 3구에서는 당제에 앞서 그믐날에는 각 가구마다 나무통 두 덩이를 가져와서 편평한 곳에 쌓아 놓고 불을 지르면서 풍어를 기원하기도 했다.

남해 무슨 왕, 무슨 신 부르면서 우리 마을 액운 없애 주고, 풍어 기원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무에 불 지르고 팽가리 치고 그랬지. — 정석규(60세)



사진 65 가거도 대리의 하당이 있었던 언덕



사진 66 가거도 3구 제당(위)과 당여(아래-빨간 색 원이 당여이다)

## 2. 무인도

131 소령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연안포털 무인도서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 가운데 무인도로는 북쪽에서부터 소령도, 서격렬비도, 직도(소피도), 고서, 소국홀도가 있다.

### 1) 소령도

소령도<sup>131)</sup>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천항에서 94.8km, 백아도에서 20.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섬 전체가 화강암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상부 일대의 초지를 제외하면 식생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해안에는 검은큰따개비를 비롯한 무척추동물 1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홍조류, 불등풀가사리 등 다양한 해조류가 있다. 또한 인근 대령도와 함께 바다제비, 습새, 바다쇠오리의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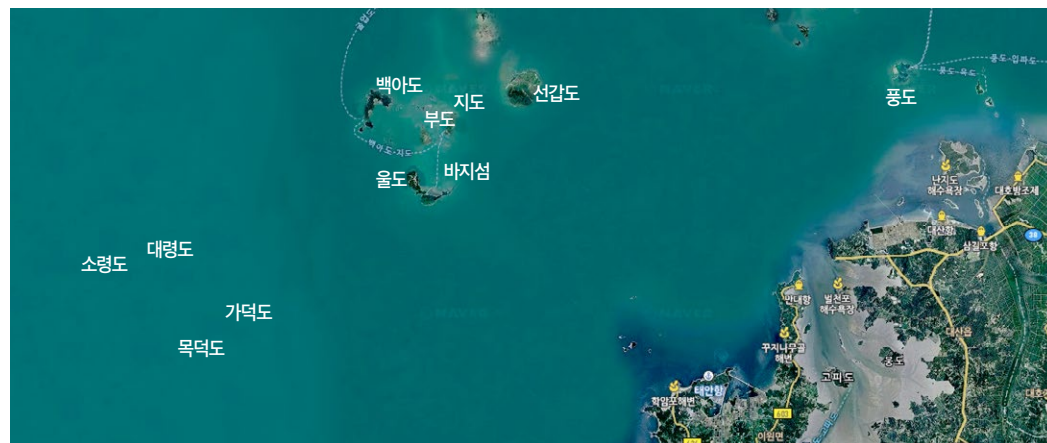


사진 67 소령도와 주변 도서 (출처 : 네이버)

소령도는 5,752㎡의 소규모 도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인도이다. 그래서 소령도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자료는 거의 없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소령도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다만 외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인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지역이다. 이 바다낚시는 소령도를 비롯하여 인근의 백아도, 울도, 대령도 등에서 이루어지며 우럭과 광어, 노래미 등을 주로 잡는다.



사진 68 소령도 전경. 아랫쪽 사진의 앞 부분이 소령도 영해기점이다.

132 격렬비열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 환경은 “권영현, 이인배, 「격렬비 열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고찰」, 충남발전연구원, 2012. : 정종관, 「격렬비열도와 인근 유·무인 도서의 자연생태환경을 연계 활용한 해양자원화 방안」, 충남연구원, 2015.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태안)」, 성진문화사, 2006”을 발췌 요약하였다.

133 암괴나 지층에서 기둥 모양의 절리가 지표에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 2)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sup>132)</sup>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 열도이다. 격렬비열도는 한국의 섬 중 가장 오래된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으로 현무암과 유문암의 화산재가 쌓인 지질을 갖고 있다. 또한 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식애 및 해식동, 주상절리<sup>133)</sup>, 시스택이 나타나고 있는 등 해안 지형 경관이 수려한 특징을 갖고 있다. 섬의 연안 일대는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수심이 얇고 경사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박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훼손도가 적어 갯이갈매기가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갑각류 희귀종인 빨강줄근부, 오늬이마물맞이게, 한국 미기록종인 토끼고둥, 좁은빨꼬마새우, 가시투성어리게 이외에 바다딸기, 부채빨산호 등이 서식하고 있어 해양 생물 지리적 분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격렬비열도는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의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 무리가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격렬비도(格列飛島)라 부르고 있다. 동쪽으로는 석도와 인접하며, 북동쪽으로 백아도, 덕적군도와 이웃하고 있다. 먼저 서격렬비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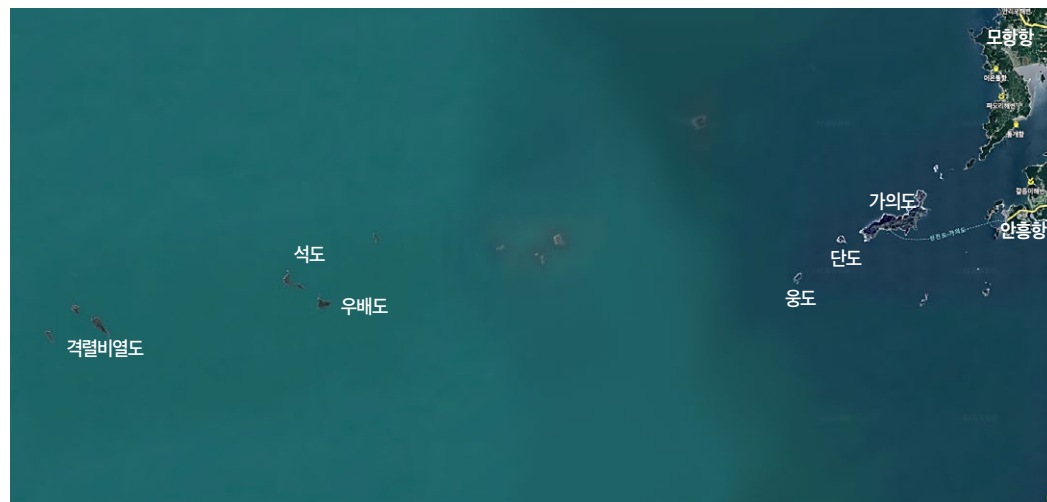


사진 69 격렬비열도와 주변 도서 (출처 : 네이버)

총 128,903㎡의 면적으로 태안군 소속 도서 중 서측 최외곽에 위치하여 영해기점에 해당되며, 북서 및 남동방향의 장타원체를 띠고 있다. 동격렬비도의 면적은 277,688㎡로 세 섬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으며 북서와 남동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북격렬비도는 93,601㎡의 면적으로 등대와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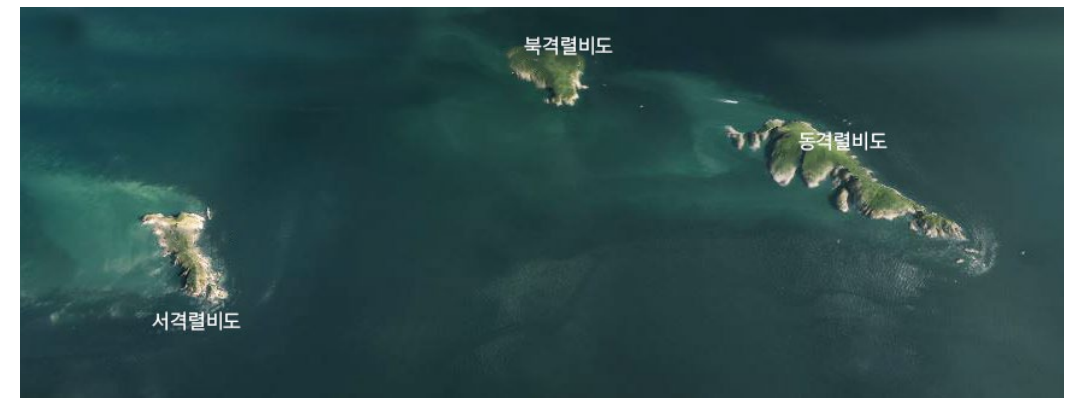


사진 70 상공에서 바라본 격렬비열도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사진 71 서격렬비도 갯이갈매기

134 명정구,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 수중탐사를 마치고」, 한국수중과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2016.

각 섬들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격렬비도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부의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85m에 달한다. 사면이 가파르고 강한 해풍과 토양층이 얇아 식생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능선부에는 키 작은 목본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해안선 지역에서는 노란 원추리와 해국이 생육하고 있다. 저지대의 해안선 암벽 주변에는 땅채송화, 가는갯능쟁이, 사철쭉, 갯기름나무, 갯장구채, 소리쟁이 등이 생육하며 환경부의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종으로 해국, 갯장구채, 모래지치, 밀사초 등이 확인되고 있다. 육상 동물로는 약 5,000여 마리 이상의 갯이갈매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잠자리, 딱정벌레, 개미 등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sup>134)</sup>

수중 환경은 경사가 완만하고 작은 몽돌과 비교적 작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방어와 돌돔, 다섯동갈망둑, 황해볼락, 쥐노래미, 노래미, 황점볼락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육이 확



사진 72 서쪽에서 바라본 서격렬비도. 섬의 오른쪽 끝 부분이 최외곽 지점으로 여기부터 12해리가 우리의 영해에 해당한다.

인된 해조류는 녹조류 7종, 갈조류 14종, 홍조류 30종이며 잘록이 고리매와 김류가 우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무척추동물로는 홍합, 막이끼벌레류, 부채빨산호류, 바다딸기류, 가시투성어리개, 파래가리비 등이 있다. 서격렬비도는 서해 중부에서 서쪽으로 가장 멀리 이격된 섬으로 서남해 끝단인 가거도, 흑산도, 홍도 등으로부터 분산하는 저서생물들의 이주와 적응에 중요한 장소 기능을 담당하며 한류성 생물의 서식지로 작용하고 있다.

동격렬비도는 격렬비열도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북서와 남동 방향으로 긴 장타원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도 갯이갈매기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황조롱이, 흑비둘기, 갈새, 노랑할미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인 장수삿갓조개가 분포하고 있어 서격렬비도와 함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sup>135)</sup> 이곳에서 확인된 관속식물군은 82종으로 갯까치수영, 갯기름나무, 갯장구채, 땅채송화, 갯능쟁이, 가는갯능쟁이 등이 있다. 산지의 사면에는 개밀, 둥글레, 칩, 참마, 솔새, 역새 등이 생육하며 산지 능선부에는 사철나무, 동백나무, 딱총나무, 보리밥나무 등이 서식한다.

동격렬비도의 수중 생태계는 15m까지 급경사를 가진 직벽을 이루고 있으며 바닥층에는 크고 작은 암반들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방어, 돌돔, 범돔 등 높은 수온에서 서식하는 어류와 넙치, 조피볼락, 쥐노래미, 노래미, 다섯동갈망둑, 두줄망둑 등이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다.<sup>136)</sup> 해조류로는 녹조류 7종, 갈조류 14종, 홍조류 30종이 관찰되고 있다. 2016년 9월 한국수중과학회의 수중 조사 당시에는 구멍갈파래와 도박류 등이 관찰되었으며, 무척추동물로는 가리비, 전복, 별불가사리 등이 있었다.<sup>137)</sup>

북격렬비도는 해안 대부분이 바위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 정상에는 9.7m 높이의 등대가 위치하고 있다. 등대는 1909년 일제에 의해 설치되는데, 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등대원과 그 가족들만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급선을 통해

135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2016년 12월 15일에 특정도서 235번과 236번으로 지정되었다. 동격렬비도의 지정사유는 해식애, 시스텍, 해식동, 시아치 등 지형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매와 11급인 섬개비가 서식하고 갯이갈매기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격렬비도 또한 지형경관의 자연성이 우수하고 섬개비의 서식, 갯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36 명정구, 앞의 논문, 2016.

137 명정구, 앞의 논문, 2016.



사진 73 북격렬비도(앞)와 동격렬비도(뒤)

138 주강현, 앞의 책, 2015, 659쪽 (인터뷰 자료).

139 북격렬비도 등대의 광달거리는 27마일이며 음달거리는 2마일이다. 취명시간은 5초, 정명시간은 25초이다.

식량을 수급받을 수밖에 없었다.<sup>138)</sup>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 탓에 1994년부터 북격렬비도 등대는 무인화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 한 중국인이 사유지이면서 영해기점인 서격렬비도를 16~20억 원 등에 매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의 매입 제안은 제안으로만 끝났지만 격렬비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북격렬비도 등대는 다시 유인등대<sup>139)</sup>로 전환되었다. 현재 북격렬비도 등대원은 네 명이며 2인 1조로 15일씩 근무하고 있다. 북격렬비도에는 등대 뿐만 아니라 서해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해상관측 장비, 무선 통신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서해 항로 표지 역할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기상과 해양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있다.

북격렬비도는 등대원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어서 각종 야생동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매가 서식하고 있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sup>140)</sup> 꿩이갈매기, 솔딱새, 찌르레기, 가마우지, 황로 등 조류뿐만 아니라 대륙유혈목이와 같은 파충류도 서식하고 있다.<sup>141)</sup> 그리고 달래와 참나리를 비롯하여 동백나무, 돌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등대를 오르는 출입로 주변에는 강아지풀, 바랭이, 여뀌, 유채 등이 무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타 도서와 달리 개망초, 망초, 까마중 등의 귀화식물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sup>142)</sup>

해안 암반 지대에는 해양무척추동물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 검은따개비를 비롯하여 고동류, 비단가리비, 흰삿갓조개, 홍합 등이 바위에 붙어 서식하고 있다. 해조류로는 미역, 쇠꼬리산말, 돌김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sup>143)</sup> 이 지역의 주요 어족자원으로는 꽃게, 오징어, 멸치, 우럭, 노래미 등이 있다.

140 북격렬비도는 2002년 6월 8일에 특정도서로 지정(지정번호 제125호)되었다.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의 번식. 2. 주상절리-해식동-시스택 등의 발달. 3.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 분포. 4. 검은따개비 집단 서식

141 KBS 다큐멘터리 : “서해 격렬비열도 사계”

14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앞의 책, 2006, 84쪽.

143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앞의 책, 2006, 95-101쪽.



사진 74 북격렬비도와 등대 (제공 : 태안군청)



사진 75 북격렬비도 태양열 전지판(왼쪽)과 기상관측장비(오른쪽)

### (1) 기록 속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는 무인 도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문헌이나 고지도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847년 9월 3일 아침 동쪽에서 신라의 서쪽 산들을 바라보았다. 이때 바람의 방향이 정북풍으로 바뀌어 돛을 옆으로 기울여 동남쪽으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4일 아침에 이르러 동쪽으로 많은 섬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때 웅주를 지나쳤다.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동쪽과 서쪽으로 섬들이 연이어져 끊이지 않았다. 밤 10시에 이르러 무주(武州)의 서남 지역에 속한 고이도(高移島)에 정박하였다. 5일 밤 12시 무렵에 이르러 출발을 하였으며 6일 아침 무주의 남쪽 땅인 황모도(黃茅嶋)의 니포(泥浦)에 도착하였는데 이 섬을 구초도(丘草嶋)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이도로부터 구초도에 이르기까지는 섬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동남쪽으로 멀리 탐라도(耽羅嶋)가 보인다. 9월 8일 오전 4시경에 동쪽을 향해 이동하였으며 남북 양쪽으로 산과 섬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다. 오전 10시쯤 안도(雁嶋)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탐라도가 보였다.<sup>144)</sup>

엔닌이 지나친 웅주, 무주, 탐라도는 익히 잘 알려진 명칭이다. 웅주는 충청남도 공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엔닌은 웅주에 이르기 전에 신라의 서쪽 산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인근의 도서를 바라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무주는 광주광역시를 가리킨다. 엔닌은 무주의 서남 지역에 속한 고이도와 무주 남쪽인 황모도 등을 지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전라남도 도서연안 지역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탐라도는 제주도를 지칭하며 한라산은 1,947m로 약 94해리(약 174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섬이다.<sup>145)</sup>

144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847년 9월 2일~9월 8일 기사.

145 해상에서 시인거리(視認距離)는 공 모양과 같은 지구표면 때문에 관측자와 물표의 높이에 따라 그 거리가 달라지는데 항해학에서는 이것을 지리적 광달거리(光達距離)로 정의한다(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9, 140~141쪽).

146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엔닌은 귀국 전 거처를 법화원으로 옮겼으며 여러 차례 장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장영(張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적산 법화원의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장영은 엔닌 일행을 귀국시키고자 846년 겨울부터 배를 건조하여 847년 2월에 완성하였고, 엔닌은 이 배를 타고 귀국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엔닌은 귀국 시도 과정 중에 법화원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귀국할 당시 승선하였던 배도 해당 신라인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147 장보고가 세운 불교사찰인 적산 법화원은 지금의 웨이하이(威海) 산둥반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148 정진술, 앞의 책, 2009, 276-278쪽.

149 정진술, 앞의 책, 2009, 197쪽.

엔닌은 9월 2일 낮 12시경 산둥반도 적산포(赤山浦)에서 출항한다. 엔닌과 법화원과의 관계<sup>146)</sup>, 법화원의 위치<sup>147)</sup> 등으로 미루어 산둥반도 적산포는 현재의 산둥반도 스타오만(石島灣)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엔닌이 ‘신라의 서쪽 산들’을 바라보고 동남쪽으로 변침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면 엔닌은 스타오만에서 정동쪽으로 출항한 후 대략 18시간 만에 격렬비열도를 발견하게 된다.<sup>148)</sup>

산둥반도 스타오만 끝에서 격렬비열도까지의 거리는 약 148해리(약 274km)이다. 격렬비열도의 시인거리는 약 27해리(50km)이므로<sup>149)</sup>, 엔닌 일행이 9월 3일 아침신라의 서쪽 산들을 발견하기까지는 대략 16~18시간이 걸렸으며 약 121해리(224km)를 운항한 셈이다. 엔닌이 바라본 신라의 산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산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부수적인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바라본 산들이 격렬비열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약 121해리를 16~18시간 만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최소 6.7노트에서 최대 7.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를 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당시 항해 평균속력이 2~3노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엔닌이 본 신

라의 산들이 격렬비열도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엔닌이 9월 3일 아침에 바라본 섬들은 구름을 섬으로 잘못 오인한 것이며, 당시 항해 속력에 비추어 적산포에서 74해리(137km)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변침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150)</sup> 엔닌이 바라본 서쪽 산들이 격렬비열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두 주장은 엔닌의 기록과 당시 항해 기술을 토대로 추정한 것일 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곤란하다.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서도 격렬비열도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재의 태안반도 앞 바다에 형도(兄島), 갈도(葛島), 죽도(竹島), 말응개도(末應介島), 가외도(加外島), 토도(兔島), 상산도(上山島), 굴굴조도(屈屈鳥島), 하초도(下草島), 웅부도(瓮浮島), 적점도(積帖島), 거아도(居兒島), 한음산도(間音山島), 나치도(羅治島), 군북파도(郡北波島) 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여도에는 태안 안흥 주변으로 오(梧), 상산(上山), 파도지도(波濤只島), 궁사(弓射), 독(獨), 형(兄), 제(弟), 흑(黑), 마도(馬島), 가외(加外), 병풍(屏風) 등의 섬이 표기되어 있

150 허일, 『엔닌일기의 재탐방II-신라 상선의 항로 및 속력에 관한 고찰』, 『STRATEGIE 21』 1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114쪽.



사진 76 북서쪽에서 바라본 격렬비열도. 왼쪽부터 동격렬비도, 북격렬비도, 서격렬비도 순이다.



그림 17 동여도 속 태안 도서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 151 한음산도의 잘못된 표기로 보여진다.
- 152 맥스웰 함장은 에든버러 학술원 총재(바실 홀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와 같이 이름 지었다.
- 153 바실 홀, 김석중 역음, 『10일간의 조선항해기』, 삶과 꿈, 2000, 17-25쪽.
- 154 현재 격렬비열도의 경위도는 동경 125도 34분, 북위 36도 34분이다(권영현, 이인배, 앞의 책, 2012, 1 쪽).
- 155 맥스웰 함장은 지질학자 허튼(Hutten) 박사의 이름을 따서 외연도를 ‘허튼섬’이라고 이름 지었다. 바실 홀이 지은 이 책을 1999년에 번역한 신복룡과 정성자의 『조선서해 탐사기』(1999, 집문당)에는 알세스트 호와 라이러의 서해탐사로 해도에 비추어 허튼섬이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智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 비인항에 입항하여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승철을 만난 것으로 미루어 허튼섬을 외연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56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위치한 항구이다.
- 157 바실 홀, 김석중 역음, 앞의 책, 2000, 105쪽.
- 158 이들 일행의 10일간의 조선 서해 탐험은 이전의 한반도 지형이나 위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한반도의 형체와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아시아 지리해명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李元淳, 『한국사』 16, 근대-개화적사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83, 24쪽).

며 그 옆에 말응개도(末應介島), 굴조도(屈鳥島), 하초도(下草島), 웅부도(瓮浮島), 적점도(積岾島), 간음산도(間音山島)<sup>151)</sup>, 압희도(押喜島)라는 섬 명칭이 쓰여 있다. 이 가운데 격렬비열도가 어느 섬인지 혹은 격렬비열도가 다른 명칭으로 표기된 것인지를 파악하기에는 곤란하다. 격렬비열도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붙여진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해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무인도였던 탓에 그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격렬비열도’라는 명칭이 처음 문헌기록에 등장한 것은 서양인에 의해서였다. 1816년(순조 16년) 2월 9일 영국의 중국 파견 사절단이 알세스트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난 뒤 8월 9일 중국에 도착하였다. 중국에 도착한 알세스트 호와 라이러 호는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가 없는 조선 서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반도 서해안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1816년 9월 1일 현재의 서해 5도에 도착하여 소청도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알세스트 호의 머리 맥스웰(Murry Maxwell) 함장은 소청도와 인근 섬들을 ‘서 제임스 홀 군도’<sup>152)</sup>라고 이름 지었다.<sup>153)</sup>

맥스웰과 바실 홀(Basil Hall)은 9월 1일 오후 8시 소청도에서 출항하여 남동쪽으로 향했다. 9월 3일 오전 7시경에는 서해의 한 군도를 지나치는데 맥스웰과 바실 홀 일행은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관측을 하였다. 관측 결과 이 지역은 동경 125도 42에서 125도 57 사이이고 북위 36도 44분이었다.<sup>154)</sup> 이후 이들 일행은 외연열도를 탐사한 후<sup>155)</sup> 비인항<sup>156)</sup>에 정착하였다.<sup>157)</sup>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맥스웰과 바실 홀 일행의 서해 탐사<sup>158)</sup>와 비인항 정착에 대한 내용이 기록<sup>159)</sup>되어 있지만, 영국인들의 서해 탐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실 홀이 기록한 항해기에는 격렬비열도의 명칭과 섬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1896년 ‘러시아국립 해군성문서’를 통해 바실 홀 일행이 현재의 격렬비열도에서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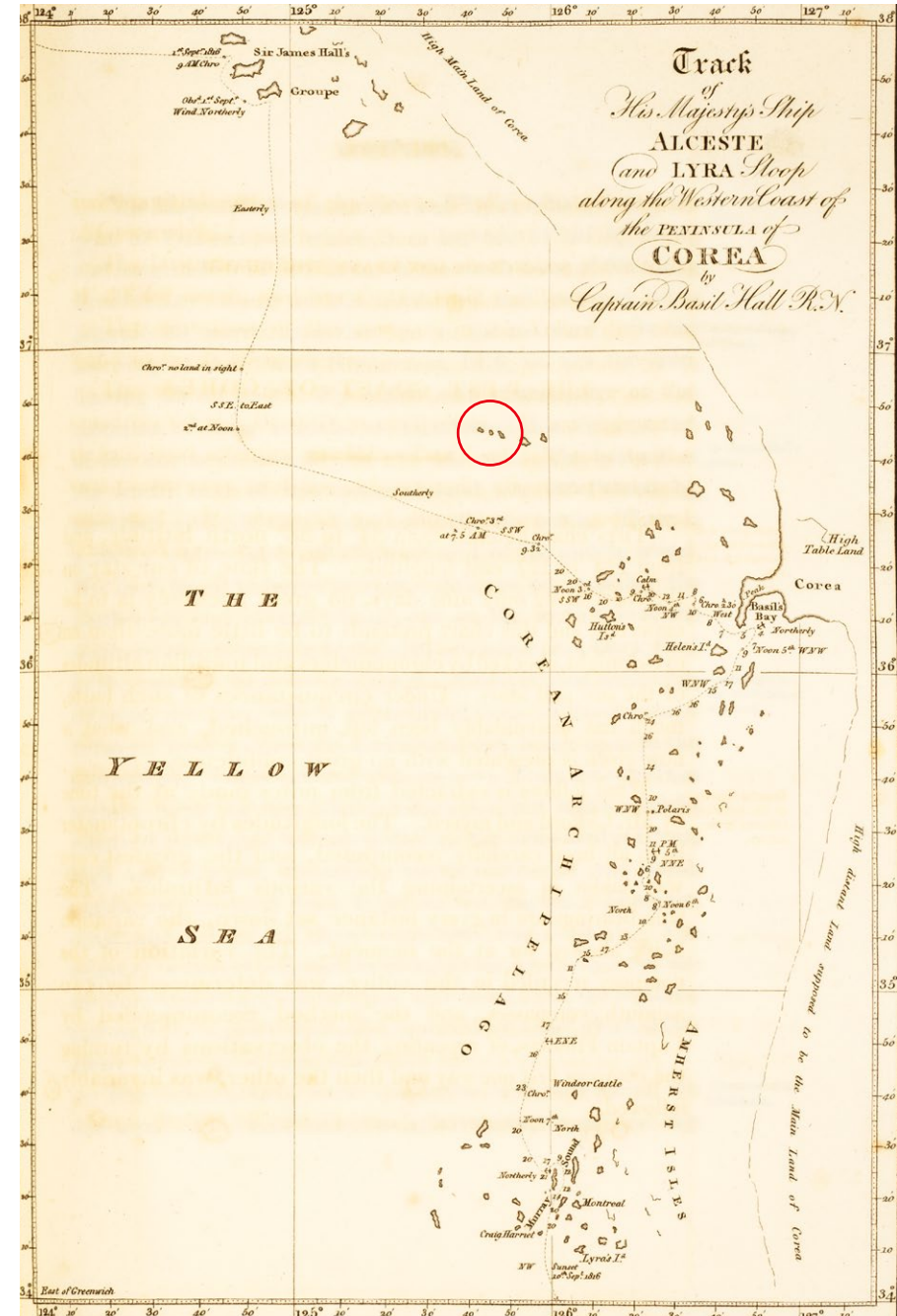


사진 77 바실 홀 항해기 속 격렬비열도(빨간색 원)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159 『조선왕조실록』의 순조실록 19권에는 순조 16년 7월 19일(음력) '이재홍이 충청도 마량진 갈곶 밑에 이양선 두 척이 표류해 온 일을 보고하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는 14일 아침에 마량진 첨사 조대복(趙大福)과 지방관 비인현감 이승렬(李升烈)이 이상한 모양의 작은 배가 떠 있는 곳으로 가서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했던 내용과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첨사와 현감에게 책을 준 뒤 신시(申時)에 북서풍이 불자 호포를 쏘며 차례로 돛을 달고 연도(煙島) 밖의 넓은 바다로 나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로부터 받은 책 가운데에는 한문 서찰이 있어서 이들 일행이 중국 청나라를 향해 영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승정원일기』의 순조 19년 7월 20일자에는 마량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승렬을 파직하고 의금부로부터 잡아들이라는 내용이 있다.

160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6』,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II(1894-1899), 2007.

161 바실 홀은 자신의 항해기 머리말에서 부록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클리포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적고 있다. 클리포드는 당시 항해기간 동안 영국 해군본부로부터 항해에 동행하는 허가를 받았지만 급려는 일방의 반액만을 받았으며 특별히 수행할 임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지식 습득에 전념할 수 있었다(바실 홀, 김석중 역음, 앞의 책, 2000, 8쪽).

162 바실 홀 항해기에는 가거도를 Ross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섬의 명칭 또한 바실 홀이 도움을 받은 봄베이 함대(Bombay Marine)의 로스(Daniel Ross)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로스는 바실 홀이 기록한 항해기 부록에 있는 황해 북부의 해도를 제공한 인물로서 중국해 측량을 위해 파견된 자이다(바실 홀, 김석중 역음, 앞의 책, 2000, 9쪽).

163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고해도 속의 우리 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014, 14-15쪽.

를 하였고 섬에 이름을 붙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896년 6월 18일 러시아 해군 중령 카차노프가 이끈 함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물포로 출항하였다. 함선은 6월 20일 원산, 23일 아침 나가사키, 26일 거문도를 지나 화도(Flover), 가거도(Ross) 왼쪽을 지난 뒤 26일 밤 9시 격렬비열도로부터 20마일 거리에서 조명으로 목표포를 비추고 첫 번째 야간준비사격을 했다. 밤 12시 45분(6월 27일)에는 격렬비열도를 지난 뒤 6월 28일 낮 12시 30분에 제물포 정박장에 도착했다.<sup>160)</sup>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국역본에는 격렬비열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원문에는 'островов Clifford в 20 милях'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격렬비열도는 Clifford 섬이라고 불렀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Clifford라는 섬 이름은 맥스웰과 바실 홀 일행이 1816년 9월 3일에 지나친 군도(격렬비열도)를 함께 동행 했던 클리포드(H. J. Clifford)<sup>161)</sup>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162)</sup> 이후 영국 군함인 HMS Algerine의 탐사에 따라 측량된 지도에는 바실 홀 일행이 지나친 군도의 위치를 현재와 유사한 곳에 표시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Clifford Island라고 적혀있다.<sup>163)</sup>

러시아의 카차노프가 제물포에 도착했던 1896년 당시 한반도 상황은 고종의 아관파천과 열강의 이권침탈로 인해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함대와 상선 등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러시아 해군성 문서에도 '원산에 주재한 일본 위병대의 수가 1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물포 정박장에 도착한 6월 28일에는 '영국선박과 미국 순양함, 일본 선박, 프랑스 순양함 등이 이미 정박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896년 이전부터 열강들은 한반도 서해 연안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축적한 후 해도를 만들고 주요 항로를 정해놓고 있었다. 러시아의 카차노프 또한 1896년 6월 27일 밤 격렬비열도를 지난 뒤, 당시 수로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항로를 잡아 제물포에 정박하였다.

1816년 맥스웰과 바실 홀에 의해 이전보다 더욱 정확해진 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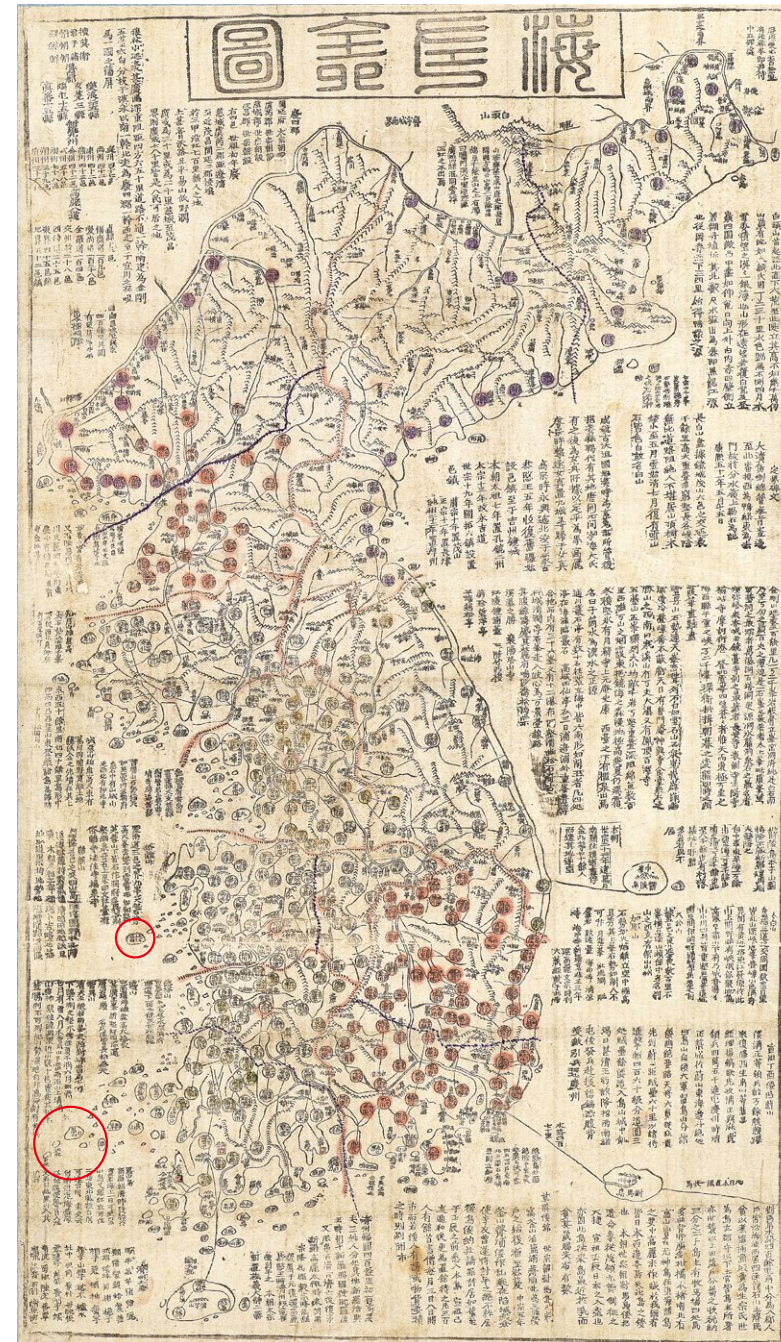


사진 78 해좌전도(1835~1863 제작, 추정)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위의 빨간색 원은 어청도이고 아래 빨간색 원은 흑산, 홍의, 가가도이다. 이 지도에는 격렬비열도를 포함한 다른 영해기점 도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도 서해의 각 도서와 지형, 지세는 이후 1866년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략과 미국의 제너럴셔먼호에 의해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보다 앞선 시기의 왜구의 침략 등에 의해서도 격렬비열도를 비롯한 서해 각 지역의 도서와 지형, 해양 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내 문헌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 (2) 기억 속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는 오랜 시기동안 무인도로 남겨져 있어서 섬과 주변 해양에는 야생 동·식물이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다. 꿩이갈매기, 매 등 야생 조류를 비롯하여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야생 달래, 한약재인 전호, 하수오, 원추리, 잔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야생 식물의 채취를 위해 과거부터 여러 사람들이 무인도인 격렬비열도를 방문했었다.

우리는 등대(북격렬비도) 올라가서 나물도 캐고 했지. 나물이 많았어. 달래도 있고 별 산나물이 다 있어. 단풍 이파리도 먹었지. 섬에서 나물 캐서 하우스에서 재배도 하고 그랬지.

— 김계자(70대)

또한 전문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격렬비도에는 사람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 임시로 거주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실제로 동격렬비도로 약초를 캐러간 사람 12명이 44일 동안 갇힌 사건도 있었다.

서해의 무인도인 동격렬비열도로 약초를 캐러 갔던 한마을 주민 12명이 섬에 갇힌지 44일만에 옆 섬의 등대수에 의해 발견되 극적으로 구출됐다. 이들은 8일 상오 1시 10분 해경 경비정을 타고 군산항에 입항, 다시 살아온 기쁨에 눈물이 뒤범벅이된 채 배에서 내리며

환호와 만세를 외쳤다.

절해도도 생활 44일. 배가 도착한다고 약속한 날 이후 19일 동안 절망과 실의에 빠졌던 이들은 섬 생활의 어려움을 말해주듯 수염이 얼굴을 덮었고 피골이 상접한 초췌한 모습이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상오 10시 약초채취업자인 이정호씨(50,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곡리 23)의 요청으로 하루에 2천원씩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안흥에서 27마일 떨어진 충남 서산군 근흥면 동격렬비열도로 약초를 캐러 갔다.

박광일씨(37, 서산군 안면면 승언리 136)등 서산군 안면면과 남면 일대 주민 10명은 이씨 부부의 안내로 이날 6만원에 빌린 5톤급 어선을 타고 25일 예정으로 서산군 태안읍 모항리를 출발, 하오 2시 쯤 현지에 도착한 후 약초를 캐 동안 기거할 천막을 치고 약초 채취 작업에 나섰다.

이 섬에 도착한지 25일만인 지난달 18일 이들을 태우러 오기로 했던 해성호(5톤, 전주 박철일 42)가 나타나지 않아 19일동안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도착 즉시 구들을 놓은 천막 두개를 설치, 섬 생활에 들어갔다.

이들을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오 5시까지 섬을 뒤지면서 한약재인 전호와 달래 등을 채취했다. 그러나 그들을 태우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지난달 18일이 지나도 배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와 불안감에 빠져 약초 채취를 단념한 채 구조의 날만을 기다렸다.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구정을 맞게된 이들은 집생각과 추위 등으로 절망과 허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이들은 매일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고 흰 옷가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때마침 이 일대 해상에는 강풍이 몰아쳐 지나가는 배 한척 없었다.

출발할 때 갖고 간 쌀 5가마와 보리쌀 1가마가 1월 하순부터는 거의 바닥이나 이들의 초조와 절망은 한결 더 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게 된 이들은 양식을 아끼기 위해 섬 주위를 뒤져 해초와 조개류, 산무 등을 채취, 굶주린 배를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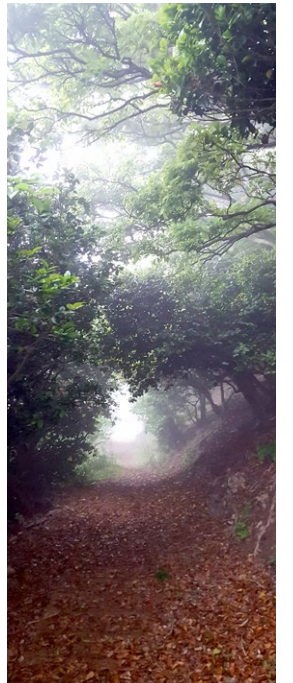


사진 79 북격렬비도 동백나무 군락

지난달 30일에는 눈까지 크게 내려 천막 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겼다.

가만히 앉아있다 굶어 죽느니보다 최선을 다해 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한 이들은 모닥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방법, 비닐 종이와 마대를 한데 엮어 만든 깃발을 산꼭대기에 꽂아 놓는 방법, 모두가 일시기 고향을 치는 방법 등으로 본격적인 구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방법을 되풀이하다 7일 이곳에서 0.8마일 떨어진 북격렬비도 등대장 박완서씨에 의해 이들의 구조요청이 확인됐다.

이들이 피운 연기를 발견한 박씨는 안흥 무선국에 SOS를, 안흥 무선국은 군산 해경에 이를 타전, 구조의 손길이 미치게 된 것이다.

안흥 무선국의 연락을 받은 해경 경비정은 이날 하오 1시 군산항을 출항, 이들이 집을 떠난지 44일만에 배가 도착하기로 했던 날로부터 19일만인 이날 하오 6시 10분 동격렬비도에 도착,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이들을 구조한 것이다.

섬에 도착한 경비정은 풍량이 심히 섬에 접안하지 못한 채 섬주위를 세바퀴나 순회했으나 섬에는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경비정에서는 계속 사이렌을 울리고 확성기를 통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치자 산꼭대기에서 이들 중 2명이 나와 옷을 흔드는 모습이 함장 고순하 경위(40)의 쌍안경에 잡혔다.

경비정이 섬이 겨우 접근하자 12명이 비틀걸음으로 다가왔다. 이들 중 남자들은 수염이 길게 자랐고 옷은 때에 찌들어 사람 모습이 아니었다. 경찰관이 이들을 하나하나 부축해 경비정에 옮겨 실자 재생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을 구조한 해경 경비정은 7일 하오 7시 동격렬비도를 출발, 6시간 10분 간의 항해 끝에 8일 상오 1시 10분 군산항에 돌아왔다. 이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만세까지 부르며 배에서 내렸다.

이들은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 굶주리며 식량을 절약해서인지 아직도 1말 반 가량의 쌀이 남아 있었고 비닐봉지 속에는 그동안 캐 모은

한약재인 전호 50관, 달래 40관(갯가 50만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들은 도착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2대의 앰블런스에 태워져 도립군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8일 낮부터 가족이 있는 서산으로 돌아갔다. — 경향신문(1979. 2. 8)

격렬비열도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약초가 많이 자생하는 지역이었으며,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태안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격렬비열도와 인근 바다를 방문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배의 성능이 좋지 못해서 육지에서 격렬비열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소요<sup>164)</sup>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돛을 달고 노를 저어서 격렬비열도 인근을 가기도 했다. 1970년대 격렬비열도 인근에서는 꽃게가 많이 잡혔으며 어획한 꽃게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현재에도 섬 인근에는 꽃게를 비롯하여 전갱이, 멸치, 우럭, 광어, 농어, 돔 등 어종이 다양하면서 풍부하다.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안강망 어선으로 안흥항이나 모항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격렬비열도 주변은 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선뿐만 아니라 낚시 선박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격렬비열도와 섬 주변으로는 조개류와 해조류도 풍부하다. 그래서 가의도와 신진도, 안흥을 비롯하여 태안반도 인근 해녀들은 이곳에서 나잡 어업을 한다. 해녀들은 해삼과 전복을 비롯하여 홍합을 채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홍합이 많이 낚지만 부산, 제주도 등지의 해녀들이 홍합을 채취하러 온 뒤부터는 홍합의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

여기꺼는 (홍합)껍질이 두껍고, 크기가 (식당)숟가락 통 크기만한 것도 있어요. 25~30cm 정도 크기도 있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잠깐 따도 워낙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한 배씩 따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 이종호(50대)

164 현재는 모항항에서 격렬비열도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사진 80 안흥 외항에 정박중인 안강망 어선(위)과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아래)

격렬비열도에서 나잠 어업을 하는 해녀들은 주로 모항이나 안흥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녀들이 섬 주변의 바다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식장은 태안 등 인근 어촌계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해녀들은 양식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받은 후 어업을 하고 있다.<sup>165)</sup> 채취권을 임대 받은 해녀들은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주와의 계약을 통해 양식장으로 이동한 뒤 나잠 어업을 실시하고 있다.

홍합은 어업 비수기이면서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인 겨울철에 주로 채취하는데, 홍합을 채취하러 가는 지역 주민들은 주로 신진도리, 파도리, 모항리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육지에서 격렬비열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2시간이 소요되고, 물때를 맞춰서 채취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 시간은 대략 4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7~8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채취 작업을 가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165 태안 인근에 거주하는 해녀들이 격렬비열도까지 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들과 어촌계의 계약형태를 통해 격렬비열도 인근 양식장의 계약형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태안 모항에 거주하는 해녀들은 주변 어촌계의 양식장에서 나잠 어업을 하기 위해 연간 수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금액을 지불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바다 밭에 대한 채취권을 취득하고 있다.



사진 81 북격렬비도에 접안한 어선  
격렬비열도에는 접안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소규모의 선박만이 접안 가능하다.

166 태안 안흥항에서 격렬비열도까지는 총 12개의 섬이 줄지어 있다. 안흥이나 신진항에서 출발하면 가의도를 거쳐 공시도, 흑도, 웅도, 단도, 란도, 병풍도, 석도, 우배도를 지나 동격렬비도, 북격렬비도, 서격렬비도에 다다른다. 가의도 사람들은 이 12개의 섬 주변에서 어업과 나잡 어업뿐만 아니라 '구아노'를 채취하기도 했다. 구아노는 건조한 해안지방에서 바다 새의 배설물이 응고·퇴적된 것을 말하는데 주로 비료로 이용하였다. 특히 란도(卵島)는 그 명칭과 같이 갈매기 알이 매우 많아서 명명된 도서인데 가의도 사람들은 이 섬에서 구아노를 채취하여 비료로 판매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격렬비열도 인근에는 자연산 미역이 많다. 1950~1960년대에는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가의도 사람들이 격렬비열도에서 15~20일간 거주하기도 했다. 미역 채취는 5~6월에 이루어지며, 이 시기가 되면 미역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가의도 사람들은 조를 짜서 격렬비열도 주변의 각 섬으로 이동하여 배 위에서 미역과 김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감시하기도 했다.

도채방지라고 해서, 도둑질 하는 것을 방지했지... 여기 배들이 조를 짜가지고 (섬에서) 상주했었어요. 한 조가 열흘 있으면 다른 조가 열흘 있고. 배에는 한 3~4명이 타서 한 섬에 배 한대씩 지켰지. 배에서 밥 해먹고 자고 그랬어요. 섬 12개<sup>166</sup>가 다 우리 어장이었으니까. — 주만성(78세)

물고기 어획뿐만 아니라 조개류,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었던 격렬비열도 인근의 바다에서는 파시가 열리기도 하였다. 태안반도 가의도에서부터 줄지어 있는 섬 가운데 한 곳인 석도는 무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자연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선들이 이곳에서 닻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어선과 어민을 상대로 하는 수리업, 선구점을 비롯하여 주점 및 식당 등이 한두 달의 짧은 시기 동안 형성되었다. 또한 지금은 무인도이지만 공시도와 흑도에도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분교가 있었다. 공시도와 흑도에서는 조기파시를 비롯하여 아지(전갱이) 파시, 삼치 파시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어업기술 발전과 자연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의 풍요로운 바다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격렬비열도에서부터 공시도까지는 촘촘한 그물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치어까지 모두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민들은 어장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무분별한 어획과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렬비열도 바깥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공어초 설치를 통해 물고기의 산란장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불법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격렬비열도에 국가어항을 설치하여 해경과 해군 등을 상주시켜 중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영토 및 영해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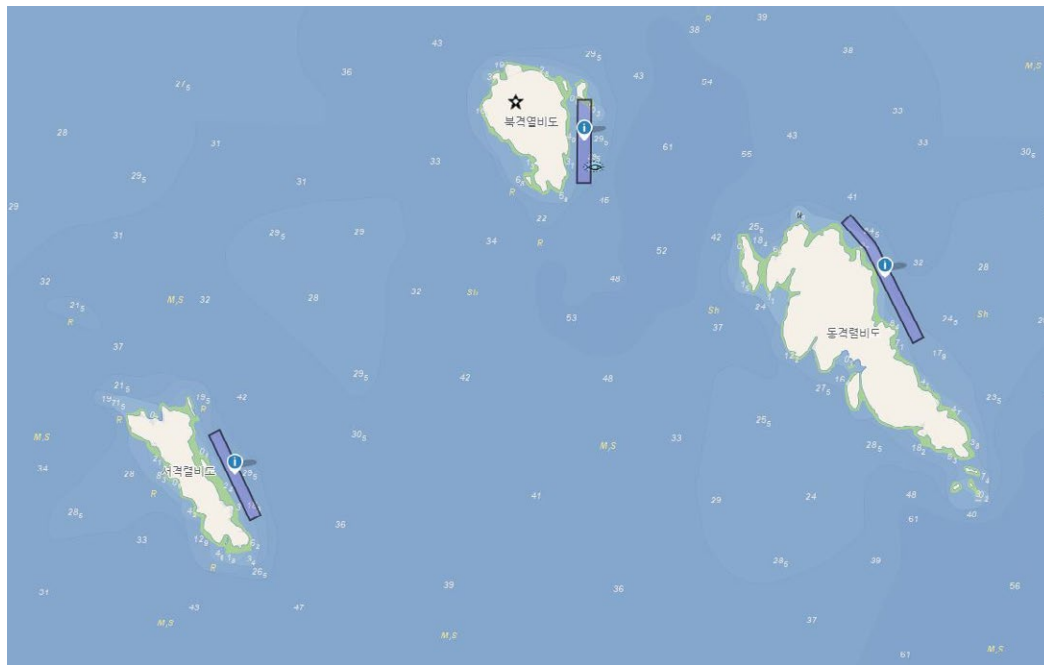


그림 18 격렬비열도 어장도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 어장정보) 서격렬비도와 북격렬비도 오른쪽의 어장은 해삼 양식장이며, 동격렬비도의 오른쪽 어장은 전복 양식장이다.

167 직도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연안포털 무인도서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 3) 직도(소피도)

직도<sup>167)</sup>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속한 무인도로 군산항에서 4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14,650㎡이다.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는 직도가 직선기점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정확한 지점은 직도 옆에 위치한 소피도이다. 직도와 소피도는 전체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한 파랑 작용으로 인해 대부분 해안에 해석이 발달해 있다. 주요 해양동물로는 진주담치, 대수리 등 무척추동물

9종이 있으며 파래류와 불등풀가사리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갯이갈매기가 서식하고 있다.

직도는 공군의 포격 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사격이 있을 때에는 인근 도서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의 운항이 통제된다. 사격훈련으로 인해 섬의 형태는 변형되었으며 인근 말도와 명도, 방축도 주거에서는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그물에 오폭탄이 걸려 폭발하는 사고도 실제로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에 직도 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군산지역 20개 어촌계 대표들이 발표하기도 했다.<sup>168)</sup>

168 노컷뉴스 2005년 3월 4일 신문기사 : 군산 어민들, 직도 사격장 매항리 대체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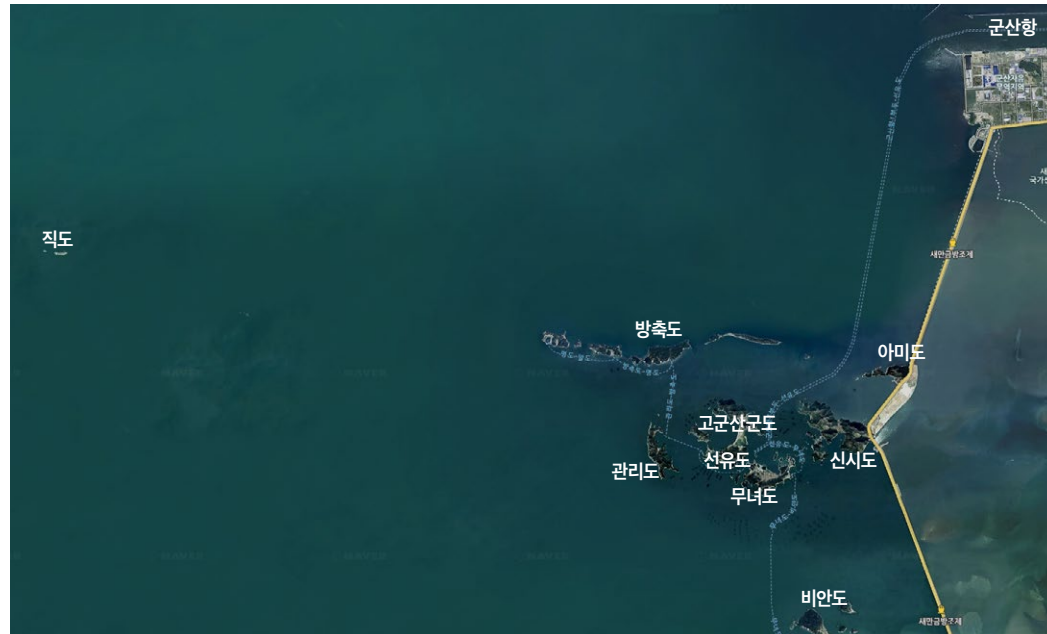


사진 82 직도와 주변 도서 (출처 :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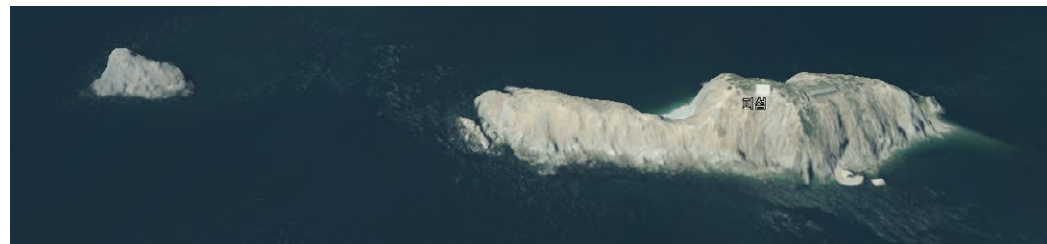


사진 83 상공에서 바라본 소피도(왼쪽)와 직도(오른쪽)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사진 84 소피도 남쪽 모습

169 고서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연안포털 무인도서정보에 수록된 내용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이엔씨와 (사)한국해양구조단에서 연구한 “무인도서 실태조사 연구”의 최종 보고회 자료(2006)를 발췌 요약하였다.

4) 고서

고서<sup>169)</sup>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 위치한 섬으로 홍도 북서부와 인접한 무인도서이다. 섬 전체 면적은 약 43,287㎡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서 고문헌이나 고지도에도 고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서에 서식하고 있는 주요 동식물로는 팽이갈매기, 알락할미새, 가마우지, 칼새 및 매가 있으며 참억새와 밀사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해양생물로는 조무래기따개비, 거북손, 두드럭배말, 검은큰따개비 등 해양무척추동물 17종과 조피볼락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조류로는 툫이 우점종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85 고서 전경(위)과 기점(아래). 아래쪽 사진의 앞 부분이 고서 영해기점이다.

5) 소국홀도

소국홀도<sup>170)</sup>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속한 섬으로 가거도 항리 등대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는 무인도이다. 면적은 4,760㎡이다. 섬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유문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식애가 발달되어 있다. 국홀도라는 지명은 바다 새들의 ‘구굴구굴’하는 소리를 본받아서 구굴섬이라고 불렸으며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여 구굴도(局屹島)라고 하였다. 옆의 대구굴도와 합쳐서 국구도 혹은 갈매기 섬이라고도 부른다.

170 소국홀도의 자연환경과 서식 생물에 대해서는 신안군, 앞의 책, 2013.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다.



그림 19 소국홀도(왼쪽)와 대구굴도(오른쪽) 지도(1: 5000) (출처 :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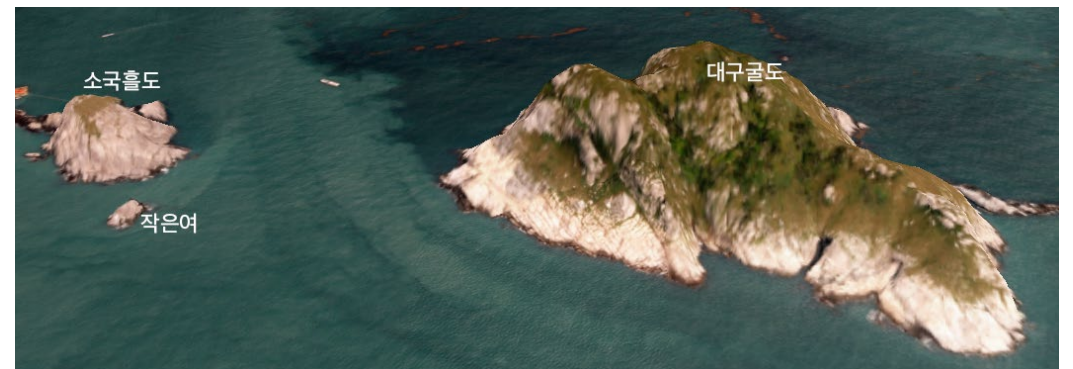


사진 86 상공에서 바라본 소국홀도(왼쪽)와 대구굴도(오른쪽) (출처 : V WORLD 지도서비스)

171 구골도 해조류 번식지는 빨쇠오리, 바다제비, 승새 등 매우 희귀한 여름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휴식처이자 번식지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현재 구골도는 바닷새류 번식지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청 문화재검색).

이곳에 서식하는 새들로는 칼새, 바다 제비 등이 있으며 식물로는 번행초, 갯장구채, 갯기름나물, 갯까치수영 등이 있다. 섬 전체에는 밀사초와 원추리, 쇠무를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소국홀도는 농어와 우럭이 많이 나오는 낚시 포인트로 유명하며 조피볼락과 쥐노래미가 서식한다. 해양무척추동물로는 검은큰따개비, 굵은줄격판담치가 거대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거북손과 진주배말, 홍합도 서식하고 있다. 주요 해조류로는 패, 툫, 작은구슬산호말이 있다. 이 섬은 천연기념물 제34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sup>171)</sup>



사진 87 소국홀도 전경



사진 88 소국홀도 바위 위 서식 생물

# IV

##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

## IV.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반도의 영토 범위는 왕조의 설립과 외세의 침략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그리고 바다를 이용한 대상과 방법도 시기마다 차이를 보여 왔다.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왜는 여러 항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의 장보고는 중국과 신라와 왜를 연결하는 무역 거점을 서·남해 바다에 설치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의 공도정책과 해금정책, 조선 말기의 강력한 쇄국정책은 지정학적으로 개방적인 한반도를 폐쇄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외세를 인식하지 못한 조선은 일제의 침략에 무너지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어업수탈과 중국의 서해 침입은 해방 이후에도 불법조업 형태로 계속해서 자행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법으로 「영해법」을 제정하여 서해, 남해, 동해 각 지역에 영해기점을 마련하고 이 기점으로부터 영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서해 영해기점은 총 10개소가 있다. 무인도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탓에 그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인도의 경우에도 본토와 멀리 떨어진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사적 기록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최외곽 도서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고고학적 자료(폐총)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왜구의 침략으로부

터 자신의 가족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산 위로 올라가 투석전을 펼치는가 하면, 외국 사신의 안전한 왕래를 위해 봉수의 불을 켜기도 했다. 또한 일제의 어업수탈을 위한 개발이었지만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어장에 맞는 어구와 어법으로의 전환과 어업의 근·현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외곽 도서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육로로의 이동이 아닌 바다를 통한 이동이기 때문에 기상이 불량하면 선박이 결항되기도 한다. 특히 과거에는 동력선이 아닌 풍선으로 노를 저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해양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외곽 도서이기 때문에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육지에 비해서 늦은 시기에 완공되었거나 현재에도 미비한 실정이다. 가거도의 경우 대리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산등성이를 넘어야 한다. 산등성이를 넘는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일부분은 비포장도로로 남아있다. 또한 산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항리 마을이나 대풍리 마을로 이동한다. 흥도의 경우에도 1구에서 2구로 가기 위해서는 깃대봉 정상을 통하여 약 2시간 정도 등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현재 많은 도서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어청도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지자 2001년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저수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저수지를 축조하기도 하였다. 흥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서가 되자 식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1998년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식수 보관용 물탱크를 설치했다. 가거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횡도는 마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 사용했다. 하지만 지하로 스며든 물을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에 불과해서 식수의 위생

1 안마도는 약 10여 년 전부터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지하수확보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수담수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식수를 얻을 수 있다. 횡도에는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생활을 안마도나 육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횡도의 식수문제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고인 우물이 말라버려서 안마도에서 물을 실어다 사용<sup>1)</sup>하였다.



사진 89 가거도 대리마을 상수도 정수장. 마을 뒤편의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는 전기시설이 늦게 설치되었다. 전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호롱불을 이용하여 불을 밝혔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후반부터 경운기나 탈곡기의 엔진을 이용하여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이용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내연발전소가 설치되었고 이것이 다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가거도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자가발전에 의존하다가 방과제 축조공사를 맡았던 삼부토건이 1980년대 초중반부터 섬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1994년 2월에 흥도와 함께 내연발전소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어청도에서는 1960년대 후반 탈곡기 모터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이용하였다. 이후 자가발전 설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였지만, 1990년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어청도 내연발전소는 1995년에 준공되었다. 상왕등도에서도 1970년대 경운기 엔진을 이용하여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이용하였다. 상왕등도 자가발전은 2006년 발전소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는데 전기 생산 용량이 낮았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약 3~4시간 정도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삶이 좀 더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영해기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육지로의 이동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대략 2시간 이상의 배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서를 방문하는 것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귀농, 귀촌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2)</sup>



사진 90 상왕등도 마을 위쪽에 위치한 한국전력 발전소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된 바다로 변화된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도서 사람들은 섬을 등지고 육지로 이주하여 사는가 하면 육지에 또 다른 집을 마련해 놓고 섬과 육지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해기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닭이 울면 여기서도 들린다”

2 서해 영해기점 도서로 전입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입자들은 업무차 도서를 방문하여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등대 등 도서의 특정 시설 관련 업무자들이 도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거도, 어청도 등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방파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외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유입 형태는 타지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영해기점 도서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연령이 50대인 제보자들의 경우 대부분 젊은 시절 주변의 큰 도시나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U턴형 이주자가 형성되는 이유는 도서에서의 경제활동에 비해 어촌에서의 경제활동이 임금노동을 위한 특별한 지식이나 사업을 위한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안마도의 사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여 묵힌 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묵힌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즉 어촌이나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은 최소한의 자본투자와 최대한의 노동력 투자(자기착취)만으로도 필요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이 우리나라의 끝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어청도와 상왕등도, 흥도, 가거도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공간이 우리나라의 끝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횡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는 1978년 「영해법」 시행 이후 이곳에 작은 영해기점 표지석이 설치된 것을 보고 횡도가 영해기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마도 사람들은 횡도가 끝 섬이라는 사실을 최근의 영해기점 상징조형물 공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안마도와 횡도 주변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남쪽으로 신안군 재원도의 부속 도서들이 횡도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해기점 거주민들은 끝 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횡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는 “독도만 중요한 땅이 아니라 영해기점은 모두 중요한 땅이니 독도처럼 서해 영해기점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영해기점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 91 가거도 대리마을에 위치한 '대한민국최서남단' 표지석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빠른 배로 1시간 30분 이동하면 우리나라 밖”이라는 공간감을 가지고 있으며 “바닷물이 빠졌을 때 1m라도 앞으로 영해기점을 정하면 우리나라 땅이 넓어진다”라고 말한다. 즉 자신들의 생활무대가 “우리나라 땅 넓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선조가 어청도, 가거도, 흥도 등 영해기점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서 노략질을 하거나 어업수탈을 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계속 지킬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옛날 그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 할아버지들, 조상들은 힘들어도 살고, 어려워도 살았다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여기서 살고 있지. 섬 사람들이 애국자여. 만약에 그분들이 가거도에 거주를 안했으면 이것이 일본 땅이 됐을랑가 중국 땅이 됐을랑가 몰라. — 고승호(65세, 가거도 거주)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선조들이 물과 식량이 부족한 마을에서 힘들게 살면서 계속해서 섬을 지켰고 “고생을 숙명으로 알고 산 덕분에 우리 국토가 더 넓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섬 마을에 사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산’ 사람들의 후손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또한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섬뿐만 아니라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를 오가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어업 장비를 가지고도 풍어를 기원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 나아갔으며, 가족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섬과 육지를 찾아 이동하였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생활 하면서 서해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경제활동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 특별한 경제활동 가운데에



사진 92 가거도 대리마을에 위치한 조형물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섬의 인구 변화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결과이다. 이 보고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세계일보(2017. 4. 27.) 신문기사를 참조하였다.

는 파시가 있다. 파시는 생산과 가공, 판매 및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편,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독특한 서해만의 어업문화였다.

육지와 도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펼쳐진 영해기점 도서 사람들의 활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이 증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 살아온 삶의 흔적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점차 도서 인구는 육지로 이주하고 있으며 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육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발 대상 도서 317곳 가운데 24곳이 50년 후 무인도가 된다.<sup>3)</sup> 특히 이 가운데에는 단 한 가구만 거주하고 있는 횡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북극렬비도에 등대원이 다시 상

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서의 무인도화 정책에 따라 영토주권 침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다른 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이 최외곽 도서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 어떤 삶의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과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이곳이 미래에도 우리의 공간이고 우리의 삶과 연결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과 일본 어선들의 침입과 불법 조업 문제,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둘러싼 매입의 소문과 국유지 전환을 위한 어려움 등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시작지점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것이다.

## | 참고문헌 |

### 사료

- 『국역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1월 16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41책, 숙종 13년 6월 1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108책, 영조 17년 5월 23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 10월 7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2월 10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3월 4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3월 9일 기사.  
 『국역 비변사등록』 213책, 순조 24년 12월 23일 기사.  
 『승정원일기』 순조 19년 7월 20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7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4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8월 27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영광군.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전주부 부안현.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6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1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6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6월 8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8월 19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46권, 숙종 34년 7월 24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 11월 10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5월 21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5권, 현종 14년 12월 29일 기사.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7월 19일 기사.

## 서적 및 논문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안항로지』, 2015.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6』,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III(1894-1899), 2007.

권영현, 이인배,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고찰』, 충남발전연구원, 2012.

김남순, 「가거도의 종교와 교육」,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김문기, 「氣候, 바다, 漁業紛爭-1882~1910年間 朝淸漁業紛爭의 展開-」, 『中國史研究』 63, 中國史學會, 2009.

김문기, 「海權과 漁權: 韓淸通漁協定 논의와 어업분쟁」, 『대구사학』 126, 대구사학회, 2017.

김미경, 「어청도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한국도서연구』 20(2), 한국도서(섬)학회, 2008.

김민영, 「1910년대 전북지역 일본인 이주어촌의 존재형태와 구조」, 『한일민족문제연구』 8,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김수희, 『근대의 멸치, 제국의 멸치』, 아카넷, 2015.

김수희,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 20,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4.

김승, 「可居島の 水産業」,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김승, 「可居島の 마을管理와 共同漁場 利用形態의 變遷課程에 관한 調査研究」,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김승-김연수, 「朝鮮時代 傳來의 波市와 漁業根據地 波市の 比較研究-타리파시(台耳波市)의 實態調査를 통해본-」, 『수산연구』 22,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5.

김우철 옮김, 『여지도서 10 총청도 III』, 디자인하름, 2009.

김정숙, 「연안 크루즈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선유도, 연도, 어청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0(2), 한국도서(섬)학회, 2008.

김준, 『섬문화 답사기』 신안편, 서책, 2012.

김효경, 「西海 신령이 된 田橫」, 『역사민속학』 3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1.

류창호, 「1920년대 어느 식민지 지식인의 서해도서 巡禮」,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박순발, 「백제의 해상 교통과 기항지-대(對) 중국항로(中國航路)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2016.

명정구,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 수중탐사를 마치고」, 한국수중과학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 2016.

문병채, 「안마도의 문화관광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활성화 연구」, 『韓國島嶼研究』 14(2), 한국도서(섬)학회, 2002.

바실 홀, 김석중 엮음, 『10일간의 조선항해기』, 삶과 꿈, 2000.

변주승 옮김, 『여지도서 45 전라도 II』, 디자인하름, 2009.

변주승 옮김, 『여지도서 46 전라도 III』, 디자인하름, 2009.

부안군, 『부안군지』 2권, 부안문화원, 2015.

사마천, 김원중 옮김, 『사기 열전』, (주)민음사, 2011.

서경,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고려도경』,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5.

成大慶, 「保守儒生の '自淸論'과 外勢對應樣式-良齋 田愚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신안군, 『가거도 자연문화유산 지표조사 최종보고서』, 신안군, 2013.

신안군, 『新安郡誌』, 신안군, 2000.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2012.

영광군, 『영광군지』 1권, 영광문화원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13.

윤형숙, 김건수, 박종오, 김경희, 조희숙, 『홍어』, 민속원, 2009.

이근우, 신명호, 심민정 번역, 『한국 수산지 I-I』, 새미, 2010.

이기복, 「1910~1930년대 어청도의 수산업과 다케베시즈오(武部靜雄)」,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李元淳, 『한국사』 16, 근대-개화 척사운동, 국사편찬위원회, 1983.

이재언, 『한국의 섬-전라북도』, 지리와 역사, 2017.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권, 每日申報 1910년 12월 25일 기사.

장수호,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 침탈사 : 개항에서 1910년까지 일본의 어업 침탈에 관한 연구』, 수산경제연구원BOOKS, 2011.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III』, (주)민문고, 1989.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IV』, (주)민문고, 1989.

정종관, 「격렬비열도와 인근 유·무인도서의 자연생태환경을 연계 활용한 해양자원화 방안」, 충남연구원, 2015.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9.

조세현, 『천하의 바다에서 국가의 바다로』, 일조각, 2016.

조윤수,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2013.

조윤수,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일본비평』 1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주강현, 『등대 문화사』, 항로표지기술협회 국립등대박물관, 2015.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23권, 「軍用土地 收用に 관한 件」, 국사편찬위원회, 1997.

최재울, 「可居島の 家族과 結婚制度」, 『韓國島嶼研究』, 한국도서학회, 199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이엔씨, (사)한국해양구조단, 「무인도서 실태조사 연구 최종 보고회 자료, 200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고해도 속의 우리 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014.

허일, 「엔닌일기의 재탐방II-신라상선의 항로 및 속력에 관한 고찰-」, 『STRATEGE 21』 1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6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태안)』, 성진문화사, 2006.

환경부, 『(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 : 왕등』, 환경부, 2011.

## 신문기사

경향신문 1962년 1월 29일 신문기사.  
 경향신문 1963년 3월 25일 신문기사.  
 경향신문 1964년 4월 27일 신문기사.  
 노컷뉴스 2005년 3월 4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5년 4월 27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34년 7월 9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35년 5월 29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35년 11월 28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39년 9월 6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59년 10월 14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62년 3월 9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62년 3월 29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64년 3월 21일 신문기사.  
 동아일보 1965년 4월 10일 신문기사.  
 매일경제 1967년 4월 8일 신문기사.  
 매일경제 1979년 6월 14일 신문기사.  
 세계일보 2017년 4월 27일 신문기사.  
 연합뉴스 2007년 2월 5일 신문기사.

##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문화재청 문화재검색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NS\\_04\\_03\\_01&mc=NS\\_04\\_03\\_01](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NS_04_03_01&mc=NS_04_03_01)  
 연안포털 무인도서정보 <http://terms.naver.com/list.nhn?cid=55596&categoryId=55596>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의 섬-전남 신안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31846&cid=43737&categoryId=5139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해양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2463&categoryId=42463>

## 동영상

KBS 다큐멘터리 “서해 격렬비열도 사계”



# 서해 영해기점 도서

총괄	손재학
기획	김주식, 백승옥, 전경호
원고	전경호
편집교정	서영남, 김소형, 김승신, 제아름, 이예니
자료제공(가나다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해양조사원, 서울역사박물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문화재청, 신안군청, 이준규(부산대학교), 정병남(어청도 거주), 태안군청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인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대표전화 : 051-309-1900
제작판매	순간과영원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1 강성빌딩 2층 전화 : 051-244-7504

©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17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 활용 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SBN 979-11-88805-03-7

# 서해 영해기점 도서

총괄	손재학
기획	김주식, 백승옥, 전경호
원고	전경호
편집교정	서영남, 김소형, 김승신, 제아름, 이예니
자료제공(가나다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해양조사원, 서울역사박물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문화재청, 신안군청, 이준규(부산대학교), 정병남(어청도 거주), 태안군청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인	국립해양박물관 www.knmm.or.kr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대표전화 : 051-309-1900
제작판매	순간과영원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1 강성빌딩 2층 전화 : 051-244-7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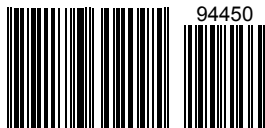
©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17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 활용 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값 16,000원



ISBN 979-11-86302-09-5  
ISBN 979-11-86302-07-1